

---

# 2016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





# Contents

---

## 2016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b>일본</b> .....	3
일·가정 양립 .....	3
양육지원 .....	7
저출산 .....	18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23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23
기타 .....	24
<b>미국</b> .....	26
일·가정 양립 .....	26
양육지원 .....	26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30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32
유아교육·보육 교사 .....	34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35
이동발달/부모됨 .....	36
기타 .....	40
<b>캐나다</b> .....	41
일·가정 양립 .....	41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42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58
기타 .....	61
<b>프랑스</b> .....	64
일·가정 양립 .....	64
양육지원 .....	65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66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66
이동발달/부모됨 .....	73
기타 .....	75



# Contents

---

<b>독일</b> .....	76
양육지원 .....	76
저출산 .....	78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80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83
유아교육·보육 교사 .....	91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92
기타 .....	93
<b>스웨덴</b> .....	98
일·가정 양립 .....	98
양육지원 .....	101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01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02
유아교육·보육 교사 .....	108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110
기타 .....	111
<b>영국</b> .....	116
일·가정 양립 .....	116
양육지원 .....	118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20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26
유아교육·보육 교사 .....	127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128
아동발달/부모됨 .....	129
기타 .....	131
<b>2016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b> .....	133



| 2016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



## 2016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 일본

### ❖ 일·가정 양립

#### 1. 육아휴직퇴원 폐지, 부담 없는 이용을

미에현 쓰시(津市)가 ‘육아휴직퇴원(退園)제도’를 올 4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육아휴직퇴원제도란, 둘째 이후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보육원에 다니던 아이를 퇴원시킬 수 있는 제도임. 0~2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부모가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를 퇴원시키는 것. 일을 쉬게 되면 가정에서 육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기아동 해소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음. 이로 인해 201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약 30명의 아이가 퇴원했음.

하지만 육아휴직퇴원에 대해 그간 ‘환경 변화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등의 지적이 있었고, 제도 수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 제도 검토에 들어간 것. 그 결과, 시설 확충을 통한 정원 증가와 향후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올해로 제도를 철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 쓰시육아추진과는 ‘4월부터는 퇴원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보육원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10일

출처: <http://www.yomiuri.co.jp/national/20160110-OYT1T50032.html>

#### 2. 2017년부터 학부모 취업 면접 시, 보육서비스 이용료의 80%를 구직자에게 지급

실직 후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있는 학부모가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료의 80% (하루 최대 8천 엔)를 지급하는 신(新) 제도를 후생노동성이 도입할 것으로 전해짐. 육아 중인 실업자의 취업 지원이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지난 7월 22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세부사항이 결정됐으며, 이용 대상은 보육소와 인정 어린이원[1], 혹은 지역 시설에 아이를 맡기거나 비인가 보육소, 베이비 시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면접 15일분까지 이용료 중 80%를 고용보험으로 지급받음.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최대 60일분까지 비용의 80%가 지급됨.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 등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면접 등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함.

[1] 인정어린이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통합한 일본의 육아시설.

2016년 7월 25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J7Q4V1ZJ7QULFA00J.html>

### 3. 대학생 구직활동 전 맞벌이가정 '1일 가족 견학', 워킹맘의 실상을 알게 되다

맞벌이 가정 '1일 가족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됨. 구직활동 전에 맞벌이 가정의 현실과 실상을 직접 경험하고, 진로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은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 가정을 방문,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육아를 경험함. 육아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육아휴직 복귀 후의 제도, 보육원에 입소시키기 위해 이사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여학생의 관심이 높았음.

본 '1일 가족 견학'은 게이오 대학 4학년의 니오리 히나에 씨(新居日南恵, 22세)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학생단체 'manma (만마)'가 실시하는 것으로, 2014년에 출범, 2015년 2월부터 시작됨.

본 단체에는 0~6세 정도의 자녀가 있는 가정과 참가를 원하는 학생이 각각 200명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사전 면담을 거쳐 방문하게 됨. 현재까지 총 180명의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2016년 8월 22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DA3S12522656.html>

### 4. 일본 정부,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 재취업 지원

결혼이나 출산·육아 등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교육 지원책 확충에 나섬. 퇴직한 여성이 직업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업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쉽도록 함.

정부는 2016년 11월 16일 「근무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지원 방침을 마련함. 주요 지원 내용으로, 대학에 개설되는 ‘리커런트 교육’(재교육)의 과정을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함.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에 공백이 생긴 사람이 영어와 IT 등 업무에 필요한 기술 실습과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 수강생이 많음.

현재 일본여자대학과 간사이대학교 대학원 등에 개설된 과정들은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여 받는 ‘교육 훈련 보조금’으로 수강이 가능함. 수강료의 40%를 지급하고, 수료 후 1년 이내 재취업을 하면 20%를 추가 지급하게 됨. 다만, 대부분의 강좌는 6개월-2년의 수강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아를 하는 여성들 중에는 ‘2~3개월 정도의 코스라면 수강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음. 따라서 단기 강좌도 지원이 되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대학 단기 과정의 개설을 권장할 계획임. 기업 입장에서도 재취업하는 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016년 11월 16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JCH53J9JCHULFA013.html>

## 5. 사가 시, 24시간 직장 보육시설 개설로 일하는 여성 지원

사가시의 비영리단체 ‘사가 육아 응원단 코코로’ (대표: 아키야마 히로코)는 2017년 4월, 최초로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개설함. 육아 응원단 코코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음.

보육원에 등록할 수 있는 정원은 44명으로, 이들 중 절반은 보육원이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한 후 그 직원의 자녀를 수용하게 됨. 이 보육시설은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수용 환경을 정비하고 운영비 및 정비 비용을 조성하는 일본 내각부의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으로 채택되었음.

이 보육원은 2013년부터 운영되었던 사가 시내 24시간 탁아소의 높은 수요로 인해 확충되어 개설됨. 보육원은 목조 단층에 면적은 약 740평으로 일반 보육시설에 더하여, 질병 치료 후 회복기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갖추고 카페 공간도 마련되어 있음. 보육원은 인가되지 않은 시설이지만, 인력과 설비는 인가시설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보육료는 시내 인가 보육소보다 10~20%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임. 보육원과 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게는 등록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몇 명씩 할당됨. 이미 시내 콜센터와 병원, 미용실, 보험 회사 등으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음.

## ■ 초1~중3을 대상으로 한 아동 보육 서비스도

사업자에게 할당된 기준 외에 남은 아동들은 인근 지역에서 모집됨. 영유아 보육과는 별도로 초1~중3을 대상으로 한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노인 등과의 교류 사업도 기획하고 있음.

아키야마 대표는 ‘사가시 보육 서비스는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 정비되지 못했음. 육아를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도 많은데 이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설명함.

사가 시에 따르면 시내 대기 아동은 56명 (10월 1일 기준)으로, 원치 않았던 시설에 배정된 아동 및 ‘숨은 대기 아동’도 포함하면 214명에 이룸. 11월 28일 응원단 코코로는 개설에 앞서 기업 및 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임.

2016년 11월 14일

출처: <http://news.goo.ne.jp/article/nishinippon/nation/nishinippon-20161115112134095>

## 6. 증가하는 사내 보육소와 여성 복직 지원

결혼과 육아를 계기로 퇴직하는 여성의 직장 복귀 및 정착 촉진을 위해 센다이 시 사업장 내에 보육소를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손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의 이직을 막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이를 통해 근무 방식에 맞춘 보육소를 운영하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의류 수선업에 종사하는 한 여성은 2014년 4월 아오바구(青葉区)에 직원용 보육소를 개설했음. 100여 명의 직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했던 사람도 있었음. 보육 사업부 카가 메구미(加賀恵) 부장은 ‘옷 수선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시간을 들여 키운 인재가 그만두는 건 큰 손해였다.’고 말함. 2015년 4월에는 사업장 내 보육소로써는 시 최초의 인가 보육소로 지정되어 운영비 등, 시에서 조성금도 받았음. 현재, 시내에 인가 보육소 2곳, 인가 외 보육소 1곳을 설치할 계획임. 한편, 보육료의 일부 (최대 2만 엔)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지원책도 있어, 퇴직 후 복귀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함.

JR 센다이 역 상업 시설 에스팔(S-PAL) 센다이를 운영하는 센다이 터미널 빌딩은 지난 4월, 에스팔 남쪽 사무소에 인가 보육소를 마련했음. 이곳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음. 에스팔 센다이의 사원 식당에서 일하는 파트 타임 직원 후쿠다 씨는 세 살짜리 딸과 한 살인 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김. 그녀는 딸을 출산한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가 되었지만 아들을 출산한 지 반년 만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였

고, 보육 시설은 그녀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음.

시에 따르면 시 사업장 내 보육소 개수는 2016년 11월 1일 기준, 인가 및 인가 외 보육소를 합쳐 총 55곳으로, 올해에만 10곳 늘었음. 정부는 2015년 4월, 새로운 어린이·육아 지원 제도를 시작하였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정원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장 내 보육소도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됨. 이러한 제도는 보육소 증가에 기여했음. 시 담당자는 ‘기업의 보육소 설치 는 시정 과제인 대기 아동의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선을 적극 환영했음.

한편, 보육소 개선을 위한 활동은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로도 확대되었음. 이즈미 구의 한 미용실은 직원 9명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경력 채용자 여성들임. 이 미용실에서는 주 5일 근무제와 노동 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내년에는 인가 보육소 설치를 목표로 삼음.

2016년 12월 25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22-00000026-khks-bus\\_all](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22-00000026-khks-bus_all)

## ● 양육지원

### 1. 사이타마시, 손자 육아를 위한 ‘조부모수첩’ 발행

사이타마시(さいたま市)가 손자, 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조부모 세대를 위해 ‘조부모 수첩’을 발행했음. 조부모 세대가 아이를 키우던 시대와 달라진 최신 육아 정보를 정리했으며 손자 육아를 즐길 수 있는 비결 등이 담긴 책자임.

사이타마시는 맛벌이 부모 대신에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로부터 육아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았다고 조부모를 위한 수첩을 처음 발행했음. 시는 히로시마현과 기후현, 요코하마시 등에서도 수첩을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사이타마시 수첩의 캐치카피는 ‘미소짓게 하는 손자 육아’. 아기 안기나 기저귀 가는 법, 젖병 물리는 법 등 상황별 매뉴얼을 만화로 소개함. ‘이것이 바뀌었다! 육아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을 붙이고 예를 들어, 기저귀를 떼는 시기에 관해 예전에는 ‘빠를수록 좋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발달 상황을 보면서 여유를 갖고 떼는 것이 좋다’는 사고로 바뀌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함.

그밖에 ‘과거에는 이유식을 먹이기 위한 준비 단계로 과즙을 주도록 지도했으나 지금은 이를 추천하지 않는다’, ‘엎드려 자기는 두상이 예쁘게 잡힌다고 여겨졌으나 유아돌연사증후군

(SIDS)을 방지하기 위해 똑바로 눕혀서 재워야 한다'등, 육아 상식을 둘러싼 세대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손자와 외출하기 좋은 지역 명소나 육아 상담 창구 목록도 담겨있음.

사이타마시 육아지원정책과 담당자는 '개개인의 육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전체의 손자 육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음. 수첩은 A5 절반 사이즈로 총 2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음. 1만부를 발행해 지역 구청이나 공민관,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2016년 1월 21일

출처: <http://www.yomiuri.co.jp/national/20160119-OYT1T50032.html>

## 2. 미나미아시가라 시(南足柄市), 임신부터 취학 전까지 끊임없는 육아 지원

육아 세대의 불안감 해소에 나선 미나미아시가라 시가 올 4월부터 임신, 출산,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자녀 네오볼라(neuvola)'사업을 시작함. 가나가와 현 중에서는 요코하마(横浜), 가와사키(川崎), 요코스카 시(横須賀市)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서부지역으로는 첫 도입 사례임.

네오볼라는 육아 선진국이라 평가 받는 핀란드어로 '상담소'라는 뜻임. 출산율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를 감소시킨 핀란드 공영 지원 센터의 지원 체제를 참고로 함.

미나미아시가라 시에서는 보건 의료 복지 센터에 거점을 두고, 보건사(2명)와 조산사(1명)가 시내에서 태어날 연간 약 300 명의 신생아를 케어함. 보건사 1명이 모자 한 쌍을 출산 전부터 취학 전까지 6년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부모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문제를 성장 단계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함.

이 밖에 영유아 건강 상담이나 발달 상담 프로그램을 확충해 출산 전부터 임신부 건강 상담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임. 어머니의 심신상의 문제나 육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케이스 컨퍼런스를 개최해 관련 기관과 협력한 지원 계획을 마련함. 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육아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일고 있음. 지금까지는 점의 형태였던 지원 방식이 선이 되는 이미지'라고 설명함.

2016년 2월 17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217-00007249-kana-114>

### 3. 교토부(京都市), 조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의 달인 강좌

육아에 적극적인 할아버지 ‘이쿠지이(イクジイ)’와 할머니 ‘이쿠바아(イクバア)’, 즉 지역의 육아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장년 인재를 육성하는 ‘육아의 달인 양성 강좌’의 현장 연수가 1일, 후쿠치 야마시 내 보육원 2곳에서 실시되었음.

교토부는 작년부터 육아가 끝난 세대나 노인이 옛날 놀이나 자신의 경험을 육아 지원에 활용하는 독자적인 ‘육아의 달인 양성 강좌’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공통의 교육 통합 내용을 확충할 예정임. 일반 사단 법인 부모육 협회에 위탁하여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시설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1일에 실시된 현장 연수는 실제로 아이들과 접해보는 총정리 강좌로, 수강생은 2그룹으로 나뉘어 후쿠치 야마 시의 카즈나리 보육원과 사츠키 보육원을 방문했음.

카즈나리 보육원에서는 5세 아동 20명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등을 한 뒤, 함께 자유 놀이를 실시, 수강생들은 연습해 온 프레임과 풍선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음. 중년의 한 수강생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해와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신선하고 저도 재미있다’고 밝혔음.

강좌를 수료하면 교토부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받고 유치원, 방과 후 아동 클럽 등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음.

2016년 2월 4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204-00010000-rtn-126>

### 4. 야마나시 현 후나후키 시, 인터넷을 통한 육아 지원. 2017년 개시 목표

자녀를 둔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와 고민 상담을 하거나 ‘전자판 모자 수첩’에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후나후키 시(笛吹市)가 도입했음. 육아 중인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 이들이 사회에 쉽게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2017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함.

후나후키 시가 추진하는 것은 ‘후나후키 시 육아 광장(가칭)’이라는 사이트임. 자녀의 신장과 체중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음. 검진일과 시 등이 주최하는 육아 관련 이벤트 정보 등도 받을 수 있음. 또한 소아과 의사, 보건사, 장애아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육아나 아이의 성장 등에 관한 고민에 대응함. 상담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부모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공유거나 특정인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음. 예방 접종 기록 등을 기입하는 모자(母子)수첩 기능도 있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어디서나 읽고 쓸 수 있음.

시 복지 사무소의 코미야마 소장은 ‘낮에는 시간이 없거나 전화나 면담으로는 말하기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음. 인터넷을 통한 세심한 지원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젊은 세대, 특히 여성의 활약을 지원하고 싶다’고 설명함.

2016년 3월 16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J376RDJJ37UZOB00R.html>

## 5. 돌봄도서관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육아지원의 장으로도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늘고 있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천천히 책을 고르고 독서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육아 지원의 장으로서도 한몫하고 있음.

아이와 함께 지바현 야치요(千葉県八千代)에 위치한 시립중앙도서관 회의실을 찾은 어머니들. 실내에는 부드러운 매트가 깔려있고 장난감과 그림책이 준비되어 있음. 3명의 보육사가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을 들은 후, ‘다녀오세요’라며 어머니들을 배웅했음. 이곳은 작년 7월부터 토요일을 포함해 주 3일, 생후 6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탁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예약할 필요 없이, 방문 시 신청하면 부모는 원칙상 1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기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음. 탁아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월 120~160명 정도라 함.

요코하마의 야마우치 시립도서관에서는 월 2회, 지역 어머니 단체가 관내 집회실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함. 이용료는 시간당 500 엔으로 지역의 육아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함. 이 밖에도 매달 부모를 위한 그림 연극 등의 ‘이야기 모임’도 실시함. 또한, 도쿄 분쿄구(東京都文京区)에 위치한 리쓰이시카와 도서관에서는 주 1회, 보육사 자격 또는 유치원 교사 면허를 가진 직원이 대기함.

간사이 대학 어린이 가정 복지학과의 야마가타 교수는 도서관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 한숨 돌릴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가족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앞으로 보육이나 아동관 등과 연계해 나간다면 육아 지원에 관한 행정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 말함.

2016년 3월 10일

출처: <http://www.yomiuri.co.jp/komachi/childcare/cnews/20160304-OYT8T50060.html>

## 6. 치바 현 이치카와 시, 다세대 가족에 보조금. 육아와 정착 촉진을 위한 신사업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육아 세대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다세대 가족’을 응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육아 세대와의 동거를 응원하는 보조금 100만 엔(최대)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응원 여권’을 대상 가정에 배포함. 시는 ‘조부모의 지혜와 지원으로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육아 세대의 정착 촉진과 출산율 향상’을 목표로 삼음.

사업은 이치카와 시의 ‘지역·사람·일 창생 종합 전략’의 일환으로, 조성 대상은 육아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동거 혹은 근거리 거주를 시작하기 위한 주택 구입, 신축, 개축, 증축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임. 주택 업체도 구입비 할인 등의 형태로 협력함. 미쓰이 홈과 스미토모 임업은 주택 본체 가격 (계약 시)에서 3 % 상당의 할인을 실시한다고 함.

응원 여권은 시가 신청한 다세대 가족에게 배포됨. 협찬 기업 등에 제시하면 쇼핑과 식사, 레저 등으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사업 시작은 8월로 예정되어 있음.

또한, 시는 육아 지원 추진을 포함한 지방 창생에 관한 협정을 6개 금융 기관과 체결했음. 행정 및 금융 기관이 연계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함. 협정은 (1) 육아 지원 추진 (2) 정착 촉진 (3) 창업, 대출 지원 등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치바 은행은 대상 가구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 특별 금리를 제공함. 시는 ‘육아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할부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중’이라 설명했다.

협정 체결식에서 치바은행 이치카와 지점의 다나가 마사히코(田中政彦) 지점장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목표로 함. 육아와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또한 오쿠보(大久保) 시장은 ‘지방을 살려 저출산에 제동을 걸.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 보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내비쳤음.

2016년 4월 20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420-00000032-san-112>

## 7.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 아동부양수당 둘째부터 최대 두 배로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부양수당을 증액하는 개정판 아동부양수당법이 2일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음.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개정법을 통해 둘째 자녀에 대한 지급액이 8월부터 최대 지급의 두 배로 늘어남.

아동 부양 수당은 현재, 첫째 아이에게 최대 월 4만 2330 엔이 지급되고, 둘째 아이는 월 5천 엔, 셋째부터는 월 3천 엔씩 줄어듦. 이번 개정법에서는 둘째 이후의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증액, 자녀가 2명으로 연봉 171만 7천 엔 미만인 가구라면, 둘째는 그 2배인 1만 엔을 받을 수 있음. 아동 부양 수당의 증액은 둘째자녀 대상 36년 만에, 셋째자녀 이상 대상은 22년 만의 일임.

한편, 아동 부양 수당은 연 3회로 나누어 4개월 분이 한 번에 지급되기 때문에 매달 수입이 일정치 않아 가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서 이번 개정법 부대 결의에는 격월 지급을 검토하는 방안을 담았음.

2016년 5월 2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J523T3GJ52UTFK001.html>

## 8. 사가에 시, '산후조리' 지원 확대 - 숙박요금 및 산후지원서비스 제공

사가에 시(寒河江市)가 2016년, 육아 환경의 확충을 위해 임신 때부터 육아기까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가에형 네오 볼라'를 시작했음. 출산 후, 심신의 피곤함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지원하는 '산후 조리'에 중점을 두고 모자의 하루 혹은 단기 숙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임.

'네오 볼라'는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의 육아 지원 제도로, 조연을 구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짐. 핀란드에서는 임신부터 취학 전까지 아이의 건강한 발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심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보건사나 조산사들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같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상담에 응하기 위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문제의 조기 발견과 대응으로 잘 연계되는 특징이 있음.

사가에 시는 핀란드의 산후조리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현의 보조를 받아 사가형 네오 볼라에 힘쓸 예정임.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침체가 지적되는 가운데, 출산 후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쉽고 심신의 균형이 무너져 산후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심신의 회복이 불안정한 생후 3개월 미만의 유아와 있는 어머니로, 시내 2곳의 산부인과(쿠니이(国井) 클리닉, 스마일 여성 클리닉)에서 단기 숙박 및 당일 숙박으로 심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몸 상태에 맞춰 유아의 건강관리와 목욕 등의 육아 지도, 산모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이용료의 90%는 시가 보조하며, 자기 부담액은 단기 숙박이 3식 1박 2700 엔, 당일의 경우, 1 일 900 엔(점심 포함)으로 총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용일 2주 전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지 사가에 시 건강복지과 시민건강계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 수가 정원을 넘거나 각 시설의 수용 상황에 따라 희망 날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시는 하트 폴 센터 내에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도 설치하고 보건사 1명을 모자보건 코디네이터로 배치했음. 모자건강수첩 교부 단계에서 모든 임신부의 상황을 파악,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과 제휴하면서 모자 보건 및 육아 상담에 대응할 계획임.

2016년 5월 10일

출처: [http://yamagata-np.jp/news/201605/10/kj\\_2016051000211.php](http://yamagata-np.jp/news/201605/10/kj_2016051000211.php)

## 9.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노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육아 세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신설, 확충하고 있음. 제도 별 지급조건은 다르지만,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시정촌에 신청할 수 있음.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충될 예정임.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의 둘째자녀 이후 가산액이 증가될 예정임.

2016년 8월에 개정법이 시행되며 12월에 지급되는 8~11월분부터 적용되어, 둘째자녀는 최대 1만 엔, 셋째자녀부터 최대 6천엔이 가산됨. 지급액 인상은 둘째자녀가 1980년 이후, 셋째자녀는 1994년 이후에 실행되며, 이 수당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급됨.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짐. 전액 지급은 자녀가 셋이고 연수입이 227만엔 미만인 경우로, 연봉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연수입이 460만엔을 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약 106만 가구 중 약 43만 가구가 증액 대상이 됨. 자녀가 둘인 가정이 약 33만 가구, 셋 이상이 약 10만 가구이며, 첫째 자녀에 대한 지급액은 최대 4만 2330 엔으로 기존과 동일함.

2016년 7월 16일

출처: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0724-00000005-nikkeisty-bus\\_all](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0724-00000005-nikkeisty-bus_all)

## 10. 증가하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방지 지원 거점시설 정비

일본 후생 노동성은 점점 늘어나는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육아와 관련된 문제를 지닌 가정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을 정비하는 방침을 마련함. 가정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지

속적으로 받도록 하여, 학대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시정촌 거점시설 정비 비용과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2017년도 예산의 개선 요구에 답을 계획임.

이 거점시설에는 아동복지사 등의 전문직이 배치될 예정임.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상담소는 입시보호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대 가능성이 있거나 육아 문제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학부모지도, 상담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를 지원할 계획임.

후생 노동성은 거점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경우 시정촌을 지원할 계획임.

한편, 아동상담소를 통해 접수 된 아동 학대 건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5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음.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육아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지원 거점을 정비하는 것을 시정촌에 의무화할 예정임.

2016년 8월 22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J8Q2FQ1J8QUBQU002.html>

## 11. 한부모 가정의 30% '지원사업 모르고 있다'... 네리마 구, 전문부서 설치 추진

도쿄 네리마(練馬区) 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약 30%는 구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나타남. 또한,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도 밝혀짐.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에서는 2017년 4월까지 한부모 가정 지원 전문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지원 체계를 정비할 방침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소득은 월 23.3만엔 (한화 약 256만원(환율 100엔=1,100원 기준)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 및 수당 포함)이었고,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평균 소득은 월 16.9만엔(한화 약 186만원)에 그쳤으며, 양육비에서는 '0엔(없음)'이 72%를 차지했음. 경제적 고민을 묻는 설문에서 '자녀의 학원·과외비 부담'을 꼽은 사람이 42%로, '집세 부담'의 40%를 웃도는 등 육아와 경제적 고민이 연관되어 있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40%이상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고용 형태가 변경되거나 이직하기를 희망했으며, 이 중 64%가 '급여가 낮다'는 점을 그에 대한 이유로 꼽는 등 어려운 재정적 사정을 드러냄. 직업훈련 지원금 등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28%에 달하여 인식 부족의 문제가 떠올랐음.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네리마 구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부모

가정의 생활이나 취업, 육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부서를 내년 4월에 마련하기로 결정함.

2016년 9월 23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923-00000001-san-113>

## 12. 나가시마와쥬 도서관, '어린이타임'으로 영유아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구와나시 나가시마초(桑名市長島町)의 나가시마와쥬 도서관에서 이달부터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타임'을 시작함.

대부분의 도서관은 영유아 동반을 허가해왔지만, 부모들은 '아이가 울면...'이라는 생각에 도서관을 들리는 것을 꺼려했음. 지난 8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를 '어린이 타임'으로 정하고 도서관 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부모들이 마음껏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함.

이야기 강연은 약 6평 크기의 '이야기코너'에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열리며, 영유아용을 비롯하여 2,700여 권의 책들도 마련되었음.

구와나시 나가시마초에 거주하는 이 지역 어머니 7명으로 구성된 육아 지원 동호회 '반짝반짝 키즈'는 대형 그림책 낭독과 수제인형을 이용한 구연 동화, 그리고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였음.

자녀 2명과 함께 참여한 한 부부는 '평소에는 도서관에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겨 기쁘다'고 함. 이토 메구미씨는 '육아 중인 부모가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 육아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쉽게 예민해지는 엄마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음.

나가시마와쥬 도서관 이외에도 매달 1회 '어린이 타임'을 3년간 이어온 이가시 우에노 도서관(伊賀市上野図書館)은 매달 20~40명이 도서관의 '어린이 타임'을 이용함. 아사히마치(朝日町)의 '아사히 라이브러리'는 매월 두 번씩 '어린이 타임'을 실시해옴.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발을 벗고 도서관에 입장하도록 허가하여 영유아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등 영유아가구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함.

2016년 9월 23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J9Q4DKZJ9QONFB005.html>

### 13. 오키나와 시, ‘꿈의 공간 민들레’로 아동 중심의 지역교류 활성화

2015년 12월, 오키나와 시 오사토에 설립된 ‘꿈의 공간 민들레’는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세대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곳임. 지역 노인들이 자원 봉사로 음식을 만들어 토요일과 방학 때 식사를 제공하며, 오전에는 육아 동아리 모임을 하고, 청년 봉사자와 아이들이 함께 노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는 ‘모임의 장’으로 정착하고 있음.

지역 주민들 간 교류가 없어져 가는 가운데, ‘민들레’의 목표는 ‘모든 이들의 고향’이 되는 것. 아와세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4개의 초등학교에서 이용하며 오키나와 히가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이용하기도 함.

매주 토요일은 ‘어린이 주방’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아동이 요리를 하고, 평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근력향상 체조교실이 이루어지고 있음. 매월 둘째 수요일에는 노래와 산신(三線: 일본 전통 타악기) 공연을 열기도 함.

이곳은 8월부터 일본 정부가 관련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원래 이곳은 노인복지시설이었음. 사업소의 이전을 계기로 한 공간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변화하였으며, 작업치료사 코스케씨는 이전 후에 이 공간을 ‘민들레’에 제공하였음.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집세도 지원하였음.

코스케 씨는 아내와 함께 행사지원 외에 영유아 돌보기 등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하고 있음. 코스케씨는 “어르신에게는 배울 것이 많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웃음과 에너지를 준다. 즉, 상부상조의 관계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후루카타 씨는 “다양한 가능성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고 지역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6년 10월 10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010-00000009-ryu-oki>

### 14. 야이즈 시, 마이넘버 카드 제도로 전국 첫 육아정보 서비스 제공

11월 15일, 시즈오카 현 야이즈 시가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여 엄마-자녀 건강 정보 발신 서비스를 시작했음. 이 서비스는 미취학 아동의 각종 검진, 예방 접종 기록 등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하여 보호자들이 쉽게 육아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엄마-자녀 건강 수첩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야이즈 시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다른 현에도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사 서비스가 있지만, 마이넘버 카드처럼 개인 인증 기능만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임.

건강증진과는 ‘어머니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마이넘버 카드의 이용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됐다’고 설명함.

서비스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미취학 영유아를 육아 중인 부모임. 이 서비스는 깜빡 하기 쉬운 예방 접종 예정일 통지뿐만 아니라, 육아 일기 기능도 갖추었고, 임신 상황에 맞는 정보도 전달함. 이용료는 무료이나 인터넷 통신비는 본인 부담임.

시 보건 센터에 등록된 두 아이의 어머니 스즈키 리에 씨는 ‘엄마-자녀 수첩을 챙기지 못하고 외출한 때에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다’고 함. 마이넘버 카드를 지참하면 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가입할 수 있음.

2016년 11월 16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116-00000023-at\\_s-122](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116-00000023-at_s-122)

## 15. 가케가와 시, 제 1호 ‘육아 주택’ 허가로 젊은 세대 이주 정책 마련

가케가와 시(掛川市)는 지역창생전략을 기반으로 시작한 ‘육아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된 모델 하우스를 제 1호 공식 주택으로 승인하였음. 마쓰이 사부로(松井三郎) 시장은 지난 12월 15일, 하마마츠 지점의 가와이 차장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음. 가케가와 시는 2019년 말까지 100개의 주택 허가를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이번 제 1호 주택을 시작으로 향후 보급을 도모함.

이 사업은 좋은 육아 환경 정비와 젊은 세대의 이주 및 정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신축 건물과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육아 세대를 위한 주택’으로 승인함. 허가를 받은 단독주택에는 안전 대책 공사를 위한 경비 보조, 공동 주택에는 육아 서비스 파견, 이동도서관 순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공식 제1호 주택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주요 공간이 있다’를 비롯하여, ‘계단이 안전하다,’ ‘어린이 전용 수납공간이 있다,’ ‘건강 또는 환경을 생각한 건축 자재를 쓰고 있다,’ 등 허가 기준 34개 항목 중 29개 항목에 적합했음.

마쓰이 시장은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배려가 많이 보인다,’고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수와 타 지역에서 카케가와로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2016년 12월 16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16-00000025-at\\_s-122](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16-00000025-at_s-122)

## 16. 가케가와 시, 민간 기부금 활용하여 '아기를 위한 역' 도입

시즈오카 현 가케가와 시가 이동식 수유·기저귀 교환 공간인 '아기역'을 설치함.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시내 행사장을 활용하였으며, 하마노(浜野)에 사업소를 둔 종합 물류업회사 센코[1]에서 100만 엔 상당을 기부하여 재원을 충당했음. 이에 지난 12월 26일 가케가와 시청에서 마에다(前田) 시즈오카 지점장이 기부금을 마쓰이(松井) 시장에게 전달했음. 아기역은 텐트와 수유용 의자, 기저귀 교환대, 여름용 냉풍기, 현수막, 안내 간판 등으로 구성됨. 2017년부터 이벤트 주최자의 건의사항들을 수용하여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며, 시청 본청사와 지부에도 설치할 예정임.

센코는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있음. 시즈오카 시에는 사측에서 50만 엔, 임직원이 50만 엔을 후원했음. 마에다 지점장은 '기부금을 이렇게 활용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서 이와 동시에 앞으로 육아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 센코(Senko Co.,Ltd): 기업명. 오사카 시 북구에 본사를 둔 종합물류회사

2016년 12월 27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27-00000022-at\\_s-122](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27-00000022-at_s-122)

## ● 저출산

### 1. 히오키 시, 출산가정에 베이비 용품을

올 4월부터 히오키 시(日置市)는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기저귀와 장난감 등이 담긴 '출산 상자'를 지급함.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히오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내걸며, 선진적인 시도로 젊은 세대의 이주 증가로 이어나갈 계획임.

이 사업은 '히오키 코우노토리(황새)편'이라 불리며, 아기용 장난감을 상자에 넣어 임산부에게 주는 핀란드의 사업을 참고로 했음.

세로 38cm, 가로 47cm, 높이 43cm인 상자는 종이 기저귀, 포대기, 딸랑이, 턱받이, 오쿠이조메(お食い初め:생후 120일 쯤 되는 날에, 아기에게 처음으로 밥을 먹이는 축하 행사)용 그릇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품 중에는 지역 홍보를 겸해 히오키 시 지형을 모티브로 한 황새의 캐릭터도 들어있음.

히오키 시의 인구는 2010년 인구 조사에서 5만 822명이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4만 9263명 (잠정치)으로 줄었음.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60년에는 2만 9000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젊은 세대의 시외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시는 지난해 가을에 책정한 종합 전략에 ‘젊은 세대의 이주·정착 촉진’을 담았음.

한편, 출산 상자 증정은 종합 전략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4월 이후 신생아가 탄생한정에 주겠다는 방침으로 연간 350~400 인분을 예상하고 있음. 1상자에 2만 엔 상당의 상품을 담아, 총 800만 엔을 신년 일반 회계 당초 예산으로 편성, 29일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었음.

시는 그 외에도 육아 지원의 거점 시설인 ‘시 여성 센터 킨텐가이’를 4월 17일에 오픈, 육아 세미나와 ‘부모와 자식 체험 교실’ 등을 열 계획임. 도시 기획과의 고조노(小園) 행정 경영 전략 계장은 “따뜻한 정책으로 육아를 지원함으로써 이주 인구 증가로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음.

2016년 3월 30일

출처: <http://www.yomiuri.co.jp/kyushu/culture/kyoiku/20160331-OYS1T50032.html>

## 2. 오키나와 현, ‘육아 우대 카드’ 드디어 도입, 47개 도도부현 중 마지막 발행

올해 4월부터, 오키나와 현은 ‘오키나와 육아 우대 카드(육아응원 패스포트)’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 본 카드는 육아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협찬 점포나 시설에서 육아제품을 할인 받고, 분유 타는 따뜻한 물 제공 서비스를 받는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함.

이는 일본 전국 규모로 도입 중인 육아지원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47개 도도부현 중 오키나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 본 카드를 소지하면, 규슈나 야마구치 지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키나와현 내에 위치한 지원 점포의 시설 수는 6월 1일 현재, 총 877 개소라고 함.

18세 미만의 자녀나 임신부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발행하며, 전용 스티커를 붙인 현 내 상점이나 음식점, 오락시설 등에서 요금할인이나 경품제공, 수하물 보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협찬 점포 현황, 아동 동반 이벤트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웹페이지도 개설되어 있다고 함.

본 카드는 시정촌[1]의 보육 창구나 아동센터, 육아지원센터에서 총 3만 5천장을 배포할 예정. 인쇄된 종이 혹은 스마트폰 등에 표시된 카드 화면을 매장에서 보여주면 이용가능하다고 함.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분유 타는 따뜻한 물이나 수유 공간 제공 등, 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1] 시정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광역시도에 해당.

2016년 6월 2일

출처: [www.okinawatimes.co.jp/article.php?id=171228](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php?id=171228)

### 3. 육아 우대 카드 전국 통합, '이번 기회에 신청을'

올해부터, 시즈오카 현과 현 내 시정촌이 합동 추진하는 육아세대를 지원하는 '시즈오카 육아 우대 카드' (육아지원 패스포트 사업)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됨. 아타미 시(熱海市)에서는 94개 시설 및 점포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아타미 시에 따르면, 협찬 음식점이나 슈퍼, 숙박 시설 등에서 이 카드를 제시하면 10%의 제품 할인과 음료 1잔 무료 제공, 포인트 두 배 적립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함. 아타미 시는 지역 홍보지 4월호에 전국 통합 서비스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하였고, 육아지원실에서는 카드 미발급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발급을 촉구하는 노력을 함.

본 카드 사업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나 임산부가 카드를 협찬 점포 등에 제시하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지금까지 현 내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일본 정부가 육아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각 도도부현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시작하였다고 함.

2016년 5월 28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528-00000002-izu-122>

### 4. 육아휴직 최대 2년까지, 일본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일본 정부는 최대 1년 반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약 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후생노동장관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연장 기간 등을 결정하였으며 내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정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없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장기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입소 대기 중인 아동과 관련된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였음. 이달 내로 정부 경제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함.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음.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에는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소 대기 아동 문제가 심각해져 부모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처음 반년 간 휴직 전 급여의 67%, 이후 1년 반까지 50%가 지급됨. 작년에는 약 30만 명이 이용, 총 지급액 약 4100억 엔으로 보고됨.

또한 경제 대책으로는 개인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취업자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인하 조정에도 들어갈 예정임.

2016년 7월 15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715-00000094-mai-pol>

## 5. 시즈오카 현, 아버지 육아참여 권장을 위해 출산휴가 아빠 연수회 제공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권장하는 ‘시즈오카 출산휴가 아빠 연수회’가 시즈오카시 스루가구(静岡市駿河区) 그린십에서 열렸음. 「출산휴가 아빠 프로젝트」는 여성의 산후 2개월 내 아버지의 육아휴직 촉진을 목표로 한 제도로, 남성에게는 출산휴가 제도는 없지만 여성처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육아 중인 부부와 기업 임원 등 약 70 명이 참여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지원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위한 직장문화 만드는 법 등을 배움.

시즈오카 현 3곳에서 열리는 이벤트의 마지막 날, 산부인과 의사인 송미현 씨와 아버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NPO 법인 ‘파더링 재팬’의 안도 테즈야(安藤哲也) 씨가 강연을 하였음. 송 씨는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설명하였고, ‘산후 지원이 특히 중요하며, 육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음.

안도 씨는 남편의 가사와 육아 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생 비율이 높거나 아내의 취업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한다는 장점을 소개했음.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쓸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쓸 것이냐’로 긍정적인 질문을 하도록 당부했음.

2016년 10월 27일

출처: <http://www.at-s.com/news/article/local/central/295684.html>  
<http://www.fujisancco.pref.shizuoka.jp/thankyouppapa/outline.html>

## 6. 모리오카 시, ‘육아 응원 플라자’ 개선을 통해 사회 전체가 육아지원에 나서

2016년 모리오카 시가 탁아소 기능의 가진 ‘육아 응원 플라자(가칭)’를 시내 상업용 건물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 플라자는 2015년 3월에 책정된 ‘모리오카시 어린이, 육아 지원 사업 계획’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인 ‘다함께 어린이,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를 근간으로 설립됨.

이곳은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교류 도모와 상담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며, 최초로 부모 세대를 위한 시설임. 부모뿐만 아니라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함으로써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및 사회 전체가 영유아 육아 지원에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의 실현을 목표로 함.

개설 예정 장소는 ‘제 8 오도리 빌딩’의 3층, 약 170 평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위탁 업무 형식으로 운영됨. 2016년 8월부터 공용구역 운영 단체와 민간영역의 운영 사업자를 모집, 공용구역은 ‘인정 NPO 법인 이와테 육아넷’이 운영하며, 민간영역은 ‘엄마들의 광장’, ‘넥스트 캐비닛 이와테’라는 두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함.

공용구역에는 영유아를 임시로 맡기는 탁아소나 실내 놀이터, 수유실, 상담실 등 육아 세대의 신청이 많았던 시설을 마련했음. 부모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정비하고, 부모가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구상 중에 있음.

민간영역에서는 아동보호 기능을 갖춘 작업 공간과 카페 기능을 가진 이벤트 공간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작업 공간은 상장 기업 등의 위탁을 받아 콜센터 업무와 데이터 입력 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키즈 공간도 마련하여 아이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벤트 공간에는 육아 이벤트 등을 기획하였고, 카페 기능을 갖추으로써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용도 예상되고 있음.

넥스트 캐비닛의 이와테의 사장 히지 토오루(臂徹)씨는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록 대기 문제는 해소되고 있다고 하나, 정착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부족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등원할 수밖에 없다고 함. 멀리 떨어진 시설에 아이를 등원시키며 일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통해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함.

2016년 10월 26일

출처: <http://morioka.keizai.biz/headline/2208/>

##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 오사카 시, 소규모 보육소 설치로 대기 아동 문제 해결

오사카 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시장은 지난 12월 22일 구청장 회의에서 시청 본청사와 24개의 전 구청에 소규모 보육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음. 이는 보육시설 대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4월 개설을 목표로 함. 이 시설은 0~2 세 아동을 위한 소규모 보육소로, 정원은 각 12~19명 사이임. 시청과 구청 1, 2층에 빈 공간을 마련하여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이 공간을 대여하게끔 하는 안을 2월 의회에서 제안할 예정임.

오사카 시 보육기획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 기준, 시내 대기 아동 수는 508명으로, 이중 0~2세가 487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함. 요시무라 시장은 회의에 모인 구청장들에게 ‘지나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대기 아동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호소했음.

그 외에도 각 지역 내 미사용 사유지 외 보육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조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보육소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확인하고 있음.

2016년 12월 23일

출처: [www.asahi.com/articles/ASJDQ56JQJQPTIL017.html](http://www.asahi.com/articles/ASJDQ56JQJQPTIL017.html)

##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1. 장애 아동에게 음악 치료를, 보육사 지망생들이 자원봉사

일본의 사가미 여자대학(相模女子大学, 사가미하라시 미나미구 분쿄에 위치)은 다운 증후군이나 자폐증 등의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치료법을 접목시킨 육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짐. 자격증을 보유한 음악 치료사와 함께 자원 봉사자가 참가하는 형태임. 평소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 아동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보육과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배움의 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음악 치료법은 음악을 통해 아동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한 공간에서 음악을 공유함으로써 아동들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향상시킨다고 함.

8년 전, 유아교육학과 교수 가가오 토요시(河尾 豊司)씨는 장애 아동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 자원봉사 그룹을 창설하였으며, 음악치료 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도입해 연간

4회 정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매 회, 약 10명의 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음악 치료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아동들이 그룹활동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함.

본 대학의 키쿠치 (菊池, 4학년)씨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던 아이가 음악을 통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음. 아이들이 알기 쉽게 말을 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점점 악기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고문을 담당하는 오오 타케 노리코 (大竹紀子)교수는 전했음. 또한 기존의 대학 수업에서는 장애 아동들과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며, ‘음악치료는 장애 없는 아이들이나 발달이 우려되는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음.

2016년 5월 31일

출처: [www.kanaloco.jp/article/175959](http://www.kanaloco.jp/article/175959)

## ●● 기타

### 1.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마, 오키나와 현 대입지원 ‘무상학원’ 50명 모집

저소득 가구 고3 학생들의 대학/전문대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오키나와 현이 수업료와 교재비를 전액 무상 지급하는 ‘육아종합지원 모델 사업’의 학생 모집이 시작되었음. 재수 학원 등을 운영하는 히사시 학원이 사업을 위탁받은 지 올해로 3년째. 지난 2년간 80%를 넘는 합격률을 기록, 형편이 어려워 학원 다니기를 포기했던 이전 수강생들로부터 감사 및 사업의 지속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사업대상은 아동부양수당 수급 가정이나 주민세 비과세 가정, 양부모의 집이나 고아원 등에서 생활하는 고3 학생임. 2016년도에는 나하 시(那覇市)와 오키나와 시(沖縄市) 우에치 교실 두 곳에서 총 50명 정도를 수용함.

지난 2년간의 지원 학생 수는 64명. 그 중 43명은 대학에, 9명은 전문대에 합격했음. 합격률은 2014년 80.9%, 2015년 81.3%로, 대학 진학에 성공한 편모 가정의 한 학생은 ‘영상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학원에서 국립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음. 사업이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꿈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정보 고등학교에서 국립 대학으로 진학한 다른 학생은 ‘입시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학업능력이나 개선점 등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음.

2015년에는 현 이외 대학의 지정교 추천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한 경우도 있음. 히사시 학원의 시키나(識名) 사업 실시 책임자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각종 장학금 소개나 본인/보호자 상담을 통해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수강생은 학업성적과 면접 등을 거쳐 결정되며, 21일 개강식 이후 23일부터 강좌가 시작됨.

2016년 5월 11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511-00000017-okinawat-oki>

## 미국

### ❖ 일·가정 양립

#### 1. 채터누가 시, 부모의 복직 지원을 위해 예산 10만 달러 편성

테네시(Tennessee) 주에 위치한 채터누가(Chattanooga) 시는 2016년 유아교육 예산에 10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비영리 단체인 United Way 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로 함.

United Way의 최고 경영자 레슬리는 시의회에 부모 복직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발표하였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United Way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채터누가 시에 창출될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함. 즉, 취학 전 영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시설에 등록하여 부모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16년 12월 20일

출처: <http://www.chattanoogan.com/2016/12/20/338399/City-Includes-100000-In-Budget-For.aspx>

### ❖ 양육지원

#### 1. 미시건 주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무상교육

미시건 주의 저소득층 가정은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첫째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고, 둘째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습준비도 프로그램(Great Start Readiness Program—이하 GSRP)임.

헤드스타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지원함.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질 좋은 교육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영아들과 만 5세 미만의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음.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둔 가정과 임산부는 얼리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헤드스타트 지원 자격은 소득에 따라 주어짐. 빈곤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정은 공적으로 기초생활지원금받으며, 노숙자들은 얼리헤드스타트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위탁 아동이 있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위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

### ■ 학습준비도 프로그램(Great Start Readiness Program—이하 GSRP)

미시건 주의 저소득층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선택할 수 있음. GSRP는 만 4세 미만의 유아를 지원하는 미시건 주정부 프로그램임. GSRP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득이 조금 높아 헤드스타트에 지원하지 못하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음.

헤드스타트와 GSRP 중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연소득 및 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헤드스타트는 교육 및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고 GSRP는 어린이집 교육지원만 해당함. 즉, GSRP의 혜택을 받는 가정들은 헤드스타트와 동일한 건강, 영양,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2016년 2월 29일

출처: [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6/01/spending\\_on\\_state\\_preschool\\_programs\\_rises\\_again\\_in\\_2015-16.html](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6/01/spending_on_state_preschool_programs_rises_again_in_2015-16.html)

## 2. 위기에 처한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서비스

기존의 긴급전화서비스와 차별화된, 양육 정보 및 조언(상담)을 제공하는 무료 전화 상담서비스가 멤피스와 쉘비 카운티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함. 본 서비스는 「Parent Support Warm Line」(\*Warm Line: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 때의 부정적인 경험은 이후 아동의 건강에서부터 전문 능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함. 「Parent Support Warm Line」은 부모와 양육자를 도움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아동이 트라우마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Warm Line 프로그램 관리자이자 숙련된 사회복지사인 산드리안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질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과 아이들이 전방위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책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전함. Warm Line에 걸려온 전화는 산드리안과 숙련된 두 명의 치료사와 상담사의 핸드폰, 집 등 어디로든 연결됨. “가정폭력, 약물남용, 정서적 학대 등은 가족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최근 정보를 얻고자하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

고 산드리안은 전했으며, 모든 전화 상담 서비스는 익명이며 품질 보증의 목적으로만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고 설명함.

2016년 6월 23일

출처: [www.commercialappeal.com/business/medical/Warm-Line-allows-parents-in-Memphis-to-call-for-help-383977811.html](http://www.commercialappeal.com/business/medical/Warm-Line-allows-parents-in-Memphis-to-call-for-help-383977811.html)

### 3. 전문가/지역검찰관 등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아동학대를 감소시킨다

매년 뉴욕에서는 65,000명의 어린이가 학대되거나 방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뉴욕 주는 가정방문이 학대아동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즉 가정방문을 범죄예방 전략으로 제안하였음.

“어떤 지역에서는 간호사, 혹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가정방문을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찾아가 부모들에게 조언하고, 부모교육을 제공한다.”라고 뉴욕 주 어린이범죄 전담 책임자 켄 오코너는 전함. 오코너는 초기 가정 방문이 산전관리를 돕고, 아동의 신체학대를 감소시키며,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이러한 가정방문으로 아동학대는 약 48%정도 줄어들었으며, 이는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대와 방치를 경험한 아동이 19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2배가 높다.” 라고 온타리오 보안관 필립은 전했음. 통계에 따르면 뉴욕 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예상했던 천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음. 가정방문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 1만 7천 달러를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는 아동을 보호하고, 65,000명 아동 미래의 삶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으며, 뉴욕 보안관 협회는 지역 검찰관들과 함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오코너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뉴욕 주로부터 2천 3백만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2016년 7월 19일

출처: <http://wnyt.com/news/child-abuse-crime-sheriffs-zurlo-oconnor/4205331/?cat=10114>

### 4. 캘리포니아 주지사, 기저귀 지원사업 관련 법안을 거부하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예산 초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법안을 철회하였음.

영아가 태어난 후, 첫 해 사용되는 기저귀 값은 월평균 \$72 (한화 약 8만원)이며, 추가로 드는 물티슈 비용은 \$20 (한화 약 2만 3천원)임. 이달 초 국회는 보육시설에 등록된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매달 \$50 (한화 약 5만 7천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투표로 통과시킨 바 있음.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기획자 미셸(Michele Stillwell-Parvensky)은 부모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적하며,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을 경우 영유아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온라인 보도 웹사이트인 Think Progress도 지난 11월 복지혜택이 기저귀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미네소타의 엘리슨(Keith Ellison) 의원과 코네티컷의 델라로(Rosa Delauro) 의원도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엘리슨 의원은 부모들이 기저귀와 음식, 월세 등을 두고 고민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6년 9월 25일

출처: <http://www.ibtimes.com/diaper-subsidy-vetoed-california-gov-brown-2421687>

## 5. 대학생 미혼모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

미국 여성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에 따르면 대학생 신분의 미혼모 480만 명이 보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함. 하지만 주정부의 재정 부족과 긴 대기자 명단 때문에 이중 15%만 보육료 지원금을 받음.

뉴욕대학교는 정규 대학원생들에게 학기 당 \$20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종일제 보육 프로그램을 한 주도 등록할 수 없음. 뉴욕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주 최소 17.5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2013년 뉴욕 북부에 위치한 몬로 대학의 연구 결과, 교내 보육 시설을 이용한 미혼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졸업할 확률이 거의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순히 재정적인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이 직면하는 실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016년 12월 20일

출처: <http://nymag.com/thecut/2016/12/why-are-universities-so-unfriendly-to-single-moms.html>

##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 피드백 수렴 위한 웹사이트를 개시

Preschool Promise란, 신시내티 주에서 유치원 입학 전 최대 2년까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어린이집 교육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신시내티의 부모들이 최근 생겨난 Preschool Promise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용이해졌음.

신시내티에서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2년간 어린이집 교육을 보장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Preschool Promise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Ask Preschool Promise라 불리는 웹사이트 (<http://askpreschoolpromise.org>)를 개설함. 이것은 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게끔 도움.

지난 2년간 이 웹사이트는 지역사회포럼, 일대일 면담, 부모들과의 토론, 어린이집 운영자들,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같은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연결하였음.

Preschool Promise 운영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마이클 단틀리는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얻으려는 것은 모두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Preschool Promise는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세대의 기회입니다. 운영 위원회가 모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하는 동안, 우리는 가능한 많은 피드백을 얻기를 원합니다. Preschool Promise는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한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Preschool Promise는 신시내티의 예비 입학자들에게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원하는 5-10년 계획 자금 모델을 통해 모든 영유아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음. 이는 소득 기준 차등제에 따라서 교육비를 공제하고, 또한 어린이집에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Preschool Promise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부모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기를 장려하고 있음. 다음 달력을 통해 행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음 (<http://askpreschoolpromise.org/events/>). 시청 회의와 다른 모든 행사들은 무료이며 대중에게 개방됨.

2016년 1월 13일

출처: <http://www.wcpo.com/news/education/preschool-promise-launches-website-as-part-of-feedback-gathering-initiative>

참고: \*신시내티 주 Preschool Promise 홈페이지  
<http://www.cincy-promise.org>

## 2. 버몬트 주, 미국 최초 모든 3-4세 유아에게 주당 10시간 무료 preschool 프로그램 제공

미국 최초로 버몬트 주는 3-4세 유아들에게 매주 10시간 무료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버몬트 주의 무료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선택사항임. 즉, 혜택을 받고자 하면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지만, 등록이 의무인 것은 아님. 버몬트 주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3-4세 보육비가 주당 \$192인 것을 감안할 때, 10시간 무료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중산층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본 무료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을 당시, 지역 학군에서 반응이 매우 좋았음. 2015년 기준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1/4이상이 4세 국공립 프로그램(Pre K)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이번 달 부터 규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함.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3세 유아를 대상으로 15시간 무료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미국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의미가 있음.

2016년 7월 15일

출처: [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6/07/vermont\\_now\\_offers\\_10\\_hours\\_a\\_week\\_of\\_free\\_preschool\\_for\\_everyone.html?cmp=SOC-SHR-twitter](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6/07/vermont_now_offers_10_hours_a_week_of_free_preschool_for_everyone.html?cmp=SOC-SHR-twitter)

## 3.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와이 보육비용 지원

국립여성법률상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의 저소득층 가정은 2001년도 보다 훨씬 적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는 미국 내에서도 보육료 가정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와이 어린이 행동 네트워크(Hawaii Children's Action Network)의 전무 데보라 자이스먼(Deborah Zysman)은 “하와이에 있는 가정들은 보육료를 지원받아도 1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들에게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라고 말함.

과거 2001년 하와이에 거주하는 3인 가정은 만 4세 보육비를 한 달에 \$38 (한화 약 4만4천 원 (환율 1달러=1,169원 기준))지불했음. 현재,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473 (한화 약 55만3천원)을 내거나 보육료의 19%를 지불해야함. 또한 현재, 2001년 보다 더 적은 수의 가정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

미국의 여러 연구는 전국적으로 높이 책정되는 보육비용을 언급하며, 각 주에서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함. 연방 빈곤 기준 150%에 해당하는 3인 가정의 연소득은 \$30,240임. 3인 기준 연소득이 \$20,160인 가정은 보육비 지원을 받고도 매달 \$270을 지불해야 하며, 이것은 소득의 16%에 달함.

하와이에 거주했던 한 여성은 2015년에 보육비용 및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주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함. “우리는 갚아야 할 융자금, 남편의 자동차 할부금, 저의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신용카드 빚도 많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임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한 달에 세금을 제외하고 \$2,000을 벌었는데, 그 중 \$1,800를 보육료로 지출했고, 기술자인 그녀의 남편이 매일 야근하여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음. 이 가족은 현재 오레곤 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데, 그녀는 전업 주부로 지내고 있으며 5세 딸의 보육료로 한 달에 \$300이 조금 넘게 든다고 함.

앞서 언급했던 보고서는 기관 보육시설을 분석한 것인데, 이는 주로 가정 보육시설보다 비쌌음.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가족들에게 맡긴다고 함. 이것은 하와이의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의 질에 관해 의문점을 남김.

2016년 10월 29일

출처: <http://www.hawaiinewsnow.com/story/33510842/hawaii-child-care-subsidies-not-keeping-pace-with-rising-costs-report-says>

##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 인디애나 주, 보육시설 검색 웹사이트 구축

인디애나 주 가족복지부(Family and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FSSA)는 부모가 적합한 보육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음. 부모들은 보육시설 비용, 장소, 등록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걱정이 큰데,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들이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 사이트는 부모의 집과 직장의 위치를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검색하는 “On-My-Route”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목록도 제공됨.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고를 때 정보가 부족하여 지인들의 추천에 의존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임. 부모들이

원하면 검색 범위를 좁혀 보육시설 종류, 운영시간, 인가 여부, 시행규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016년 9월 19일

출처: <http://www.theindychannel.com/news/call-6-investigators/indiana-launches-new-tool-to-find-child-care-providers>

참고: \* 인디애나 주 내 보육시설 검색 웹사이트  
<http://www.in.gov/fssa/childcarefinder/>

## 2. 콜로라도 주 가정 보육시설의 감소

콜로라도 주 라리머(Larimer) 자치구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은 주당 \$50~\$100로 기관 어린이집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적음. 그러나 콜로라도 주에서 점차 규제를 늘리고 있어 장기간 운영하던 가정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로, 라리머 자치구의 가정 어린이집은 2003년에 비해 40%나 감소하였음.

그에 반해 기관 어린이집은 2003년 이후 18.7% 증가하였음 (2003년 가정 어린이집 312개, 기관 어린이집 150개 / 2016년 가정 어린이집 188개, 기관 어린이집 178개). 기관 어린이집의 수가 증가했지만 가정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던 영유아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며, 가정 어린이집의 감소로 인해 기관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200명에 가깝다고 한 시설장은 말했음.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콜로라도 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 신원 조사를 받은 뒤 지문을 등록해야 함. 또한, 의학, 건강, 안전 교육과 더불어 매년 15시간의 연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가 과정이 고될 수 있다고 한 시설장은 주장함. 물론 이러한 규제가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콜로라도의 가정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가정 어린이집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임.

2016년 8월 8일

출처: <http://www.coloradoan.com/story/news/2016/08/08/home-based-child-care-declining-larimer-county/87898076/>

## 3. 영유아와 부모 모두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국 의류회사인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지난 30년 간 직장 내 보육 시설을 운영해왔음. 이 회사는 네바다 주에서 총 3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33명의 교직

원이 80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음.

회사 CEO 로즈 마카리오(Rose Marcario)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부모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백만 달러가 든다고 말함. 하지만 그녀는 이 금액 중 91%(세금우대를 통한 50%, 직원보유로 30%, 직원몰입도로 11%)가 회수된다고 보며, 측정할 수 없는 여러 편익들을 따졌을 때 투자 대비 수익률이 125%에 이른다고 믿고 있음.

직장 내 보육시설의 놀라운 효과는 출산 이후 여성의 업무 복귀율임. 미국 내 평균이 75%인 것에 비해, 파타고니아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100%가 출산 후 회사에 복귀하였음. 이러한 파타고니아의 성공은 직장 내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미국 내 직장 어린이집은 흔하지 않음. 블룸버그(Bloomberg) 조사에 따르면, 1996년 미국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율은 9%였으나 최근 3%로 줄어듦. 기업들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비용, 잠재적인 법적 문제, 주 법규를 따르는 것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곤 함.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맞벌이 부모에게 출산휴가 및 세금공제 혜택을 줌. 이러한 혜택들이 맞벌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님.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파타고니아의 예시가 민간 및 공공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분명함.

2016년 10월 19일

출처: [http://www.slate.com/blogs/xx\\_factor/2016/10/19/patagonia\\_s\\_on\\_site\\_child\\_care\\_program\\_is\\_basically\\_edden\\_for\\_children\\_and.html](http://www.slate.com/blogs/xx_factor/2016/10/19/patagonia_s_on_site_child_care_program_is_basically_edden_for_children_and.html)

## ❧ 유아교육·보육 교사

### 1. 보육교사 월급이 유치원교사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의 임금 격차가 큼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의 평균 연봉은 \$28,570으로 유치원교사의 연봉인 \$51,640의 55%에 그친다고 함. 임금이 높은 수준인 뉴저지 주 역시, 보육교사의 연봉이 \$35,160인데 반해 유치원교사는 \$61,350으로 비슷한 격차를 보임.

미 교육부 장관 존 킹은 “이러한 임금격차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그들의 월급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점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전했으며, 임금의 격차가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음.

뉴저지에 위치한 클립톤 시는 주정부 지원금 1,740만 달러를 다른 18개 지역과 4년 동안 공유하며 1,200개 이상의 만 4세 학급을 지원할 예정. 뉴저지주는 약 6억 달러를 사용하여, 45,000명 이상의 유아들에게 종일제 공립 어린이집을 제공한다고 함. 교육 관계자들은 이러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추후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함.

클립톤 시의 교육감은 어린 연령대일수록 교사들에게 적정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로써 전문적인 숙련된 인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음. 클립톤 시는 만 4세 학급이 500개 정도 있으나, 많은 유아들 중의 반 정도 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교육 관계자들은 의회가 더 많은 투자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함.

2016년 6월 15일

출처: [www.njtvonline.org/news/video/preschool-teachers-paid-much-less-kindergarten-counterparts/](http://www.njtvonline.org/news/video/preschool-teachers-paid-much-less-kindergarten-counterparts/)

##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1. 영유아 보육·교육의 이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

#### ■ 4K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평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4K 유아원(Pre-kindergarten: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교육 프로그램)에 다닌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높은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4K 프로그램의 질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주된 요소로 나타남.

이 연구는 아동발달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1995년부터 2010년부터 주 정부 지원 보육 프로그램에 다닌 영유아 백만 명을 5학년 때까지 추적한 종단연구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은 5년 동안 지속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을 인종과 가정소득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옴.

그동안 지역 사회가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왔음. 그 결과 플로리다 주의 에스캄비아(Escambia) 자치구에서는 Early Learning Coalition 단체를 통해 Grow With Me와 Stars Over Escambia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였음. Grow With Me는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부모와 관리담당자들로 하여금 좋은 기관을

판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에스컴비아는 플로리다 주에서 12번째로 지역자치구 내에서 평가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곳임. 그들이 정한 세 가지 주요 요소는 1)매년 주마다 10시간 이상의 교사 연수를 시행할 것, 2)아동의 발달 및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사용할 것, 3)좋은 교육과정을 수립할 것

2016년 말까지 Early Learning Coalition의 직원이 165개의 기관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길 예정임. 간단한 보고서로 각 기관을 평가할 수 있으며,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함. Early Learning Coalition은 처음으로 평가에 참여한 기관에게 \$500을 지원할 예정이고, 2년 이상 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1,000을 지원할 예정임.

2016년 11월 26일

출처: <http://www.pnj.com/story/news/education/2016/11/25/quality-key-making-benefits-pre-k-last/94214836/>

## ❖ 아동발달/부모됨

### 1. 오늘날 유치원: 놀이시간은 짧아지고 학습량은 늘어나다

버지니아대학 연구원들은 1998년에 재직한 유치원 선생님들의 관점과 경험을 2010년의 선생님들과 비교하였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기대치 및 수업 구성에 큰 차이가 있었음. 일반적으로 2010년의 유치원 선생님들은 1998년의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알기를 기대하였으며,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을 읽기와 수학 수업을 하는 데에 보냈음. 그리고 직접적인 학습과 관련되지 않는 음악과 미술 수업에 적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결과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

#### ■ 1998년 vs. 2010년

교사 신념: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읽는 방법을 배워야함: 31% vs. 80%

부모는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오기 전에 알파벳을 알도록 해야 함: 29% vs. 62%

교육과정 중점:

적어도 매 주 음악 및 창의적 대근육 활동이 있는 유치원: 58% vs. 43%

적어도 매 주 미술 수업이 있는 유치원: 98% vs. 87%

역할극 활동을 한적이 없다고 보고한 선생님 비율: 18% vs. 50%

교실 환경구성:

역할놀이 공간이 있는 교실 비율: 87% vs. 58%  
물 혹은 모래놀이 탁자가 있는 교실 비율: 49% vs. 24%  
미술놀이 공간이 있는 교실 비율: 92% vs. 71%

교수 접근방법:

아이들이 매일 1시간 이상 자유놀이 시간을 가짐: 54% vs. 40%  
매일 3시간 이상 교사가 주도하는 전체 수업을 진행함: 28% vs. 32%  
아이들이 매일 수학연습문제지를 사용함: 20% vs. 35%

2016년 2월 9일

출처: <http://www.edweek.org/ew/section/multimedia/kindergarten-less-play-more-academics.html>

## 2. 동생이 손위형제자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

최근 소아과 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동생이 있는 사람들은 동생이 없는 사람들보다 건강한 체질량지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 현상은 특별히 2-4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아동들이 1학년일 때에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4-36개월이나 36-54개월에 동생이 태어난 아동들은 동생이 없는 아동들보다 건강한 체질량 지수를 보인다고 했음. 또한 동생이 없는 아동들은 36-54개월에 동생이 태어난 아동들보다 1학년 입학 전에 비만이 될 확률이 거의 3배가량 높았음.

이 연구는 아동에게 동생이 있으면 과체중일 확률이 낮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어떻게 형제의 출생이 영유아기의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Dr. Julie Lumeng은 말했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어린이들에게 동생이 있으면 놀이시간이 늘어난다는 것과, 아마도 부모들이 동생의 출생 이후 식사지도 방법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2016년 3월 14일

출처: <http://health.usnews.com/wellness/articles/2016-03-14/younger-siblings-good-for-older-kids-health>

## 3. 공립 유아학교에 의한 히스패닉, 흑인,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의 수학 및 언어 성취도 격차 감소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발간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질 높은 공립 유아학교(Pre-K)가 히스패닉, 흑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그들의 수학 및 언어 성취

도 격차를 확연히 감소시킴. 이 보고서는 공립 유아학교(Pre-K)가 학업성취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히스패닉과 백인, 흑인과 백인,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가정 어린이를 각각 비교하였음. 히스패닉, 흑인, 저소득가정 아동의 질 높은 공립 유아학교(Pre-K)에 대한 접근성은 백인과 고소득층가정 아동보다 낮았음.

현재 히스패닉과 백인 아동들의 수학 및 언어능력의 차이는 약 11개월에서 1년에 가까움. 보고서는 공립 유아학교(Pre-K)가 이러한 격차를 2.4개월로 줄이며, 히스패닉과 백인 아동들의 언어능력 차이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았음. 흑인 아동들은 또래 백인 아동들보다 수학능력은 9개월, 언어능력은 6.7개월 뒤쳐져있음. 보고서 분석결과는 질 높은 공립 유아학교(Pre-K)가 수학능력 차이를 45%(4개월 학습량과 동일)로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의 차이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함.

2016년 4월 5일

출처: <https://www.americanprogress.org/press/release/2016/04/05/133491/release-new-analysis-universal-pre-k-could-significantly-narrow-math-and-reading-achievement-gaps-for-hispanic-african-american-and-low-income-children/>

#### 4. 흔들린 아기 증후군 (Shaken Baby Syndrome) 예방

매년 수천 명의 영아의 죽음과 심각한 부상이 부모와 양육자에 의해 발생함. 신생아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새로운 추억의 시작과 동시에 도전이기도 함. 영아들은 아플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울. 제임스 브라운 박사는 처음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우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매우 지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함.

세인트 조셉 병원 건강센터는 처음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이가 울 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안정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침. 부모교육의 목표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걱정이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임. 또한 부모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 (Shaken Baby Syndrome)에 관련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도 모든 부모가 자녀 출생 전후로 이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교육을 마치면 부모는 병원과 그들 사이의 일종의 동의서 사본을 받게 됨. 이 서류는 병원 측이 부모가 흔들린 아기 증후군 (Shaken Baby Syndrome) 문제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였으며,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임.

브라운 박사는 자녀의 지속적인 울음에 지쳐있다면 먼저 휴식을 가지고, 아이를 안전한 침대에 눕힌 뒤 규칙적으로 살펴라고 말함. 또한 부모는 옆방으로 가서 숨을 여러 번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시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배우자나 다른 이들이 가까이서 자녀를 돌보는 그들을

돕도록 해야 함.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매우 치명적임. 대부분의 생존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마비를 겪고 평생 을 학습 및 언어장애로 고통을 받음. 영아 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입법자와 병원에 의한 예방책이 매우 중요함.

2016년 5월 19일

출처: <http://www.localsyr.com/news/local-news/preventing-shaken-baby-syndrome-starts-before-parents-take-their-babies-home>

## 5. 초기 모국어 교육이 영어 구사 능력을 돕는다

미국에 살고 있는 스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페인어로 단어와 숫자를 배우는 것은 아동이 영어를 빨리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부모가 영어를 못 하더라도 모국어 교육이 아동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학교에서 영어를 습득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집에서 모국어 사용을 거리길 필요가 없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연구자 미주리 대학의 프란시스코 파레모가 전함. “모국어 사용능력은 영어 학습을 돕는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습득한 모국어를 바꾸려하기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1년 동안 관찰하였으며, 모국어 능력이 영어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밝힘. 어린이집에서의 언어교육은 취학 후, 다른 교과 학습을 수행해나가는 것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영어만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등록하는데, 유치원 입학 전, 어린이집을 다니는 기간이 아이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라고 파레모는 전했다.

2016년 8월 15일

출처: <http://wnpr.org/post/study-suggests-early-learning-native-language-can-help-english-skills#stream/0>

## ❖ 기타

### 1. 네바다 주에서 선거기간 동안 다뤄지는 다섯 가지 주요 논쟁

**빈곤문제:** 네바다에 거주하는 영유아 중 약 4분의 1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 가정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는 부유한 가정의 영유아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질병으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일이 잦으며, 학업성취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영유아들로 하여금 빈곤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정책들은 네바다 주에 거주하는 빈곤층 영유아들의 발달을 돕고, 부유한 영유아들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보육시설:** 네바다 주에는 176,000명 이상 영유아(만 5세 이하)가 있는데, 이 중 39%는 한부모 가정에 속함. 2015년 기준 보육시설 비용은 연평균 \$8,792(한화 약 996만원(환율 1달러=1,133.40원 기준) 인 바, 이는 네바다 주의 주립대학교 학비보다 \$2,000 (한화 약 227만원) 이나 많은 것임. 즉, 높은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 육아휴직과, 적정수준의 임금, 보육지원비를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교육:** 영유아 뇌의 80%는 만 3세 이전에 발달함. 영유아들은 이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고안하여 영유아들이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함.

**의료서비스:** 의료비 적정가 보장법안(Affordable Care Act: ACA)의 시행으로, 의료 서비스에 미가입 된 영유아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음. 네바다 주의 약 30%의 영유아들이 공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많은 의료시설에서 공공보험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교통 시설의 부족과 직장에서 휴가를 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안전:** 인종, 국적,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함. 아동학대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주로 일어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할 것임.

2016년 8월 30일

출처: <https://www.unlv.edu/news/release/5-childrens-issues-matter-election-cycle>

## 캐나다

### ❖ 일·가정 양립

#### 1.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빈부격차 나타나

최근 연구에서 어머니의 41%가 육아휴직 혜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부유층”과 “육아휴직 빈곤층”의 상대적 격차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음.

산업관계학회지(the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에 게재된 연방 육아휴직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 퀘벡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41%의 어머니들이 육아휴직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 가입기간(insurable hours)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목할 만한 것은 육아휴직에 있어서의 빈부격차임.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중에선 63%가 요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3만 달러 이상의 여성들 중에선 35%만이 요건 미달로 나타났음.

연구진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려는 집권 자유당 정부의 육아휴직 프로그램 개선안이 이러한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음. 2015년 치러진 연방선거에서 당시 자유당은 첫 자녀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으로는 총 12개월 한도 안에서 원하는 만큼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음 (기존의 육아휴직 프로그램은 출산 후 15주, 그리고 모성 휴가와 부성 휴가를 합쳐 추가로 총35주를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자유당 공약은 퀘벡 주에서 시행하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유권자의 호응을 얻어 자유당 승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육아휴직 프로그램 수혜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차이가 있음. 퀘벡 주의 경우 월 소득이 2천 달러 이상이면 육아휴직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연방 프로그램은 육아휴직 전 연간 6백 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건으로 함.

퀘벡 주 프로그램은 엄격한 근무시간 요건 대신 완화된 소득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이후 퀘벡 주 저소득층 여성들의 육아휴직 혜택 요건 충족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육아휴직 프로그램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됨. 그러나 연방 프로그램이 6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육아휴직 수혜 대상 여성의 수를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도 존재함. 실제로 최소 근무시간 300시간을 요구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무시간 요건 미충족 여성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져왔음. 저소득층 여성들 중 상당수가 파트 타임으로 일하거나 혹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요건을 충

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이에 대해 연구진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관련 규정을 완화하지 않으면 많은 수의 어머니들,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거의 절반에 이르는 아이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논문의 주저자인 브록 대학(Brock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post-doctoral fellow)인 린지 맥케이(Lindsey McKay)는 정부가 중산층 부모들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을 통해 육아휴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사람들이다”라고 맥케이는 말함. 4년 전 학생 신분으로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그녀는, 퀘벡 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방 육아휴직 기준요건을 변경해야만 자녀 출산 첫 해에 함께 곁에서 돌봐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의 실질적인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음. 향후 캐나다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됨.

2016년 5월 21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parental-leave-study-1.3594439>

##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 퀘벡 주 보육 예산 삭감 계획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반발

퀘벡 주정부가 향후 보육관련 예산을 1억 2천만 달러(\$120 million) 이상 삭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음.

2014년 4월 선거에서 승리한 자유당 집권 퀘벡 주정부는 2015년 초 7400만 달러 규모의 어린이집 예산 삭감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에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공공보조금 등 보육관련 차기 예산안 중 최소 1억2천만 달러 축소를 놓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했음.

11월 말에 진행된 협의에서 공공어린이집 및 공공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크게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AQCE(The Association Québécoise des Centres de la Petite Enfance)[1]의 전망에 따르면 주정부의 계획은 1억2천만 달러보다 훨씬 큰 3억2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며, 이는 퀘벡주 공공어린이집 및 공공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0~25%를 실업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AQPEC는 우려를 표명했음.

AQCPE는 주정부의 새로운 보육예산지원금 계산방식이 아동 한 명당 소요되는 비용을 각 어린이집별로 먼저 산출한 후, 전체 어린이집 중 비용이 낮은 하위 3분의 1 어린이집의 아동 한 명당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이것을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으로 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왜 하위 3분의 1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낮은 비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비용은 그것보다 큰 것인지에 대한 맥락과 여건의 차이 등을 주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처사”라고 비판했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역시 주정부가 지나치게 예산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아이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음.[2]

이러한 어린이집 연합회 및 학부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퀘벡 주 정부는 보육예산 삭감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월 AQCPE와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들은 반대 압력수단으로 어린이집 휴원 계획을 표명하고,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있음.

루이 세네칼(Louis Senéca) AQCPE 회장은 라디오 캐나다(Radio-Canada)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휴원은 2월말부터 3월까지 지역별로 시작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 전체 차원의 동맹휴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음. 관계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주정부의 보육예산 삭감 [3]은 어린이집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위해 어린이집들 간의 합병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통학거리의 증가, 인력의 부족, 보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하락 등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4]

한편, 어린이집 교사와 관계자, 학부모, 아동 등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월 7일과 18일 등 주정부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5]

현재 “하루 7.3달러 보육비 정책”으로 대표되는 공공보육지원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퀘벡 주에서 일어나는 이번 사태는 캐나다 달러(루니화)의 약세 등 경제 악화 상황에서 복지 및 보육 정책의 향후 행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주 정부의 보육예산 삭감안에 AQCPE는 어린이집 동맹휴원안으로 맞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됨.

[1] 영어로 해석하면 The Association representing Non-profit, Publicly Funded Daycares (비영리 어린이집 및 공공보조 어린이집 연합회)

[2] 참조 : CBC News 2015년 11월 26일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subsidized-daycares-cuts-1.3337937>

[3] 필립 쿠일라드(Philippe Couillard) 총리가 이끄는 퀘벡 주 자유당 정부는 2015년 초에도 2015-2016 예산 중 어린이집 보조금 예산을 총 7400만 달러(공공어린이집 운영비 3800만 달러, 사립어린이집

보조금 2200만 달러) 삭감을 발표한 바 있고, “하루 7.3달러 보육비 정책”에 대해 가정의 보육비 부담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온 바 있음.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government-to-cut-74m-in-daycare-costs-1.3121057>

[4] 참조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daycare-strikes-1.3400055>

[5] 참조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montreal-daycare-workers-stage-early-morning-protest-1.3393045>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daycares-protest-cuts-spending-1.3408380>

출처

\*퀘벡 주정부의 보육예산 축소 움직임 보도

- 2015년 1월 :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government-to-cut-74m-in-daycare-costs-1.3121057>

- 2015년 11월 :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daycare-strikes-1.3400055>

\* 퀘벡 주 AQCE 및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의 반대 입장, 행동 보도

- 동맹휴원 관련: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daycare-strikes-1.3400055>

- 가두시위 관련: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montreal-daycare-workers-stage-early-morning-protest-1.3393045> /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daycares-protest-cuts-spending-1.3408380>

## 2. CBC News, Quebec 주정부 보도자료 등 관련자료 종합

퀘벡 주 정부의 보육예산 삭감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되었음. 2015년부터 보육관련 예산 삭감을 놓고 대립하던 퀘벡 주 정부와 어린이집 관계 단체는 어린이집 협상대표로 나선 AQCE(The Association Québécoise des Centres de la Petite Enfance) 측이 2월 22일 월요일 정부 측과의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년 보육 예산을 줄여가면서 2018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연간 총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보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AQCE는 주 정부의 예산삭감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총 6100만 달러 규모의 과도기 예산(transitional funding) 지원을 받기로 했음. 이 중 4100만 달러는 비영리 어린이집에, 2000만 달러는 공공보조를 받는 사립어린이집에 지원되어 예산 삭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임.

정부 측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21명 규모의 소규모 CPE들은 2.6%, 60명 규모의 중대규모 CPE들은 4.5%,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65명 규모의 사립어린이집은 3.9% 보조금이 삭감될 예정임. 한편,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 역시 증가하게 되었는데, “하루 7.3달러 보육료” 정책은 최소 7.55달러부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가구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서는 자녀 1명의 하루 보육료가 7.55달러이고, 연간 가구소득이 7만5천 달러까지는 그 부담액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7만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는 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해 연간

가구소득이 15만5천 달러 이상인 가구에서는 20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하루 7.3달러 보육료 정책을 고수해 오던 퀘벡 주가 부모 부담을 늘리면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공공보육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2016년 2월 23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aqcpe-reaches-deal-with-quebec-government-1.3459666>

### 3. 온타리오 주 보육 관련 산업규제 개정안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 반발

온타리오 주정부가 새로운 산업규제정책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보육과 관련된 내용에 아동보육 관련 종사자들과 학부모, 주의회 의원 등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

먼저 새롭게 변화된 아동 월령 범위에 따르면, 학령전기 아동(preschooler)의 범위가 가장 커지고 영아(infant)와 유아(toddler)의 범위는 축소되었음. 한편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도 변경될 예정인데, 학령전기 아동 그룹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영아 월령 그룹의 경우 현재 ‘영아 10명당 교사 3명(교사 1명당 3.3명)’에서 ‘교사 1명당 영아 3명’으로, 유아 월령 그룹의 경우 ‘교사 1명당 유아 5명’에서 ‘교사 1명당 유아 4명’으로 바뀌게 됨.

온타리오 주 교육부 장관인 리즈 샌털스(Liz Sandals)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월령 구분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난 수십 년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변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비용증가 및 부담 그리고 12개월~18개월 아동에 대한 안전 문제임. 이러한 반대와 비판 여론 속에서 온타리오 주정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3월 17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windsor/windsor-childcare-protest-1.3495433>

### 4. 온타리오주, 보육 관련 산업규제 개정안 철회 입장 밝혀

온타리오 주정부가 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학부모들이 우려한 새로운 보육 관련 산업규제정책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 장관인 리즈 샌털스(Liz Sandals)는 4월 13일 수요일 주의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개정안 철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샌털스 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으며, 이번 공고된 제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위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산업규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주가 밝혔던 새로운 산업규제정책안은 아동 구분에 대한 월령 범위, 교사 1인당 아동 수 등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었음. 이에 따르면 학령전기 아동(preschooler)의 범위가 가장 커지고 영아(infant)와 유아(toddler)의 범위는 축소되고,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도 영아와 유아 그룹에서 기존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예정이었음.

이에 대해 온타리오 주의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종사자, 학부모 등은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자격요건, 교사채용 요건 등의 충족으로 발생할 보육비 부담 증가, 그리고 월령 범위 조정에 따라 특히 어린 영아가 유아 그룹에 속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해 왔음. 온타리오 주의 중심 도시인 토론토시가 발간한 보고서 역시 새로운 개정안이 보육비 부담을 높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최우선 목표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날 샌털스 장관의 개정안 철회 입장 발표 직후 토론토 시의회 의원인 자넷 데이비스(Janet Davis)는 주정부의 결정은 ‘학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승리(a victory for parents and children)’라고 논평했음. 그녀는 C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가 학부모들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틀림없음. 사실 공고된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어린이집의 수용 인원은 감소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음. 그리고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더라면 토론토시에서만 2,00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떠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산업규제 개정안, 그 중에서도 보육 관련 개정사항 철회입장 발표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음. 샌털스 장관은 새로운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더욱이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집권한 현 자유당 정부 출범 이후 퀘벡주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보육예산 삭감안을 발표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P.E.I.) 주정부 역시 보육지원예산 축소를 발표했다는데, 이들 모두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캐나다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온타리오 주가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4월 13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daycare-changes-1.3533610>

## 5. 앨버타 주 경제위기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보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이슈

### ■ 신민당(NPD) 정부의 퀘벡식 공공보육모델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보육이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높아

유가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맞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산유주(産油州) 앨버타에서는 경기위축에 따른 가구소득 감소에 이어 보육비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앨버타 주는 샌드오일 산업이 중심인데, 샌드오일은 모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비용이 일반석유에 비해 높은 편이라 국제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성을 갖지만,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함. 이 때문에 앨버타 주는 최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고, 이제는 이것이 보육비용 부담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됨.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의 “가파르게 상승하는 2015년 캐나다 도시에서의 보육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에드먼튼 지역 종일반 운영 자격을 가진 어린 이집의 월 보육료 중간값(median cost)은 영아(infants)의 경우 900달러, 유아(toddlers)의 경우 790달러, 학령전기아동(preschoolers)의 경우 8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앨버타의 수도인 캘거리시 부모들은 이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각각 1075달러, 960달러, 910달러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아이를 키우거나 정부로부터의 공공 육아보조금 혜택 증대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짐.

앨버타 주 신민당(NDP) 정부와 연방 자유당 정부는 2015년 선거에서 공히 가정친화적인 정책플랫폼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자유당은 “실현가능하고, 질 높고, 유연하며, 포괄적인 보육” 슬로건 하에 캐나다아동수당(CCB)를 비롯한 정책을 내놓았고, 앨버타 주 신민당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하루 25달러 보육비” 모델을 제시한 바 있음. 7월 20일부터 연방정부에서 과거의 UCCB보다 증액된 CCB 제도가 시행되고, 앨버타 주 차원에서도 노틀리(Notley) 행정부가 공공보육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1000만 달러를 배정하기 시작하는 등 연방과 주 차원의 보육지원 정책이 시동될 태세를 갖추.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정책만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충분히 경감될 수 없다고 앨버타보육연합회(Alberta Child Care Association)의 니키 듀블렌코(Nicki Dublenko)는 전함. “무엇보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 보육이 결코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음.

2016년 7월 13일

출처: <http://globalnews.ca/news/2820001/child-care-becoming-privilege-only-upper-income-canadians-can-afford-advocate/>

## 6. 자유당 정부의 총선 공약, 새로운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지급 시작

### ■ 종전 제도와 비교해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비과세 수당 혜택 늘어날 전망

7월 20일부터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대부분의 캐나다 가정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2015년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새로운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이하 CCB)'이 시행되는 것임. CCB는 최근 수십 년 내에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사회복지정책 중 대표적인 하나임. 이 정책은 빈곤선(poverty line) 위에 위치한 수만명의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트뤼도 총리는 CBC의 로즈마리 바튼(Rosemary Barton)과의 인터뷰에서 “CCB는 과거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캐나다 가정을 돕는 선도적이고 관대한 비과세 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CCB에 향후 5년간 총 223억 달러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됨.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90% 이상에게 이전 제도보다 더 많은 수당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함.

이에 대해 “보다 부유한 가정에 수당을 적게 줌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전함. 한편, 보수당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 '캐나다 아동 세금 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CCTB)'과 '보편적 보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이 지급되었음.

CCTB는 소득과 연계되었지만 UCCB는 명목상으로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급됨. 즉, 6세 미만 어린이 한 명당 160달러, 그리고 6세~17세 어린이 한 명당 60달러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었음. 그러나 이 수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하는 과세수당이였음.

새로운 CCB는 기존의 CCTB와 UCCB를 결합해 가구소득과 연계되는 단일 수당이며, 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tax-free) 수당임. CCB 제도 하에서 각 가정에서는 6세 미만 자녀 1명당 연간 6,400달러(월 533달러), 6~17세 자녀 한 명당 연간 5,400달러(월 450달러)를 받게 됨. 그리고 연간 가구소득이 3만달러 미만인 가정에서는 위 수당을 최대치로 받게 되는 반면, 연간 가구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서는 수당을 받지 못함.

CCB는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 총재 인 스테phen 폴로즈(Stephen Poloz)는 “이 수당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 가정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며 “각 가정에서 수당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2차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였음.

자유당 정부는 CCB 프로그램이 30만명의 아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가족, 아동, 사회발전부 장관(federal minister of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Development)’인 장-이브스 듀클로(Jean-Yves Duclos)는 “CCB를 통해 캐나다 아동의 빈곤율은 11.2%에서 6.7%로 떨어질 것”이라 하였으며 “빈곤 아동의 40% 이상이 CCB를 통해 구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낮은 아동빈곤율이 달성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CCB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을 다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임.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자산전략팀의 제이미 골롬벡(Jamie Golombek)은 “이전 보수당 정부는 가정보조 정책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새로운 자유당 트뤼도 정부는 부유층은 사회적 부담을 그만큼 져야 하고 정부로부터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철학적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다.” 라고 전함.

보수당 정부의 UCCB 정책을 지지해 온 캐나다 납세자 연맹(The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새로운 CCB가 소득과 결부된 수당 지급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CCB 시행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트뤼도 정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과거 UCCB에 들어간 재정을 다시 재조정(allocate)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6년 7월 20일

출처: <http://www.cbc.ca/news/business/canada-child-benefit-social-safety-net-baby-bonus-childcare-justin-trudeau-social-assistance-1.3685290>

## 7. 온타리오주, 보육시설 대기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비용 금지 계획 발표

### ■ 9월부터 학부모들은 대기자 명단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어져

온타리오 주정부는 관내의 보육시설에 대해 자녀를 대기자명단에 올리면서 학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대기자명단 비용(wait-list fees)’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8월 2일 발표함. 온타리오주 교육부장관인 밋찌 헌터(Mitzie Hunter)는 9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의 학부모들이 내는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에 이르는 대기자명단 비용에 대한 금지 규제안을 발표함. 발표된 규제안

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대기자명단 비용을 받는 것이 불법이 되며, 어린이집은 내년 1월까지 대기자명단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기자명단 정강’을 수립함.

토론토시의 경우 이용대상 아동의 20%만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토론토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이러한 어린이집 대기자명단 비용에 관한 청원을 온타리오 주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신민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 바 있음. 이에 지난 5월 캐틀린 윈(Kathleen Wynne) 수상과 자유당 정부는 인가받은 어린이집(센터 및 가정보육시설 모두 포함)에 대해 대기자명단 비용을 금지하겠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신민당은 “자유당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다 접근가능한 보육시설 공간을 창출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논하였음.

올 들어 영유아 기준 연령 및 아동 대 교사 비율 변경 등의 움직임으로 보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에 직면했던 온타리오주가 이번 어린이집 대기자명단 비용 금지 조치로 학부모의 호응을 얻게 되었지만, 온타리오주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보육시설 입소희망자 대비 수용률이 낮은 반면, 보육시설 이용료는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 이런 상황에서 향후 온타리오주의 육아지원 및 보육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8월 2일

출처: <https://www.thestar.com/news/queenspark/2016/08/02/ontario-bans-unfair-wait-list-fees-for-daycare-spots.html>

## 8. 온타리오 주, 0~4세 보육여건 강화를 위한 대규모 계획 발표

### ■ 향후 5년간 총 10만 명의 아동 취원 지원

캐틀린 윈(Kathleen Wynne)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10만 명의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한, 수준 높은 보육(Affordable, Accessible, Quality Child Care)”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계획을 발표함.

9월12일 온타리오 주 총독(Lieutenant Governor of Ontario)인 엘리자베스 더데스웰(Elizabeth Dowdeswell)이 대독한 제41차 온타리오 의회 개회식의 여왕칙어(Throne Speech)에는 온타리오 주의 자유당 정부가 그동안 가다듬어 온 대규모 온타리오 주 균형 발전 전략이 담겨 있음.

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G7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GDP 성장을 유지하면서 ‘GDP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성장과 발전’에 1차적 초점이 맞춰진 자유당 정부의 이번 정책계획은, 교외지역 거주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 서비스 이용시간을 강화하며, 보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0~4세 보육 정원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분배와 복지’에도 큰 비중을 두었음.

온타리오 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수용가능 인원(정원)은 56,000명 증가했고 현재는 총 351,000명의 수용 가능함. 또한 학교 시설을 통해 총 4,000명의 수용정원 증대를 진행 중에 있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온타리오 주 0~4세 영유아 중 보육시설 등록을 희망하는 비율은 45~50%이지만 실제 인가받은 보육시설 등록 영유아 비율은 20% 수준임.

이에 주정부는 2017년부터 5년간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학교/지역공동체/가정 기반 보육 시설 확충으로 10만 명의 수용정원을 더 늘려, 보다 많은 취업가정이 적절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육시설의 소유 및 임대 관련 규제 등에 변화가 생기고, 기초 기반시설 개선과 증대를 위한 10~30억 달러의 설비투자 예산과 6~7.5억 달러의 연간 운영비용 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임. 또한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2억69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투입해 온 것처럼 보육시설 교사 및 전문가들의 임금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주의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온타리오 연합(Ontario Coalition for Better Child Care)’의 캐롤린 펀스(Carolyn Ferns)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큰 공약이다. 그것도 0~4세 아동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용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란 걸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한가’와 같은, 보다 구조적인 이슈가 숨겨져 있기 때문”임. 어린이집 입소 대기비용 금지를 이끌어 낸 청원의 주인공 나딘 블럼(Nadine Blum)은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함.

스웨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했었던 글렌 구스타프손은 토론토의 보육시설 수용력 부족과 높은 보육료에 놀랐다면 “정부의 발표는 0~4세 아동의 40%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계획

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며 반문함. 일각에서는 주정부가 발표한 10~35억 달러, 그리고 6억~7.5억 달러라는 최소치와 최대치의 격차 역시 정책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온타리오 주 최대도시인 토론토는 영아 보육료가 연간 2만 달러 수준이며, 13,000명 이상의 아동이 보육보조금을 기다리고 있음.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 외에도 높은 보육료는 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 주 학부모들의 큰 불만이며 걸림돌임.

이번 온타리오 주의 대규모 정책플랜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대규모 예산을 구조적 개선의 투자가 아닌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처럼 소모성 보조 예산으로 활용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여기에서 나옴. 향후 온타리오주의 육아지원 및 보육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내용을 담고 추진되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9월 12-23일

출처: \* 온타리오주 정책보도자료 (총리실 제공)

- 종합정책 보도자료

<https://news.ontario.ca/opo/en/2016/09/throne-speech-announces-electricity-cost-relief-new-child-care-spaces.html>

- 보육 관련 정책

<https://news.ontario.ca/opo/en/2016/09/affordable-accessible-quality-child-care-for-more-families.html>

\* 부총리의 관련 정책 보완설명

<https://www.sudbury.com/local-news/child-care-funding-will-focus-on-kids-aged-0-4-422407>

\* 정책플랜에 대한 보도와 분석

<http://news.nationalpost.com/news/canada/canadian-politics/ontario-liberals-promise-100000-new-child-care-spaces-by-2022-four-years-after-their-mandate-ends>

\* 학부모 및 전문가의 반응과 견해

<https://www.thestar.com/news/queenspark/2016/09/12/ontario-parents-welcome-new-focus-on-daycare.html>

## 9. B.C주 부모들, 어린이집 자리 확보를 위해 이용료 수천달러 먼저 지불

밴쿠버를 비롯한 브리티시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주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일부 학부모 중에는 영유아들을 위해 아직 이용하지도 않은(unused) 보육시설 이용료를 수천 달러씩 지불하고 있음.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잉그리드 이라니(Ingrid Irani)는 육아휴직을 통해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있지만, 매달 인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불하고 있음. 이것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잉그리드가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 아들을 맡길 어린이집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그녀는 “아들이 아직 어린데다가 가능하면 아직까진 내가 돌보고 싶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 하지만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정말 찾기 어렵기 때문에, 확보한 자리를 놓치

지 않기 위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남편과 함께 예전부터 비상자금을 모아왔는데, 이 상황이 야말로 그 비상자금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음. 그녀의 가정은 결국 첫째 아들의 보육비로 매달 900달러(한화 약 78만원(환율 1달러= 865.65원 기준) 를 지불하는 외에 총 6000 달러(한화 약 519만원) 의 ‘아직 이용하지 않은 보육비’를 사용하게 되었음.

지난 5월 B.C 주정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리가 남는 어린이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해 홍보했음. 이 온라인 맵 사이트 제작에는 총 15만 달러가 투입되었음. 하지만 CTV 뉴스에서 자리가 있다고 표시된 기관 20곳에 전화를 걸어 두 살 된 아이를 위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대부분 자리가 다 찬 상태였고 자리가 있는 곳은 불과 4곳뿐이었음.

이에 대해 B.C 보육지지사 연합(Coalition of Childcare Advocates of BC)의 샤론 그렉슨(Sharon Gregson)은 B.C주가 제공하는 지도와 정보가 매우 부정확하며, 보육비용과 보육의 질 등을 비교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신민당(NDP)의 멜라니 마크(Melanie Mark)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가 웹사이트 관리 및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함.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자리가 있다고 표시한 어린이집들 상당수가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목적에서 이른바 ‘미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음. 그렉슨은 “많은 부모들이 높아지는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 부담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 부족한 어린이집 정원과 함께, 높은 보육비는 보육위기의 주범이다”라고 주장했음.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의 문제(affordability)’와 ‘자리의 문제(availability)’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15,000명 이상이 서명한 “하루 10달러 보육료 어린이집 계획(\$10-a-day daycare plan)”을 제시했음. 지지자들은 이 정책을 통해 보육료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집이 생겨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편하게 맡기고, 집에서 양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의 진출입 문턱도 낮추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B.C주의 자유당 정부는 이러한 청원과 여론의 의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 입장을 밝혔고,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용하지도 않는 어린이집 이용료로 지불되는 수천 달러의 비용은 일종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보험금과 다름이 없음. 최근 중국 등의 해외유입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집값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B.C주에서, 보육료 부담과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에 주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8월 25-30일

출처: \* B.C주의 보육 정보 제공 지도와 웹사이트 부정확성 보도

<http://bc.ctvnews.ca/150-000-child-care-map-just-hocus-pocus-probe-1.3051582>

\* B,C주 부모들이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불  
<http://childcarecanada.org/documents/child-care-news/16/09/parents-pay-thousands-hold-unused-daycare-spots>

## 10. 캐나다 보육비용,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캐나다 가정은 소득의 4분의 1 가량을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OECD 보고서가 밝혔음. OECD 35개 국가의 맞벌이 가정은 평균 순소득의 15%를 보육비용으로 지출함. 캐나다의 경우 그 비율은 22.2%로, 33.8%를 기록한 영국 등과 함께 최고 수준임. 정부보조금과 세제환급금을 제외하면 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은 더 많아짐.

외벌이 가정의 경우 캐나다는 32%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52%, 아일랜드의 41%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임. 참고로, 맞벌이 부부 가정에 있어서는 보육비용 부담이 오스트리아(2.7%), 그리스(3.5%), 헝가리(3.9%)가 낮게 나타났고, 외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덴마크(2.9%), 룩셈부르크(3.2%), 포르투갈(3.8%)가 낮게 나타났음.

OECD는 보육비용 문제가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자녀가 어린 시기 동안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통상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직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몇 년간 직장을 떠난 후 다시 복귀할 때 여성들은 종종 임금 상의 패널티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보고서는 말함. 이것은 젊은 가족들에게도 나쁜 소식이지만, 이들의 줄어든 소득이 세금 및 가처분 소득의 축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와 경제에도 안 좋은 소식임.

보고서에서는 특히 NEETs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NEET란 “교육, 취업, 직업교육 중 어느 영역에도 자리하지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근로연령대 젊은이”를 의미함. OECD는 이들 NEET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용이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보육(affordable child care)을 지목함. 그리고 이와 관련해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영유아를 위해 공공보조금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화되는 덴마크의 사례, 보육시설 입소가 필요한 외벌이 부모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아이슬란드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음.

2015년 연방총선거 이후 계속해서 보육료 부담과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캐나다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10월 21일

출처: <http://www.cbc.ca/news/business/oecd-child-care-costs-1.3815954>

## 11. B.C.주 신민당, 선거 승리 후 집권 시 ‘하루 10달러 보육’ 공약

British Columbia 주 신민당(NDP)의 존 호건(John Horgan) 대표는 2017년 5월 주정부 총선에 서 자유당을 이기고 집권할 경우, 그동안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청원되었던 ‘하루 10달러 보육(\$10-a-day childcare)’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 보육센터 설립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신민당의 공약을 발표했다.

존 호건 대표는 10월 19일(수) 이스트 밴쿠버의 Terry Talyer Early Learning & Care Centre 에서 가진 연설에서 내년 5월 주정부 총선 승리로 집권할 경우 B.C주 전역에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하루 10달러 (한화 약 8천5백 원(환율 1달러=851원 기준))’ 보육센터를 세우기 위해, 현재 자유당 정부에 의해 임시로 부과되고 있는 ‘고소득자 대상 특별세율 제도’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은 매우 크고, 이것은 단지 사회정책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라면서 “이것은 경제 문제이다. 여성들이 자녀를 돌볼 시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경제에도 그리고 가족과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호건 대표는 ‘하루 10달러’ 보육센터의 설립과 보급을 위해 연간 약 15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2013년 현재의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임시세의 제도화를 통해 충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이 이끄는 자유당은 2013년 예산안에서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율을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14.7%에서 16.8%로 약 2%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를 통해 B.C 주정부는 4억1200만 달러(한화 약 3천 5백억 원) 상당의 추가세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였음.

신민당은 집권 시 해당 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주정부가 밝힌 7억3천만 달러의 재정흑자 등도 함께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흑자에는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열기에서 발생한 15억3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양도세(property-transfer taxes) 세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C.주 보육지지자연대(the Coalition of Child Care Advocates of B.C.)의 대변인인 샤론 그레그슨(Sharon Gregson)은 ‘하루 10달러’ 비용 정책이 거론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오랫동안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부모들을 보는

것이 괴롭다”면서 “자리가 난다고 해도 너무 비용이 높아 빚을 내면서까지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평가했음.

신민당은 현 자유당 정부가 B.C.주의 보육 위기를 무시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음. 이에 대해 B.C주 스테파니 카듀(Stephanie Cadieux) 아동가족발전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장관 측은 정부가 2020년까지 13,000개의 보육공간을 확보하고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 약속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음. “정부는 많은 부모들이 가족과 일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데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인지하고 있고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2만 명의 아동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보조비 용도로 1억2천만 달러(한화 약 1,02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아동가족개발부는 밝히면서, “B.C.주에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큰돈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 범위를 초과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함.

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계속해서 자유당의 B.C.주정부는 양육보조금 제도로 충분하다며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다시금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공적 보육 제도화 방침이 향후 B.C주와 전국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10월 20일

출처: <http://vancouversun.com/news/local-news/ndp-to-raise-taxes-to-pay-for-10-dollar-a-day-daycare>

## 12. 앨버타 주정부, 보육 수용정원 확충 등을 위한 예산안 발표

### ■ 퀘벡식 모델을 표방한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 시동

신민당(NDP)이 집권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보육 수용정원 확충 및 전문종사자 확보 등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보육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음.

앨버타 주 수상인 레이첼 노트리(Rachel Notley)는 지난 11월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주정부는 앨버타 가정의 보육시설에 대한 실제적 접근가능성을 향상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음.

보육예산은 보육 수용정원을 1,000명 더 확충하고, 230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예산 투입은 교대근무를 하는 부모들을 위한 유연 선택제, 병원,

공공기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보육센터 설립, 장애아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지원 등을 포함해 궁극적으로는 앨버타 주 신민당이 추진하려는 “하루 보육료 상한액 25달러” 정책의 시행에 초점을 두고 있음.

예산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비영리기관들로 하여금 18개의 신규 조기교육 및 보육 센터(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Centres) 운영에 지원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각 센터는 첫째 50만 달러를 포함한 총 3년간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임.

2015년 앨버타의 주도인 캘거리(Calgary)를 기준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월 평균 보육료는 1000달러를 넘었음. 주정부 및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이 이러한 보육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음. 여성지위부 장관(Minister of Status of Women)인 스테파니 맥린(Stephanie McLean)은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이번 조치는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에 있어 평등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음.

신규 보육센터의 위치는 2017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마감시한은 2017년 1월 20일임. 연방정부를 비롯해 B.C.주, 온타리오 주 등에서 집권한 자유당 정부가 여전히 양육수당 등의 직접적 비용보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퀘벡식 모델을 추구하는 앨버타 주의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11월 15일

출처: <http://calgary.ctvnews.ca/alberta-government-investing-in-more-child-care-spaces-1.3161707>

### 13. 캐나다 보육비용 상승률,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세 배 이상으로 나타나 - 주별 정책성향이 지역별 보육비 부담 격차에 큰 영향 미쳐

지난 3년간 캐나다 전국의 평균 보육비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2.5%)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12월 12일 캐나다 정책대안 센터(The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풀타임 보육(full-time child care)에 지출되는 월평균 보육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약 3배인 8% 이상이며, 특히 토론토 지역에서는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아와 유아 한 명씩이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는 연간 36,000달러 정도를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비용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비용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주(퀘벡, 매니토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보육비 부담이 가장 낮은 반면, 시장가격에 의존한

지역들의 보육비 부담은 높았음. 도시 지역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녀 한 명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으로 평균적으로 연간 1,200 달러 이상을 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민주당의 여성지위조사담당관인 Sheila Malcommlson은 “현재 캐나다 가정에서 보육비 부담은 주거비 부담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했음.

한편, 캐나다 내 보육시설의 약 70% 정도가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음. 토론토 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기다리는 비용, 이른바 ‘대기자명단비용[1]’을 금지했지만, 밴쿠버의 경우 여전히 보육시설의 절반 정도가 대기자명단비용을 받고 있음.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의 상임이사이자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Mortha Friendly는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보육비용의 편차는 예상한 바와 같이 각 주의 정책 차이가 달려있었다,”고 말했음.

지난 10월에는 캐나다의 보육비 부담율이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이라는 연구결과[2]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보육비 부담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향후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1] 캐나다동향 8월 자료 참조  
[2] 캐나다동향 10월 자료 참조

2016년 12월 12일

출처: <http://www.rcinet.ca/en/2016/12/12/childcare-costs-jump-are-among-highest-in-oecd/>  
<http://www.ctvnews.ca/politics/child-care-costs-rise-in-canada-s-major-cities-as-liberals-craft-plan-1.3199183>

##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 불어를 주 언어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인력난 심화

#### ■ 출생 전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보육서비스 혜택 장담 못 해

불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불어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기 점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퀘벡 주 제외). 이와 같은 문제는 불어를 사용하는 보육(교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고충과 맥을 함께 함.

대표적으로 불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이하 P.E.I.)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해짐. 웰링

턴(Willington) 지역 보육시설 원장인 프리태니 갬런트(Brittany Gallant)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임금”을 꼽았으며, 자격을 갖춘 신규 어린이집 교사들은 초임일 경우, 시간 당 최소 15달러 이상 수준을 기대하지만, 물가상승 및 여러 요인들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그것이 인력난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음.

물론 어린이집 인력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에 대한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문제이며, 불어권 어린이집 뿐 아니라 영어권 어린이집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영어권 어린이집의 경우,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교사 및 인력풀(pool)이 충분한 반면, 불어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채용 가능한 인력풀이 매우 한정적임. 따라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캐나다에서, 영어와 불어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특히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높은 편. 따라서 토론토나 오타와 같은 대도시가 위치한 온타리오주 등으로 불어 구사 인력이 몰리는 것은 P.E.I. 같은 지역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함.

P.E.I. 불어권 영유아센터연합 (L'Association des centres de la petite enfance francophone de l'Î.-P.-É)의 책임자인 제송 르블랑(Jason LeBlanc)은 “불어권 어린이집은, 불어 유치원이 공공 학교체제에 편입되면서부터 교사들 부족현상이 심해졌다. 특히나 취업하자마자 임금 삭감을 경험한 교사들을 설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력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시기야말로 정부가 임금 삭감이 아닌 재정지원 확충을 통해, 유능한 인력 충원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전함.

한편, Centre éducatif Pomme et Rinette 위원회 구성원인 조세 바빈느(Josée Babineau)는 많은 불어권 부모들이 자녀 출생 전부터 불어 사용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를 신청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음. “상시적으로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9월부터 불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부터 불어를 듣고 말하는 것은 이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함.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이면서 영어와 불어를 공식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불어 사용 보육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6월 23일

출처: [www.cbc.ca/news/canada/prince-edward-island/francophone-daycare-staff-1.3648884](http://www.cbc.ca/news/canada/prince-edward-island/francophone-daycare-staff-1.3648884)

참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州) 관련 정보 [https://en.wikipedia.org/wiki/Prince\\_Edward\\_Island](https://en.wikipedia.org/wiki/Prince_Edward_Island)

## 2. 매니토바 주, 보육시설 대기기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보육’ 정책이 필요 - 학부모 3100명의 온라인 조사결과 발표

매니토바에서 상당수의 아동들이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15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동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보육 시스템(universal child care system)이 확립될 필요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Manitoba Child Care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Probe Research의 결과에 따르면, 매니토바주의 보육시설 정원은 34,000명인데, 2016년 9월말을 기준으로 온라인 보육시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아동은 총 15,273명이었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설문참가자 중 62% 가량이 자녀의 입소를 위해 14~15개월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가 직장 복귀를 연기하고 30%가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24%가 교육기회를 접은 것으로 나타났음.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된 보육 기회 및 보육시간, 보육의 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83%는 인가 제도가 보육의 질 확보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심지어 대기시간, 거리 등의 문제로 비인가받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7%)도 인가받은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49%는 보육비가 가계운영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77%는 새로운 주택건설 지역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함께 지어야 한다고 답했음. 응답자의 3분의 2(64%) 정도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보육정원을 늘리겠다.”는 매니토바 주정부의 공약실현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음.

보고서는 15개월가량을 기다려야만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양육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시에 학부모들의 직장 복귀를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보육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높다고 결론짓고 있음.

이에 대해 매니토바 주 가족부 장관(Families Minister)인 Scott Fielding은 이메일 답변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함께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Framework[1]’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연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 주와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및 보육대기시간 문제가 중요 정책이슈로 다뤄지는 가운데, 매니토바 주에서 향후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1] 집권자유당의 공약에 따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주정부와 공동협의해 각 주 차원의 보육정책 이외에 연방 차원에서 함께 공조하는 정책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말함. 연방 차원에서는 2016~2017년 관련예산으로 총 5억 달러를 책정하였음.

2016년 12월 5일

출처: <http://www.winnipegsun.com/2016/12/05/universal-child-care-system-needed-lobby-group>  
<http://www.cbc.ca/news/canada/manitoba/manitoba-child-care-association-poll-1.3881658>

## ❖ 기타

### 1. 캐나다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 ■ 각 주별 노동시장 참여율 차이에는 보육시설 이용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쳐

캐나다 연방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 문건은 자유당 정부 집권 후 현황보고를 위해 재정부(The Finance Department)에서 준비한 것으로서,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각 주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노동진출 여건 및 보육 지원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해당 문건은 2015년 연방총선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조기 교육 및 보육 관련 프레임워크를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주 및 준주(準州) 정부, 지역 공동체 등의 협조를 받아 자유당의 권력 이양 기간 중에 작성됨.

본 보고서가 인용한 2013년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54세의 “프라임 연령대(prime-aged)” 어머니의 고용률은 75%였음. 이 수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9위에 해당함. Canadian Press가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 규정 하에서 입수한 연방 정부 내부 문건은 “자녀가 있는 캐나다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OECD국가 여성들에 비해 낮으며 특히,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프라임 연령대 여성의 낮은 비율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함.

또한 일부 보육시설 이용료가 높은 주에서는 어머니의 노동시장 진출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됨.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BC, 앨버타는 보육시설 이용료가 높은 지역인 반면 퀘벡, 매니토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는 보육시설 이용료가 적은 지역임. 이와 관련하여 “온타리오, BC, 앨버타, 뉴펀들랜드와 다른 주들 사이의 어머니 노동시장 참여율 차이는 크게 볼 때 이들 지역의 높은 보육료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담겨 있음. 또한 퀘벡이나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보육시설 비용이 적은 지역의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함.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낮은 보육료’와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 사이의 연관성을 일률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움. 여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형식, 경제적 맥락, 보육시설 수용여력 및 이용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더불어 어머니의 학력 요인을 감안했을 때에도 나타나는 “강력한 지역별 편차” 도 고려해야 함. 이 보고서는 캐나다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있는 대표적인 요인들로 어머니의 학력, 배우자의 소득, 노동시장 환경, 세율, 아동수당,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정책적 차원에서, 이 보고서는 보육시설 이용료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잠재적으로는 캐나다의 노동 공급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그러나 이것은 보육시간, 보육 서비스의 질, 지역적 편의성과 접근성 등 많은 변수들에 좌우되기 때문에 쉽게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무엇보다 보육시설 이용료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매력적인 직업 기회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지음.

트뤼도 정부는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단 하나의 연방 프로그램(one-size-fits-all national program)”을 지양하며 그 대신 개별적인 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관할에 걸맞는 접근법을 고려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음. 그리고 이러한 공약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함.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부담을 낮추되 각 주별 상황에 적합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이 트뤼도의 자유당 정부가 지향하는 바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과 주정부별 정책이념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충족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8월 3일

출처: <https://www.thestar.com/business/2016/08/03/fewer-canadian-moms-participate-in-workforce-than-those-in-many-rich-nations.html>

## 2. 캠페인 2000, ‘2016 캐나다 아동·가족 빈곤 관련 연례 리포트’ 발표

캠페인 2000(Campaign 2000)이 ‘2016년 캐나다 아동 및 가족 빈곤 연례 리포트 카드(Annual National Report Card on Child and Family Poverty in Canada)’를 발표했다. 캠페인 2000은 1989년 연방 하원의 “2000년까지 캐나다 내 아동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초당파적 결의안” 실행을 위해 시작된 캐나다 전역 공교육 운동임. 캐나다 전역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는 120개 이상이며, 2000년 이후에도 아동 및 가족 빈곤 퇴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음.

캠페인 2000은 리포트 카드 발표를 통해 아동 및 가족 빈곤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진전상황을 평가하며, 정치권과 행정기관 등에 초당파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음. 특히, ‘생애주기 접근법’에 근거해 공공정책과 사회적 투자에 대해 제시함. 2016 리포트 카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9년 이후 아동 빈곤율이 15.8% 에서 18.5%로 계속해서 증가하였음. 특히, 원주민 보호구역 내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 아동의 빈곤율은 60%로 매우 심각함. 만 6세 미만 아동의 빈곤율이 특히 높음. 캐나다 전국 평균으로는 19.7%이고, 특히 누나부트(Nunavut) 준주의 아동빈곤율은 45.1%로 심각한 상태임. 빈곤율 감소를 위한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아동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 제도를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게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CCB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빈곤가정에게 있어 절실하게 요구됨.

노숙자 쉼터 이용자 중 7분의 1이 아동임. 이는 천식 등의 질병, 불면증과 불안증, 의사소통상의 문제 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음. 보육 수용 정원은 전국 만 0~12세 아동의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차원의 보육 프로그램이 절실함. 매달 30만7천명의 아동이 푸드뱅크(식품지원 복지 서비스)를 방문함.

정부의 도움을 통해 71만2천명의 아동이 빈곤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평균 2.14%를 가족 수당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캐나다는 1.18%만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11월 24일

출처: \*미디어용 배포자료

<http://campaign2000.ca/wp-content/uploads/2016/11/2016Campaign2000NationalMediaReleaseENGLISH.pdf>

\* 리포트 원문

<http://campaign2000.ca/wp-content/uploads/2016/11/Campaign2000NationalReportCard2016Eng.pdf>

\*캠페인 2000 홈페이지

<http://campaign2000.ca/>

## 프랑스

### ❖ 일·가정 양립

#### 1. 학부모에게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바뉴 지역에 있는 라르캥씨엘 어린이집은 직장이 없는 학부모에게 직장을 연결해 주고 학부모가 직장을 찾아주는 것을 도와준다고 함.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지만, 이 어린이집의 입구에는 학부모의 이력서와 지원서들을 요청하는 게시물들이 붙여있음.

정부는 이와 같은 구직활동지원 어린이집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직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촉구하고 있음. 조만간 가족부에서는 학부모 구직활동지원 어린이집 대한 공식적인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함. 해당 어린이집은 구직활동 중인 학부모 30%에게 배정될 것이고, 이는 6개월마다 갱신. 또한 어린이집은 구직센터 및 지역구직활동과 연계되고, 이를 위해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기관들이 올해 말에 확충될 예정이라고 전함.

2016년 5월 10일

출처: [www.la-croix.com/Economie/Social/Quand-la-creche-accompagne-les-parents-vers-l-emploi-2016-05-10-1200758986](http://www.la-croix.com/Economie/Social/Quand-la-creche-accompagne-les-parents-vers-l-emploi-2016-05-10-1200758986)

#### 2. 여러 회사가 함께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여러 회사가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근무하는 직원과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함. 최근 “까뽀 앙팡” 협회에서 주최한 회사 운영 보육원의 효과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음.

회사 운영 보육시설은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 되어준다고 주장함. 우선 보육시설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맡기고 데려오는 데에 수월함.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의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회사 내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공공 지원으로 이루어짐. 회사는 그들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출 83%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학부모는 수입에 따라 보육비 지불하게 된다고 함.

2016년 7월 5일

출처: <http://courriercadres.com/rse/equilibre-vie-pro-vie-perso/creches-interentreprises-participer-aujourd'hui-a-lepanouissement-des-adultes-de-demain-05072016>

### 3. 직장과 자녀, 프랑스 부모들은 어떻게 조율하는가?

부모가 직장에서 전일제 근무를 한다면 만 3살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됨. 프랑스 보건사회부 산하 통계평가연구소(DREES)에서 이러한 가족에 대해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의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의 시간동안 양육되고, 10명 중 4명의 영유아는 보육사가 돌보는 것으로, 10명 중 2명의 영유아는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명 중 1명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영유아들이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경우, 부모들은 직장에서 10일 중 2일 정도는 업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하였음. 특히, 여성들이 직장 일을 줄이고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음. 출산 이후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여전히 많았으며, 만 3세 미만 영유아들 3명 중 1명만이 두 부모 모두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부모들 중 몇몇은 그들의 사회활동 보다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음. 왜냐하면 자녀들을 돌볼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부모 외 다른 사람에게 양육되는 경우, 영유아들은 일주일에 평균 부모 없이 36시간을 보내야 함. 부모가 모두 전일제 근무를 하는 가정의 경우, 한 달에 446유로(한화 약 55만4천원(환율 1유로=1,242.23원))로 보육비를 지출했고, 국가의 지원을 감안하면 215유로(한화 약 26만7천원)의 보육비를 지출함. 보육의 방식에 따라 보육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가장 비싼 보육 방식은 자신의 집에서 공인된 보육사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었음.

2016년 11월 4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Travail-et-enfant-comment-font-les-parents-pour-tout-concilier-2241980>

## ●● 양육지원

### 1. 프랑스, 조산사에 새로운 권한 부여

조산사들에게 백신 주사와 약을 처방하는 권한이 부여됨. 2016년 10월 19일 정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조산사들이 주사와 처방이 가능한 약의 목록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음.

이제 조산사들은 신생아와 산후 8주까지 산모에게 백신을 주사할 수 있게 되었음. 조산사들은 이 전에도 이미 풍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백일해, B형 간염, 독감 예방주사를 산모에게, 그리고 결핵과 B형 간염 예방주사를 신생아에게 주사할 수 있었음. 새로운 법안은 그들에게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주사의 권한도 부여하였음.

조산사들은 이전부터 소독약과 몇몇 항생제, 진통 해열제, 피임약, 그리고 단일항원반응 백신의 약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수두에 걸린 산모와 아이에게 니코틴 계열 대체약품 또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음.

프랑스에서 조산사(Sages-femmes)는 보건의료 전문 직종 중 하나로 인정되며, 현재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같이 대학의 보건의료 정식 교육과정을 거쳐 조산사가 될 수 있음.

2016년 10월 25일

출처: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0875>

##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환급이 더 쉬워진 메츠 시

2017년 1월 1일부터 메츠(Metz) 시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원 급식비를 포함한 육아비용을 세금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세금을 더 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됨. 프랑스에 거주하며 프랑스 정부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 부모는 신청 자격이 있으며, 부모들은 세금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한 후 육아 비용의 50퍼센트를 환급받게 됨. 세금환급 대상은 메츠 시 내 4200세대 이상이 될 것임.

2016년 12월 14일

출처: <http://tout-metz.com/frais-garde-enfants-credit-impot-metz-2016-5558.php#>

##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 미숙아와 부모들을 위한 보육원 시설

올해 초부터 조기사회의학운동센터(CAMSP)은 미숙아와 조산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을 확대시킬 예정이며, 에귀에(Aiguilhe)시에 위치한 소규모 보육원이 중요한 담당하게 될 것임. 생후 18개월 이전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 예약 없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한 명의 심리전문가와 한 명의 유아교육전문가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임.

또한 정해진 날짜에 한 명의 정신운동훈련가와 아동생리학과 간질질환 전문가인 리샤 드페이 박사와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음. 이 센터의 담당자인 생상 꾸리올은 “이 상담이 부모가 정한 주치의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상담은 주치의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의 발달을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강조함.

오프 루아 지역의 전체 출생아 중 33주 이전에 태어나는 조산아의 비율은 3.3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한 해 23명에 이룸. 리샤 드페이 박사는 “신경과학적 분석 중 신경발달에 초점을 둔 검사는 조산아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 신생아학회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퇴원 후 부모와 함께 우리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음.

2016년 1월 14일

출처: <http://www.leprogres.fr/haute-loire/2016/01/14/une-creche-accueille-les-bebes-vulnerables-et-leurs-parents>

## 2. 렌즈시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육원

많은 자영업자들이 점심시간과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있음 (프랑스는 기관, 시설, 영업장 대부분이 점심시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음). 이러한 환경이 그들의 육아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함. 엇그제부터 렌즈시의 빌장지역에 문을 연 다목적 보육원은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렌즈시민들의 집 》이라는 협회의 회장인 이자벨 라베르쉬가 이러한 아이디어의 주인공임. 그녀는 “내가 취임한 지난 3월부터 나는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말함.

꼴롱비에 부근에 2005년에 문을 연 예전의 임시 보육원은 16명을 수용 가능했고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았음. 때문에 많은 가정이 일과시간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음. 빌장의 새로운 보육원은 만 3세에서 6세의 아동들 18명을 수용할 수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8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운영됨. 아이들은 이 보육원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음.

이자벨 라베르쉬에 따르면 그 보육원은 편안하고, 밝으며 놀이공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등,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시와 가족수당지원국의 인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다른 보육원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 7일

출처: <http://www.entreprises.ouest-france.fr/article/commerce-creche-pour-enfants-commerçants-rennes-07-01-2016-248729>

### 3.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원

매달 총 700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보육원들의 네트워크인 Crèche Attitude는 보육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육원과 그들의 관계와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결과는 긍정적이었는데 자신의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어머니들의 70퍼센트는 몬테소리, 프라이네, 스타이너 등의 대체 교육과정을 알고 있었던 반면 아버지들은 61퍼센트가 알고 있다고 답했음. 또한 76퍼센트의 어머니들이 유기농 식재료와 장애아들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아버지들은 59퍼센트가 이에 관심을 보였음.

보육원에서 아이의 청각 발달이 시작된다고 답한 어머니는 90퍼센트, 아버지는 80퍼센트였고, 신체적 활동이 시작된다고 답한 어머니는 81퍼센트, 아버지는 67퍼센트, 몸짓에 의한 의사소통은 어머니 67퍼센트, 아버지 58퍼센트,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 66퍼센트, 아버지 50였음.

보육원이 아이의 일상적 삶의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그것에 대한 어머니들의 기대가 더 크다는 점은 놀라움.

2016년 2월 10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La-creche-un-mode-de-garde-important-pour-le-developpement-de-l-enfant-2207997>

### 4. 파리에 문을 연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

파리 9구에 위치한 샤리바리 보육원은 문을 연지 8년이 되었고, 30여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음. 이 중 열 명 정도의 아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임.

다운증후군인 만 2살의 노아는 잘 걷지 못했지만 이 보육원에 오면서부터 눈에 띄는 발달을 보였음. 노아 할머니에 따르면 노아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함. 이것은 이전 보육원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음. 샤리발리 보육원에서 노아는 그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아이들과 같은 활동을 하며 어울림.

2005년 공표된 ‘공동체 편입을 위한 기회와 권리의 평등법’에도 불구하고 단지 2퍼센트의

장애아동들만이 받아들여지고 있음. 왜냐하면 많은 보육원 담당자들은 장애아동들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임.

2016년 3월 24일

출처: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charivari-une-creche-pas-comme-les-autres-paris-pour-tous-les-enfants-handicapes-ou-pas-1458733779>

## 5. “부모의 집”의 발전을 위한 기금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 보육시설, 《부모의 집》은 앞으로 처음 시설을 시작할 때 보육과 관련된 장비, 전자제품, 놀이기구, 책, 가구 등을 구비하는 데에 300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이 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모의 집》은 가족수당지원국과 정부의 영유아부문 산학 협력서비스 인증을 받은 곳에서 운영되어야 함. 그리고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3년 동안 활동을 지속해야 함.

2010년 이 후, 인증된 부모들은 그들의 집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증할 수 있는 《부모의 집》에서 활동이 가능했음. 이 시설에는 동시에 4명 이상의 부모가 한 사람 당 최대 4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음. 2014년 가족수당지원국의 통계에 따르면 1230개의 《부모의 집》이 운영 중임.

2016년 4월 11일

출처: <http://www.ladepeche.fr/article/2016/04/11/2322838-garde-enfants-coup-pouce-essor-maisons-assistantes-maternelles.html>

## 6. 파업 중인 보육원들: 몽펠리에 시청에서 시위 중인 사람들

오늘 아침 몽펠리에 시청에는 보육원 직원 400명이 시위를 통해 그들의 불만을 표출했음. 그것은 내년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직원을 외부 용역을 통해 충원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었음. 내년 몽펠리에 시 보육원은 새로운 사립 보육원에 업무를 위탁하며 문을 닫게 되었음.

이에 400명의 보육원 직원들은 시청 앞에서 그들의 결속을 보여주었음. 그들은 보육원의 개인 소유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며 30개의 보육원과 긴급 탁아소가 오늘 아침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곳이 하루 종일 파업에 참여함.

2016년 4월 15일

출처: <http://france3-regions.francetvinfo.fr/languedoc-roussillon/herault/montpellier/les-creches-en-greve-le-personnel-manifeste-la-mairie-de-montpellier-975842.html>

## 7. 첫 번째 야간 소규모 어린이집 개장

프랑스 최초로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9시까지 야간에만 특별하게 운영되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바르베라즈시에 문을 열었음. 이는 10명을 수용 가능한 소형 보육시설로 야간에 일을 하는 부모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10개월에서 만 6세까지의 아이들을 (그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돌보며 아이들을 하룻밤동안 맡기는 것이 필요한 부모들도 역시 이용할 수 있음.

야간 보육시설은 4명의 아이를 가진 트럭운전자 레티시아와 아명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녀들은 밤에 아이를 보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 그들은 2년 전부터 야간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을 진행, 시장 조사까지 실시하였음. 밤에 일하는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야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한 부모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았었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밤 동안 일하는 부모를 쉽게 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사보아 시의 여러 단체들은 이러한 야간 보육시설을 시험 운영하기 시작했음.

2016년 5월 20일

출처: <http://www.ledauphine.com/savoie/2016/05/19/la-premiere-creche-nocturne-ouvre-ses-portes-en-savoie>

## 8. 9000개의 새로운 어린이집 자리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자리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 가족수당지원국에 의하면 2015년 프랑스에서는 9000석의 어린이집 자리(정원)가 늘어났다고 함. 이러한 증가는 부재 시 아이들을 돌볼 방법이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신의 일을 집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됨.

그런데 이는 2013년에 가족수당지원국과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거한 2017년까지의 목표에는 다다르지 못했음. 이 목표는 5년 동안 어린이집의 자리 10만개, 보육사가 보살필 수 있는 인원 10만 명, 유치원의 자리 7만 5천개를 새로 만들어 도합 27만 5000개의 자리를 만드는 계획이었음. 이러한 미충족과 결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짐작됨.

2016년 5월 4일

출처: <http://www.leparisien.fr/espace-premium/air-du-temps/9-000-nouvelles-places-en-creche-04-05-2016-5765757.php#xtref=https%3A%2F%2Fwww.google.co.kr%2F>

## 9. 어린이집의 배려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데려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돌봄

6개월 전부터, 뿌아띠에서 생 엘로아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두 개소에서 부모들이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고 함.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부모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또래 영유아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생 엘로아 지역의 어린이집인, ‘아름다운 이야기’와 ‘조금씩’(이상, 어린이집 명칭)은 부모가 하루 중 반나절을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95명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부모들은 오전 9시에서 11시 또는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함.

이러한 방식에 대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부모가 머물 수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크리스틴 불루는 “이와 같은 어린이집의 서비스가 아이의 적응을 돕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데에 좋은 준비과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음.

2016년 6월 13일

출처: <http://www.lanouvellerepublique.fr/Vienne/Actualite/Education/n/Contenus/Articles/2016/06/13/Les-assistantes-maternelles-ont-rendez-vous-a-la-creche-2748623>

## 10. 몽샤넝 지역,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것을 도와주는 연결 프로젝트 가동

몽샤넝의 보육시설과 3개 유치원 사이의 연결 프로젝트는 보육과 교육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함. 보육원, 긴급 탁아소 등의 보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2, 3세 아동은 오는 9월부터 유치원에 가게 되며, 보육원 원장인 페기 랑드레는 이 아동들을 최상의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가족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배려를 제공한다고 함.

보육시설에서 유치원로의 전이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전문가들은 몽샤넝의 세 유치원과의 협업을 통해 연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음. 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아동의 교육과정에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함임. 아동들은 앞으로 입소하게 될 유치원을 보육시설의 보육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하며 이 유치원에서 음악과 미술, 놀이 등의 실제 활동들에 대한 수일간의 체험을 통해 사전 적응을 하게 된다고 함.

2016년 7월 11일

출처: <http://www.lejls.com/edition-le-creusot/2016/07/11/le-projet-passerelle-facilite-le-passage-vers-l-ecole-maternelle>

## 11. 보육시설 입소 희망 두 명 중 한 명은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함

2015년, 만 3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68퍼센트의 부모가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겼다고 답하였음. 그리고 올해 국립아동연구소(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6퍼센트의 가정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기를 원하는 부모의 비율인 25퍼센트와 거의 같은 수치임. 반면에 보모를 원했던 부모는 전체 중 20퍼센트였으며, 이 중 84퍼센트는 보모를 구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부모 중 절반 정도는,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2016년 9월 1일

출처: <http://www.lejls.com/edition-le-creusot/2016/07/11/le-projet-passerelle-facilite-le-passage-vers-ecole-maternelle>

## 12. 보육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부모들

프랑스 보육시설 운영연맹 FFE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퍼센트의 부모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자녀의 삶에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96퍼센트의 부모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을 추천함.

보육시설이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밝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젊은 부모들은 10점 만점에 8.7점의 만족도를 나타냄.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활동,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들, 안전성 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입소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시함. 프랑스 10만 개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2016년 9월 1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Les-parents-toujours-plus-satisfaits-de-leur-creche-2235797>

## 13. 크뢰소 시 영유아를 위한 시설

크뢰소 시의 보육교사들과 보육시설(crèche)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한 달에 세 번 놀이방 《갈아타는 곳》에서 모임을 가짐. 이곳에서는 매월마다 세 번의 금요일을 정하여 아이들의 운동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기획하였고, 즐겁고 편안한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도 마련함. 또한, 미디어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동화 읽기 시간이 기획되었음. 이러한 시간은 생후 18개월부터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 연령의 영유아들에게 적합함. 이 놀이방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의 발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역할과 업무에 필요한 능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함.

《아이들의 집》의 담당자인 비비안 그로, 간호사인 끌로딘 꼬모, 그리고 레크레이션 지도자 까트린 안드레제브스키, 시 의회 의원 조셀린 블롱도는 21명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7명의 보육 교사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방문하였음. 비비안 그로는 《아이들에 집》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재현하기 위해 보육보조원들을 초청하였다고 함.

2016년 9월 29일

출처: <http://www.creusot-infos.com/news/vie-locale/le-creusot/le-creusot-l-eveil-de-l-enfant-est-favorise-avec-la-creche-familiale.html>

#### 14. 부모 비율은 낮아지고 보육원 이용비율은 높아져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CNAF)의 조사에 따르면, 한 개인(예: 부모)이 영유아를 돌보는 방식의 보육 서비스 이용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보육원 이용 비율은 상승하고 있음. 이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2015년, 59만8천명이 조금 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부모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수치는 2014년 60만5천9백 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임. 이러한 보육방식은 부모에 의한 직접육아 방식 다음으로 많이 선택되는 보육 서비스이지만, 보육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음. 전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2013년 94만7천6백 명에서 2014년 96만4백 명으로 증가했음. 두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영유아들 중 3분의 1이 부모에게 맡겨진 것에 반해,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중 14퍼센트가 부모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였음.

2016년 12월 8일

출처: <http://www.24matins.fr/modes-de-garde-denfants-assistantes-maternelles-recul-creches-hausse-442767>

## ❖ 아동발달/부모됨

### 1. 26%의 부모가 본인이 직접 육아하기를 선호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CAF)은 지난 9월 6일 새 학기를 맞이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영유아 육아방식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2015년 보육 공공시설에 9,900명의 영유아를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음. 2014년에는 만 0-3세 영유아 100명 당 56.1 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는 꾸준히 발전한 결과로, 2010년에는 그 비율이 50.5 퍼센트였음. 전체적으로 본다면, 2015년 101만 8천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했고, 이는 2014년 대비 4만2000명이 증가한 숫자임.

80퍼센트의 부모가 현재 자신들의 육아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28퍼센트의 부모는 선호하는 육아방식이 없다고 했으며, 26퍼센트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육아방식을, 25퍼센트의 부모는 보육원을, 그리고 21퍼센트는 보모를 통한 육아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음.

가족수당지원국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저소득 가정에 속한 영유아들은 현재 20.5퍼센트가 공공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음. 이는 목표치인 10퍼센트를 훨씬 웃도는 결과임.

2016년 9월 7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26-des-parents-prefereraient-garder-eux-memes-leur-enfant-2236375>

## 2. 프랑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40세 이상 엄마에게서 태어난다

최근 국립경제연구통계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14년 대비 2만 명이 감소했지만 노산의 비율은 증가했음. 신생아 20명 중 한 명은 40세 이상의 엄마에 의해 태어나며, 이는 4만 천명의 신생아에 해당됨. 더 나아가, 이들 중 93%는 만 40~44세 엄마에 의해 태어났으며, 만 45세 이후의 노산 수는 매우 적었음.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임신이었지만, 초산인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소는 이것이 새로운 추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이미 1948년에 40세 이상의 산모 비율이 현재의 수준에 도달했었다고 함. 그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졌다가 80년대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그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만 40~49세 여성의 임신 비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직업 활동에 의한 첫째 자녀 노산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추정됨.

2015년에 태어난 13만6천명의 신생아, 즉 전체 17퍼센트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아버지는 만 40세 이상이었고, 그 중 2퍼센트는 50세 이상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남. 결론적으로 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때 부모 모두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프랑스 연간 출산의 3.8퍼센트를 차지하였음.

2016년 10월 1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En-France-1-nouveau-ne-sur-20-a-une-mere-de-40-ans-ou-plus-2238737>

## ❖ 기타

### 1. 자폐성 장애 이해를 위한 국가 공식 사이트

프랑스 정부, 특히 보건사회부는 자폐성 장애에 관하여 편견을 넘어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노력을 가하고 있음. 유럽 의회로부터 자폐성 장애아동, 학습 및 학업부진, 직업교육에 관한 차별에 대해 5번의 경고를 받은 프랑스는 최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잘 전달하고자 [www.autisme.gouv.fr](http://www.autisme.gouv.fr) 사이트를 개설했음.

이 사이트는 자폐성 장애는 무엇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최신정보를 전달하고, 자폐성 장애에 도움이 되는 임상 자료와 과학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서 30만 유로의 예산이 우선 지급되었음. 이 사이트는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협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비전문가들의 모임을 공식적으로 포섭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12월 2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Autisme-un-site-national-pour-mieux-comprendre-ce-handicap-2245300>

## 독일

### ● 양육지원

#### 1. 인지도와 수급률이 저조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혜택

자녀추가 수당(Kinderzuschlag)은 빈곤가정을 돕기 위한 정책임. 그러나 해당 가정의 30%만이 지원금 전체를 받고 있음. 본 정책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 신청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함.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추가수당은 20유로가 추가되어 최대 160유로까지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실효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 정책은 하르츠 비어(Hartz IV: 실업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저소득 가정이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 하는데 목적을 둬.

그러나 본 정책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해당 가정의 3분의 1 이하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적은 숫자의 가정에서만 자녀추가수당을 신청하였으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 가정 중 66퍼센트는 탈락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가족부 내 카렌 막스 (Karen Marks) 비서관은 언급함.

아동 및 가족 정치를 위한 녹색당은 정책에 관한 정보의 부족, 복잡한 신청과정, 기준 조건에서 단 1유로만 소득이 높아져도 바로 지원금 혜택이 종료 되는 점 등, 해당 가족들의 70퍼센트가 자녀추가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내세움. 따라서 자녀추가수당은 기본 전제부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녹색당 국회대변인 브란트너는 전했다.

그러나 가족부는 이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 자녀추가수당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리는데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해 홍보의 결과로 서비스 센터에 평소보다 5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전화상담 및 의뢰가 있었다고 전함.

현재 계획된 것은, 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정이 좀 더 일찍 자녀추가수당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녀수당 (Kindergeld- 독일내 거주하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받

는 혜택)에 관한 통보를 보낼 때 자녀추가수당(Kinderzuschlag)에 관한 정보도 함께 보낸다는 것임. 그러나 자녀추가수당의 정책에 관한 신청과정에 대한 법적 개선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음.

2016년 8월 26일

출처: <http://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57864798/Diese-Leistung-fuer-arme-Familien-kennt-fast-niemand.html>

## 2. 도입 계획 중인 가족수당 정책(Familiengeld)에 관하여

가족부의 마뉴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 장관은 가족수당 (Familiengeld)에 관한 정책 계획을 발표함. 이 정책의 목표는 부모가 육아를 쓰는 시간을 공평하게 나누고, 많은 여성들이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마뉴엘라 슈베지히 장관은 가족부에 임명된 이 후부터 지금까지 자녀 양육의 공평한 공동분담(공동양육)을 목표로 삼아 옴.

현재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노동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축소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와 관련하여 가족부 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임. 가족수당은 자녀양육의 공동 분담이 가정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제안함.

2007년 이후 독일에서는 부모휴직수당(Elterngeld)이라는 정책이 있음. 자녀 출산 후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출산 전 임금의 65%까지 대체해 주는 정책임. 지난 몇 년간 육아 휴직을 선택한 아빠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육아에 드는 시간 분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 대부분 부모휴직수당을 받는 14개월 동안 아버지들은 두 달의 휴직기간을 갖고, 나머지 12개월의 휴직기간은 어머니가 갖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육아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직장내에서 승진할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를 겪을 수 있음. 파트타임은 아직까지도 독일에서 커리어킬러라고 불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은 연금적립이 덜 되기 때문에, 또 파트너와 이혼할 경우, 여성들은 노후빈곤을 겪게 될 위험성이 큼.

마뉴엘라 슈베지히 장관의 가족수당의 계획은 다음과 같음. 주당 28-36시간을 일하는 모든 부모는 국가로부터 2년 동안 각각 150유로의 수당을 받게 됨.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는 300유로의 수당이 지급됨. 이 가족수당은 육아휴직부모수당 혜택이 끝나는 대로 연결되며, 만 8세 자녀까지 신청가능 함.

슈베지히 장관의 제안은 경제 관련 부분에선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진 반면,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 정당의 정치가들은 현실과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2016년 7월 21일

출처: <http://www.stern.de/familie/kinder/familienpolitik—das-bedeutet-die-plaene-von-manuela-schwesig-6972454.htm>

## ●● 저출산

### 1. 독일, 출산율 증가 및 외국인 여성들에 의한 베이비 붐

2015년 독일에서 태어난 14만 8천명 아이의 엄마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 이 수치는 5명의 영유아들 중 1명의 엄마가 외국인인 것으로 독일 역사상 최고치에 달함. 이런 베이비붐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새로운 도전과제라 할 수 있음. 특히, 터키,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시리아 출신의 여성들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기여하였는데, 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아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1년간 독일에 약 73만8천명의 아이들이 태어남. 이는 2014년에 비해 2만 2천650명이 증가한 것임. 이 중 1만 7천명의 엄마가 외국인이며, 독일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약 5,370명이 증가한 약 59만 명임.

2015년에 가장 많은 아이들을 출산한 외국인 여성들은 터키 출신이며, 약 2만1천명에 달함. 또한, 약 1만1천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폴란드 출신이며, 8천명이 루마니아 그리고 7천명이 불가리아 출신임.

#### ■ 유치원 교육 의무는 만 3세부터

Ifo 연구소의 교육연구자인 루드거 뵘만 (Ludger Wößmann)은 “외국인 부모들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에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는 유치원과 학교 교사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양성교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함. 이런 이유로 유치원 교육을 만 3세부터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OECD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만 3세 이상의 유아들 중 약 94%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6%의 유아들의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이거나 이민자 가족임. 이런 유아들이야말로 유치원에서 독일어를 하는 다른 유아 및 교사와의 상

호교류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음.

현재 정치계에서 일고 있는 만 3세 이하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는 무엇보다도 “노동정치적 조치” 라고 뉘스만은 평하며, “이런 정책들은 엄마들이 일찍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통합과 어린이의 발달에 있어 크게 기여하는 점은 없다”고 함.

### ■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다

독일이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일찍이 OECD의 교육부서장인 안드레아스 쉘라이허 (Andreas Schleicher)가 주장했음. 독일에서 한 유치원의 유아 당 사용되는 경비는 노르웨이와 비교해 봤을 때 반 밖에 안 됨. 즉, 독일에서 교육에 대한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줌. 한편, 각 가정에서 아동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체 가계지출의 4분의 1을 차지함.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9%에 비하면 높은 편임.

독일의 대학 수업료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자녀들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는 여기에 사용하는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의 14%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다른 OECD국가들의 평균은 이 보다 두 배 이상임. “독일은 가장 어린 사람들에게로부터 돈을 요구한다,” 라고 쉘라이허는 지적하며, 아동교육을 통해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불이익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국민들은 영유아교육에 있어 문화, 계층 간의 통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Ifo-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56%의 독일 국민들이 만 3세 이상의 난민 유아들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봄. 또한, 4천명 이상의 INS 인프라테스트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다수(61%)가 주정부가 좀 더 많은 재정을 학교교육에 지출하기를 원함. 또한 주정부는 난민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인력인 사회복지사, 독일어 교사 그리고 심리학자들에 드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봄. 이렇게 보육의 질이 향상 된다면, 이민자 가족의 자녀들 또한 이득을 볼 것임.

### ■ 독일출신 여성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독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3분의 1이 이민자 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예상함. 대도시에는 학생들의 과반수가 독일출신이 아닌 학교들도 있음. 이런 이유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위한 통합교육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통계청에서는 독일출신 가정의 출산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희망을 줌. 독일 국적 여성들

의 출산율은 4년 만에 증가하였음.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1964년에는 백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구서독만 고려한 것이며 이 수치에 다다르려면 아직 멀었음. 통일 이후인 1997년의 출산율 수치 또한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임. 당시 독일에서는 81만 2천명의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중 13만 6천명 자녀의 엄마가 외국인이었음.

2016년 9월 22일

출처: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58294203/Babyboom-in-Deutschland-bei-auslaendischen-Muettern.html>

##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 독일 전역 유치원 비용 감소와 질적 향상 추진

독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보육시설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이제부터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함. 그리고 이를 위하여 첫 단계로 통일된 질적 기준을 정하였음.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한 자리를 받을 수 있는지, 시설비용을 적게 또는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보육이 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지금까지 운에 달려 있었음.

메클렌베르그-보아폼머른 (Mecklenberg-Vorpommern)주에는 보육시설이 많으나, 비용이 비쌌. 라인란드-팔츠 (Rheinland-Pfalz)주에서는 시설비용이 무료인 반면, 유아시설이 모자람. 동독의 경우에는 한 교사 당 6.1명의 3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반면, 서독의 경우 3.6명임.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질적 기준을 만들었음.

앞으로 독일 전 지역의 영유아들이 동일한 시작조건을 가지게 됨. 보다 향상된 교사 대 아동 비율, 좀 더 많은 언어지원, 시설비용의 절감 또는 무료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천만 유로가 지원이 됨. 앞으로 모든 독일 지역에서 교사 한 명당 3명의 만 3세 유아와 6.8명의 만 3-6세 유아를 돌보게 됨. 이것은 교사의 결석 또는 휴가를 감안하였을 때, 교사 1인당 4명 (3세 이하)과 9명 (취학 전 아동)을 뜻함. 이를 위해 매년 5백 7십만 유로가 들어갈 것임. 또한 보육 시설의 종일반 확장을 위해서는 4억 4천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천 9백 6십만 유로가, 3세 이하 보육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2백 6십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세운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백억 유로가 들어가리라 예상됨. 그리고 지방정부만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 장관은 단계적인 증가를 요구함. 가족부 장관은 질적발전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18년 육아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십억 유로를 충당하려 함. 중앙정부는 이미 현재에도 보육시설 운영비, 건축 및 재건축 비용과 언어 지원을 위해 2십5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런 가족부 장관의 계획으로 재무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와의 충돌이 예상됨. 그러나 결국에는 보육시설의 확장을 통해 이익을 받는 것은 중앙정부라고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교육장관인 귄터 바스케(Günter Baaske)씨는 주장함. 그는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해 매 번 들어가는 유로 당, 정부는 세금과 사회적립금등을 통해 53유로씩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일을 할수록, 중앙정부는 이득을 보는 것 이죠”라고 설명함.

지방/지역마다 문제는 다양한데, 어느 지역은 시설이 부족하고, 어느 곳은 공간이, 어느 곳은 교사가 부족한 것 등이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설정한 질적발전법에 의해 우선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로 통합하고자 함. 지자체의 여러 기관들은 이런 계획을 환영하고 있음. 지자체에게는 홀로 부담하기 어려운 재정적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2016년 11월 15일

출처: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59521957/Weniger-Kita-Gebuehren-bessere-Betreuung-bundesweit.html>

## 2. 독일 부모들, 더 좋은 보육시설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다고 함

독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좀 더 좋은 보육시설을 원하고, 더 좋은 보육시설을 위해서라면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함. 지난 해 동안 독일에서는 보육시설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어 졌음. 독일에 거주하는 만 3세 부터 5세의 아동들 대부분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만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독일 전체의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보육시설 질적 표준을 원함. 이는 지난 수요일 발표된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Stiftung)이 현재 자녀를 보육시설(유아원,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45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임.

86퍼센트의 부모들이 교사 일 인당 몇 명의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원함. 현재 독일 내에는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음. 베르텔스만 재단은 한 교사 당 만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최대 3명, 그리고 만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최대 7.5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함.

그러나 이런 교사대 아동의 수 비율이 맞는 지역은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지역뿐임. 게다가 동독 지역은 한 교사 당 아동 수의 비율이 두 배나 되기까지 함.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들은 독일 전역에 해당하는 통일적인 교사 대 아동 수 비율의 기준을 요구함.

75퍼센트의 부모들이 직장과 육아를 잘 통합하기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무엇보다도 만 3세 이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부족함을 언급함. 63 퍼센트의 부모들이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해 비판하고, 67 퍼센트의 부모들은 질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다고 지적함.

85 퍼센트의 부모들이 통일적인 교사 양성 과정을 원함. 독일에는 모든 지역에 통하는 통일적인 교사자격 조건은 있지만, 독일 전 지역의 통합적이고 유효한 교육양성 과정은 없음.

90 퍼센트의 부모들이 보육시설이 제대로 인증된 식품영양 기준에 의한 식사를 제공하길 원함. 조사에 의하면 현재 독일 보육시설 중 3분의 1만이 이런 기준에 따른다고 함.

### ■ 보육시설 (Kita) 사용비용: 한 달에 0에서 600유로까지

보육시설 사용비용은 주거지가 어딘지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크게 다름. 한 달 사용비용은 0에서 600유로까지 다양함. 설문에 응한 약 14퍼센트의 부모들이 현재 보육시설 사용비용을 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보육시설 무상지원이 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거나, 특별 혜택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임. 저소득의 이유로 사용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부모는 5%였음.

현재 보육시설 사용비용을 내고 있는 부모들 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사용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함. 특히 저소득이나 중소득층에서 사용비용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 중 3분의 2가 높은 보육시설 사용비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느낀다고 함. 그럼에도 설문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 중 반이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비용을 좀 더 낼 수도 있고, 무상지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함. 게다가 이런 생각을 가진 동독지역의 부모들은 63%에 달함.

2016년 12월 7일

출처: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bertelsmann-studie-eltern-fordern-bundesweite-kita-standards-a-1124414.html>

### 3. 독일 가족부 장관, 독일의 모든 보육시설이 무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혀

독일 사회당(SPD)의 당 부대표이며 현 독일 가족부 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는 세 가지 가족부 핵심 계획을 내세워 다음 총선을 맞이하려 함. 세 가지 핵심 계획

중 하나는 독일 전 지역의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슈베지히 장관은 “자부뤼크너 짜이퉁 (Saarbrückner Zeitung: 자부뤼켄 신문)”을 통해 “우리는 독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 하며, 이 시간을 위해 가족수당 (Familiengeld)이 지원될 것이다,”라고 말함.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저소득 가정들이 어린이집 사용 비용으로 가정 제정에 큰 부담을 받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무소득 가정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무소득 가정의 경우는 어린이집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설명하였음.

이를 통해 그는 보육시설 사용 시 무상지원 외에도 세금정산 시 자녀 관련 부분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이런 세금 혜택은 혼인상태의 부모들만이 아닌 여러 다양한 다른 형태의 가족구조에도 해당 되어야 한다고 함.

2016년 12월 27일

출처: /www.epochtimes.de/politik/deutschland/schwesig-alle-kitas-in-deutschland-sollen-gebuehrenfrei-werden-a2009808.html

##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 구 동독의 보육시설들은 질 보다 양 (교사 대 아동 비율 관점에서)

독일의 보육시설의 질은 지방 자치정부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독-동독 간의 차이는 매우 큼.

많은 독일 내의 연구자들은 열악한 보육환경의 어린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영유아들이 교육적 자극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의해 잘 돌보아 지고, 교육적 환경에서 또래 영유아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 진다고 보고함.

그러나 보육시설이 ‘아동방임’의 장소인지, 아니면 ‘아동발달’을 위한 장소인지는 독일 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베르텔스만(Bertelsmann) 재단의 영유아 교육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주정부 모니터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독일 내 보육의 질은 전체적으로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정부간의 차이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함.

베르텔스만 재단은 보육시설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고용 상태를 조사함.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는, 3세 이하 영아들의 경우 교사 1인 당 최대 3명의 영아, 3-6세 유아의 경우, 교사 1인 당 7.5명 유아로 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 구성된 환경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된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전함.

그러나 독일은 현실적으로, 평균 3세 이하 영아의 경우, 교사 1인 당 4.3 명의 영아를, 그리고 3-6세 유아의 경우, 교사 1인 당 9.3명의 유아를 돌보고 있는 상황임. 이는 2012년의 연구결과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교사가 많은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실정임.

서독 지역이 보육교사 처우 면에서 훨씬 좋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주정부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의 경우, 교사 1인이 3세 이하의 영아 3명을 돌보는 것에 반해, 작센 (Sachsen)에서는 6.4명에 이르고, 유치원의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교사 1인 당 7.3명의 유아를 돌보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erg-Vorpommern)에서는 교사 1인당 무려 14.1명의 유아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몇 해 전, 연구 결과에서도 동-서독 지방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독의 경우, 3세 이하의 영아들의 4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그러나 서독 지방의 3세 이하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이 지난 몇 년간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세 이하 영아들의 약 25%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서독 지방의 경우 현저히 더 낮은 수준임. 서독 지방의 교사 1인 당 3세 이하의 영아 평균 3.6명을 돌보는 반면, 동독의 경우 6.1명에 달한다고 함.

동-서독 간의 차이는 역사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 법에 의한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베를틀스만스 재단의 프로젝트 팀장인 카트린 북-파물라 (Kathrin Bock-Famulla)씨는 주장함. “구 동독에는 보육시설의 개소 수가 많으나 보육교사들이 주로 대그룹활동에 역점을 두었다면, 서독에서는 영유아 개개인의 발전에 중점을 둔다. 이런 차이는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주 정부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연방 정부의 표준(기준)은 없지만, 동독이나 서독의 유아들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필수가 됨.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동서독간의 차이가 있으며, 동독의 경우 교사 1인 당 유아 12.3명인 것에 반면 서독은 교사 1인당 유아 8.6명으로 구성.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직 중인 교사의 명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현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실제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봄. 교사 대부분이 근무 시간의 1/4을 팀 회의 또는 부모상담, 문서기록, 세미나 등에 쓰기 때문에, 연장보육에 필요한 안전업무와 기본적인 영유아 교육보육에 필요한 시간을 뺏기는 상황으로 나타남.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의 한 교사가 근무시간의 1/3을 다른 업

무에 쓸 경우를 계산해 보면, 교사 1인 당 21명의 아동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며, 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 교육보육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됨.

현재, 독일은 10만 7천명의 전문 보육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4.8천억 유로가 필요함. 연방정부 가족부에는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주정부-지방-노동단체를 결성했으며, 이 단체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임. 2016년 11월에 첫 번째 업무 진행 보고가 있을 예정. 보육시설 경영에 관한 것은 주로 지방 관할이지만, 주정부 또한 최근 보육시설 증축이라든가 투자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017년 정부 예산안과 2020년까지의 재정플랜을 살펴보면, 각 지역 정부마다 1.1천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가정보육수당(Betreuungsgeld: 베틀로이웅스 겔트)의 철회로 약 2천억 또한 지역정부에 흡수된다. 보육시설의 질은 향상되겠지만, 아직도 향상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가족부 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씨는 베르틀만스 재단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영유아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든 최적의 보육, 교육을 누리야 하며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들이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에 관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함.

2016년 6월 28일

출처: <http://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56650737/In-ostdeutschen-Kita-herrscht-Masse-statt-Klasse.html>

## 2. 독일 내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최고치에 도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72만 1천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공식적 놀이방 또는 돌보미에 의해 돌보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3월에 집계된 보육시설 이용 또는 돌보미에 의한 보육을 받는 3세 이하 영유아의 수는 72만 1천명에 달하였는데, 이 중 61만 4천명의 영유아는 보육시설에서 10만 7천명의 영유아는 돌보미에 의해 보육되고 있음. 2007년부터 통계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고치에 달한다고 통계청은 보고하였음.

지난해와 비교하여 2만 6천명 (3,7%)의 영유아가 증가하였음. 한편 2007년 이후 증가율면에서는 가장 미약한 해이기도 함.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7~2010년 기간이었으며, 2013년 8월에 도입된 1세 이상의 모든 영아가 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에 관한 법 이후로

2014년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음. 가정 내 보육비 지원 (Betreuungsgeld)의 무효화로 증가된 부모수당(Elterngeld: Parental Benefit) 플러스 (Elterngeld Plus)의 도입이 올 해 보육시설 사용 증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사되지 않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는 서독에 비하여 동독이 특히 높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신이 직접 돌보지 않을 경우 자녀를 유보시설 (유치원/어린이집: 85%)에 맡기게 됨. 독일은 현재 50만 4천 823개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2016년 0.5% 증가하였음. 반면 가정 내 돌보미의 수는 1.4% 감소한 총 4만 3천명에 달함.

2016년 7월 21일

출처: <http://www.derwesten.de/politik/rekord-bei-der-zahl-der-kita-kinder-in-deutschland-id12027628.html>

### 3. 뮌헨시,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라는 소송에서 가족에게 유리한 판결 예정

독일의 보육시설에서 3세 미만의 영유아 70만 명 이상이 돌보아지고 있음.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않다는 것을 이번 바이어른 주 행정재판소 (Bayerischer Verwaltungsgerichtshof)의 판결이 보여주고 있음. 이 판결로 인해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후폭풍이 예상됨.

켈른에서 뮌헨으로 이사 온 영유아 자녀를 둔 한 가족의 사례를 살펴봄. 그들은 아들이 다닐 만한 보육시설을 찾았으나 마음에 드는 뮌헨 시의 공공 보육시설은 없었고, 아들을 사립 보육 시설에 등록하였는데 그곳은 고급 보육시설이었다고 함. 고급 보육시설의 영유아들은 2개 언어 (독일어, 영어)로 보육되는 것 뿐 만 아니라, 어린이 요가와 댄스 수업 등의 특별활동을 하며 비용은 한 달에 1380유로로 매우 비싼 수준이었음. 뮌헨시의 공공 보육시설의 비용은 최대 400유로임.

그러나 소송 가족은 자녀의 보육시설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뮌헨시의 지자체에 사립 고급 보육시설 한 달 비용의 차액인 1000유로를 요구하였음. 바이어른 주 행정재판소의 재판관인 칼-게오르그 마이어(Karl-Georg Mayer) 또한 뮌헨시가 소송 가족에게 적당한 보육시설의 입소 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

이번 판결은 가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번 재판 건은 몇 천 유로에 그치지만, 행정재판소는 이번 건이 앞으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사건이 현재 5건 정도 있음.

위 가족의 상황과 비슷한 부모들이 소송을 걸 경우, 최악의 경우 1천 8백만 유로까지 뮌헨시

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뮌헨시청 교육 및 스포츠 부서장인 수잔네 헤어만 (Susanne Hermann)씨는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혔는데, 이번 판결의 사례를 악용하여 고급 보육시설에 자녀를 다니게 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21일

출처: <http://www.faz.net/aktuell/finanzen/meine-finanzen/geld-ausgeben/muenchen-soll-fuer-luxus-kita-zahlen-14351043.html>

#### 4. 만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 감소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의 권리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조금 감소했으며, 통계전문가들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봄.

독일에는 만 3세 이하 영유아들 중 32.7%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비스바덴에 있는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3월 1일자 기준으로 17만 9천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음. 작년에 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수적으로 2만6천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0.2%정도 감소한 것임.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마음이 없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독일 내 출산율이 증가하고, 난민 수용과 난민의 자녀 출산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통계청이 보고함.

동-서독간의 보육시설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서독에서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평균 28.1%인 반면, 동독은 51.8%에 달함. 서독에서 가장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인 주는 슈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주로 30.9%이며, 라인란드-팔츠 (Rheinland-Pfalz)가 29.9%로 그 다음으로 높으며, 노르트라인-페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주는 25.7%로 가장 낮음.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주는 독일 내에서 가장 높은 57.2퍼센트의 이용률을 보였음.

독일에는 약 5만 5천개의 보육 및 유치원 시설이 있음. 2013년 1월부터 만 1세 이상의 모든 영유아들은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교육전문가들은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의 이후 학업 과정에 커다란 장점을 준다고 강조함.

2016년 9월 28일

출처: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kita-ein-drittel-aller-kleinkinder-hat-einen-platz-a-1114307.html>

#### 5. 보육시설에 교육전문 자문위원 투입 프로젝트 가동

2016년 1월부터 바이어른 주에 있는 보육시설에 81명의 교육전문 자문위원 (PQB)이 투입되

어 활동하고 있음(이 중 60명이 풀타임). 이 「모델 프로젝트」는 영유아 기관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연구 차원의 지원은 유아교육 정부연구소 (Staatsinstitut für Frühpädagogik)에서 담당하고 있음.

### ■ 모델 프로젝트 PQB는 무엇인가?

바이어른 주 영유아기관 (유치원, 유아원 및 어린이집)을 상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질적 향상과 기반을 다지는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함.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교육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시스템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교육 자문위원들은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 투입되어 바이어른 주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계획에 따른 교육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함.

프로젝트는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증시함. 보육시설의 성공적인 교육과정은 교사-영유아 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됨. 교사와 영유아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교육과 발달 증진에 결정적인 변인임.

교육 자문위원들은 이런 이유로 기관의 원장, 원감 및 팀들과 함께하는 대화에 참여하며,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을 제공함. 교육적 질적 향상을 위한 자문은 현재 유치원 및 유아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질문 그리고 주제들에 맞게 이루어짐. 상호작용 시 생기는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됨.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배움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육 실제에서 영유아들이 능동적 참여자가 되도록 하며, 사고와 배움을 자극하는 언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 보육시설들은 어떤 장점을 얻는가?

PQB는 보육시설이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상담과 코칭 과정에서 현재 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발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와 가족들의 다양성에 맞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함. 또한, 상담과 코칭과정을 통해 원장 및 원감의 역할과 각각의 교사 팀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으로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PQB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며,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게 됨. 이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유아시설은 각자의 경험, 성공여부 그리고 부족한 점 등의 의견 제시를 통해 연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요점정리**

- ▶ PQB는 유아기관의 설립기관 및 담당기관과는 독립된 프로젝트임.
- ▷ 프로젝트 참여 여부는 유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PQB는 기관의 원장 및 원감과 교사팀을 위한 상담 및 코칭을 담당함.
- ▷ 모델 프로젝트는 4년간 이루어짐. 프로젝트 기간 동안 참여 기관은 전문가의 방문 지원을 최소 8번 받을 수 있음.
- ▶ 이 프로젝트는 바이어른 주 노동 및 사회, 가족 및 통합부에서 지원함.
- ▷ 유아교육정부기관인 IFP는 프로젝트의 컨셉과 내용을 계획, 구성하며 연구방법과 연구조사를 담당함.

출처:

\* 프로젝트에 관한 일반 문의

- 바이어른 주 노동, 사회 및 가족, 통합부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amilie und Integration), 유아교육 정부연구소 (Staatsinstitut für Frühpädagogik)  
<http://www.stmas.bayern.de/kinderbetreuung/index.php>

\* 전문자문 및 조사연구에 관한 문의:

- 유아교육 정부연구소 (Staatsinstitut für Frühpädagogik: IFP)  
[www.ifp.bayern.de](http://www.ifp.bayern.de)

[http://www.stmas.bayern.de/imperia/md/content/stmas/stmas\\_internet/kinderbetreuung/flyer\\_pqb.pdf](http://www.stmas.bayern.de/imperia/md/content/stmas/stmas_internet/kinderbetreuung/flyer_pqb.pdf)

**6. 보육시설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중앙재판소는 어린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관할 구역에 없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림. 그렇다면 이 판결은 부모나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이프찌히(Leipzig) 출신의 세 명의 엄마들이, 지자체가 아이들을 맡길 시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수입에 손해를 봤다고 칼스루에 (Karlsruhe)에 있는 중앙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 이번 재판에 따르는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독일에서는 2013년부터 만 1세부터 3세의 모든 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중앙재판소는 보육시설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그러나 지자체가 보육시설 증축과 수요에 적당한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또 손해배상 청구자가 이를 충분히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함.

몇 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새로 설립되는 보육시설이 건축사의 파산으로 시설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채용광고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 했을 경우 등임.

■ **지자체가 오랫동안 재정적 문제로 인해 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는가?**

이 질문에 중앙재판소는 아니라고 답함. 중앙재판소는 현존 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어떤 재정적 상황에 있더라도 충분한 보육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 이번 중앙재판소의 판결로 여러 지자체가 압박을 받을지에 관해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명목을 증명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과 독일의 여러 지역들이 보육시설 제공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임. 지난 10년간 독일 내에서는 만 3세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43만 5천개가 증가하였고, 현재 총 72만개에 이룸. 현재 독일에서는 (2016년 3월 1일 기준) 만 3세 이하 유아들 중 32.7%가 가정 외에서 돌봐지고 있고, 2008년에는 17.6%였음. 즉, 보육시설이 증가는 하였지만 계속 증가해야 할 것임. 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 자녀의 부모들 중 44%가 보육시설에 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출산율과 난민아동의 수를 감안하면, 앞으로 10만개의 보육시설이 증가되어야 할 것임.

■ **만약 내가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요하면 소송을 할 수 있음. 소송 시 보육시설에서 받은 거절에 관한 서문으로 된 문서, 보육시설 지원 신청을 제때 했다는 증명서류와 다니기에 적절한 다른 보육시설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가 갖춰져야 함.

■ **다니기에 부적절한 보육시설이란 어떤 것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시설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동 수에 비해 교사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를 말함. 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유아원이 집에서 최고 5킬로미터 또는 30분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함. 풀타임으로 일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중일반에 자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한 라이프찌히 엄마들의 경우는 어떤 문제 때문인가?**

클라우디아 멘셸 (Claudia Menschel)씨와 다른 두 엄마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유아원에 자리를 받지 못했음.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했음.

라이프찌히 시를 상대로 자신의 수입에 기준하여 각각 2500, 4500 그리고 8100유로(한화 약 318만 원, 573만 원, 1,031만 원 (환율 1유로=1,272원 기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중앙재판소에서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결하였음.

2016년 10월 20일

출처: <http://www.spiegel.de/karriere/urteil-vom-bundesgerichtshof-zu-kita-platz-anspruch-was-heisst-das-jetzt-a-1117587.html>

### 7. 3세 이하 영아 중 약 22만 명, 보육시설 이용 못 해

독일의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기관 자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보낼 곳이 없음. 무엇보다도 독일 북부지방은 이 부분에 있어 큰 문제임.

독일 전 지역에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들 중 228,000명이 보육시설에 자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쾰른 독일 경제 연구소 (Kölner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가 연구한 결과로, 라인이슈 포스트 (Rheinische Post)신문이 보도하였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 중 10.4퍼센트의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통한 육아지원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어느 시설에도, 그리고 어느 부모에게도 보내지 못 하는 상황임. 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브레멘 (Bremen)으로 14.2 퍼센트의 영유아들이 입소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 이후로 독일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모들이 아무 보육시설이나 자녀를 보내려 하지 않고, 신뢰가 가는 곳에 보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2016년 12월 30일

출처: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studie-deutschland-fehlen-228-000-betreuungsplaetze-fuer-kleinkinder-14597395.html>

## ❧ 유아교육·보육 교사

### 1. 독일 전체적인 경향 -유치원 원장들이 부분적으로만 유치원 수업활동에서 제외됨

유치원 원장은 유아시기 교육, 보육 시스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2015년 독일 전체 통틀어 약 5만 1천 700명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원장을 맡고 있음.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38%이상이 증가한 것임. 이런 원장 증가 현상은 유아시기에 어린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들과 유아기관 크기의 확장들이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 원장들의 시간 투입을 더 필요하기 때문임.

원장이 수업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관할 주정부마다 다르게 편성되었음.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브레멘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정부의 원장들이 전적으로 원장업무를 보는 경우는 감소했음. 이런 감소는 부분적으로 수업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있다고 봄.

2016년 3월 18일

출처: <http://www.fachkraeftebarometer.de/personal/leitung/>

##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1. 과학교육의 강조 - 어린 과학자들의 집 (Haus der kleinen Forscher)

어린이들은 놀면서 세상을 알아감. 협동재단 “어린 과학자들의 집 (Haus der kleinen Forscher)”은 독일의 가장 큰 유아교육 자치기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수학, 과학 그리고 기술 분야에 흥미를 가지도록 지원함.

아이들은 공을 볼면서 기압에 관한 것을 배우며, 욕조에서 놀며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물을 흘려 담는 것은 순수 물리학의 한 면모인 것임. 어린이들은 실험을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 세상 모두가 실험연구소가 됨.

“어린 과학자들의 집” 재단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상적으로 연구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함.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아이들이 일상에서 간단한 도구로 이행할 수 있는 실험과 연구 아이디어를 담고 있음.

“어린 과학자들의 집” 재단의 파트너로 헬름홀츠(Helmholtz)법인, 지멘스(Siemens) 재단, 디트마 호프(Ditmar Hopp) 재단 그리고 독일 텔레콤(Deutsche Telekom) 재단이 있으며, 독일연방 교육연구부에 의해 지원됨.

이 재단은 독일 전 지역에 230개의 네트워크 파트너와 함께 작업하며, 여기에는 이 교육양성 과정에 참석한 2만 3천개 유치원, 방과 후 수업 기관, 초등학교 교사들이 포함된다. 4천 2백 개의 기관들이 “어린 과학자들의 집”으로서 자격 인정을 받았음.

출처: <https://www.bmbf.de/de/haus-der-kleinen-forscher-79.html>

## 2. 과학교육의 강조 - 유치원 대회 “과학자들의 영혼 2016” 개최

독일의 605개의 유치원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 성과를 가지고 독일 텔레콤 재단과 “어린 과학자들의 집” 재단이 후원하는 유치원 대회 “과학자들의 영혼 2016”에 응시하였음. 6월 1일 주 연방 시상식이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Berlin-Kreuzberg)에서 열리며, 5개의 주정부 우승자가 발표되어 교육부장관과 재단에 의해 시상됨.

2015년 10월 15일에서 2016년 1월 31일 까지 모든 유치원들이 연방 주 내의 대회에 응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독일 텔레콤 재단과 “어린 과학자들의 집”재단이 어린이 들이 유치원 일상생활에서 자연과학, 수학, 기술의 세계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음. 학문연구와 실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이 6백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중 16개의 각 지역 승자를 선별하였음. 지역 승자들에게는 유치원의 자연과학, 수학 또는 기술 분야의 교육을 위한 후원으로 2천 유로가 수여됨.

2016년 4월 11일에서 5월 4일까지 “과학자들의 영혼”의 자동차가 지역 우승을 한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서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적 노고를 치하하였음. 상을 받은 프로젝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www.forschergeist-wettbewerb.de](http://www.forschergeist-wettbewerb.de)).

이 사이트 안에는 프로젝트 사진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직접 시행된 시상에 관한 보고도 있음. 이번 대회를 통해 독일 텔레콤 재단과 “어린 과학자들의 집”재단은 유치원 교사들이 매일 하는 일상적 교육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출처: <https://www.bmbf.de/de/kita-wettbewerb-forschergeist-2016-2869.html>

## ❖ 기타

### 1. 친부모 확인에 관한 권한, 1950년에도 같은 판결이었다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강요할 수 없음. 세 번이나 같은 사례가 재판소에 올려졌고, 세 번 모두 기각되었음. 66세의 한 여성이 있음. 그 여성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했지만, 재판소에서 기각되었음. 그 이유는 그녀의 바람이 다른 이의 기본권리(개인정보)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부재판장인 페르디난트 키르히호프 (Ferdinand Kirchhof)의 설명임.

노르트라인-페스트팔렌 주 출신의 이 여성은 칼스루에 (Karlsruhe)의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

미 1954년 그녀의 어머니가 당시 딸의 친부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기각된 것을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았음. 딸은 2009년에 아버지라 생각되는 남성을 재판을 통해 DNA검사에 응하도록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하였음. 이 남성은 1950년 그녀의 출생 당시 딸의 출생을 동사무소에 등록하였고, 그녀의 시애틀에도 글을 남기기도 했음. 그러나 그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법적 남편과 문제가 있을 때도 상관하지 않았고, 친자 확인에 전혀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그녀는 돈이나, 상속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친자확인만 하고 싶은 것임. 즉 “법적 구속성이 없는 혈통에 관한 증명”만을 원하는 것임.

2011년에 친자권에 관한 주제가 전진적인 방향으로 가는 듯했음.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의 유럽 인권헌법재판소 (EGMR)는 당시 친부가 법적으로 가족 외 인원이어도 자녀가 이를 원할 경우 친자와의 교류가 허락된다고 판결이 났음. 슈트라스부르크에서는 친부가 친자에 관한 권리가 강해진 반면 이번 칼스루에의 판결에 따르면 친자가 친부를 알 권리가 없다는 것임.

66세 이 여성의 애달픈 사연 때문만이 아니라 이번 판결에 의문을 갖게 함. 지난 수년간 독일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조가 생성되었음. 이런 변화에 헌법 또한 상응해야 한다고 봄.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한다면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친부보다 권리가 더 없다는 것임. 현실적인 현대가족의 모습과 동떨어진 판결이라 할 수 밖에 없음. 이런 점에서,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있음.

2016년 4월 19일

출처: <http://www.stern.de/familie/kinder/maenner-duerfen-dna-tests-verweigern-dieses-urteil-ist-so-1950-6802818.html>

## 2. 니콜라스 베르그그루엔(Nikolas Berggruen)의 자녀에 대한 갈망: 대리모 사업

독일에서 니콜라스 베르그그루엔은 칼슈타트 백화점과 연관되어 알려진 인물임. 투자자인 그는 칼슈타트 백화점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게 할 구조자로 크게 명성을 떨쳤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014년 8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말았음.

현재 54세인 그가 이번에는 사적인 부분에서 또 한 번 언론의 관심을 받았음. 뉴욕타임스사의 한 리포터에 의하면 그는 지난 3월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으며, 친모가 누구인냐는 질문에 “내가 바로 엄마이자 아빠다”라고 답했다고 함.

그게 무슨 말인가?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2명의 대리모가 아이들을 출산 하였고, 2개의 난자 기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3주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났다고 베르그그루엔씨는 말했음. 이 두 자녀들은 현재 브렌트우드 (Brentwood)의 자택에서 두 명의

부모에 의해 자라고 있다고 함.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이 독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음. 수정세포보호법에 의해 의사들이 인공수정을 통한 대리모에 의해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대리모를 중개하는 것 또한 입양중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대리모 본인에게 법적징계가 따르거나, 이를 청구한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이 법적징계를 받는 것은 아님. 지난 번 게오르기아(Georgia)의 예를 들어 발표된 기사처럼 이런 법적 조치를 피해 외국에서 대리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비용과 위험부담이 따름.

유럽 내에서는 일관된 규칙이 없음. 2014년 말까지 28개의 유럽연합 국가 중 15개 국가가 대리모를 금지 시키고 있음. 이 중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에서는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대리모의 대중화는 금지시키고 있음. 그 의미는 공식적으로 대리모를 찾는다면 아이를 대신 출산 하는 데에 대한 지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어느 나라에서 대리모가 합법적인 사업인가? 미국의 몇몇 연방국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인도 그리고 동유럽 국가 중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합법적임. 이 국가들에는 “디 자이트(Die Zeit)” 주간 신문에 의하면 에이전시가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과 불임클리닉 그리고 대리모를 서로 중개 해 준다고 함. 에이전시는 인공수정에서 아이의 출생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동반하고 법 관련 업무를 해결한다고 함.

한 아이 당 대리모는 얼마나 드는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음. 게오르기아의 경우 가장 저렴한 전체 상품이 2만 9천 달러이며, 이는 난자기증을 뺀 순수 대리모에 드는 비용임. 가장 비싼 것은 5만 8천 3백 달러인데, 여기에는 두 명의 대리모, 난자기증과 두 개의 임신증명까지 포함되어 있음.

니콜라스 베르그그구엔씨의 경우는 얼마가 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음. 아마도 몇 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자이트 주간지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체상품”을 원할 경우 대략 백만 달러가 들고 우크라이나에서는 3만 달러 그리고 인도에서는 5천에서 1만 달러가 든다고 함. 이 중 10에서 30퍼센트는 대리모가 받는다고 함.

이런 이유로 인도에서는 대리모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매 년 대략 20억 달러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다고 함. 다른 나라의 경우 통계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임.

독일에서는 자녀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어떤 위험부담이 있나? 외무부에서 “독일에서는 아이의 엄마로서의 권리가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주어지며, 자녀를 원하여 이를 청구한 여성

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함.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독일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독일국적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여권이 없을 경우 독일로 아이를 데려 올 수 없다,”고 주장함.

이런 문제 또한 다른 해결책이 있음. 대리모가 미혼이 경우, 어떤 한 남자가 자동적으로 아이의 아빠일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대리모를 청구한 남자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확인한 후 친자관계를 증명하면 됨. 이를 통해 그 아이는 독일 여권을 취득할 수 있음. 그 후 대리모를 청구한 여성 즉 친자의 파트너가 그 아이를 입양하면 됨.

이런 이유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의 법적 결정에 따라 아이를 원하는 독일 부모들이 합법적으로 친권을 획득했다면 이를 독일에서도 인정해 주기로 결정 되었음. 단 한 가지 조건은 적어도 두 부모 중 한 명이 유전적으로 아이와 일치하여야 하며, 대리모와는 일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2016년 4월 25일

출처: <http://www.spiegel.de/panorama/gesellschaft/nicolas-berggruen-leihmuetter-in-kalifornien-bringen-kinder-zur-welt-a-1089090.html>

### 3. 독일 헌법재판소, 이슬람 교사에게 유치원에서 이슬람 두건 착용을 허용

독일 헌법재판소는 무슬림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이반되기 때문임.

독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옷차림으로 인해 종교 전달이나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 공공유치원에서 일하는 무슬림 여교사에게 히잡 착용을 허용하였음.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임.

이미 2015년에 노르트라인 페스트팔렌주 (Nordrhein-Westfalen)의 한 공립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무슬림 여교사에게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번 판례는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주의 지자체 유치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무슬림 출신 교사의 경우임. 고용주는 히잡 착용을 금지 시켰고, 이 교사는 종교적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고용주는 당시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법에 따라 교사에게 경고를 내렸음. 고용주의 입장은 유치원에서 종사하는 교사는 특정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되며, 중립적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음. 에어프루트 (Erfurt)에 위치한 독일연방노동청 (BAG)은 고용주가 교사에게 내린 경고는 타당하다고 보았음. 이 무슬림 교사는 의식적으로 장기간동안 고용주의 히잡착용 금지를 무시하였다는 것임. 또한, 이슬람의 히잡은 종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히잡을 착용

한다는 것은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중립적 자세에 어긋난다고 여겨졌음.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봄. 지금까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법에 의해 그가 가진 종교적 자유가 피해를 보았다는 것임. 이 무슬림 출신 교사는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유치원내 평화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히잡을 착용했을 뿐이라는 것임. 어떤 잠재적인 위험만으로 무언가를 금지를 시킬 수는 없다고 함. 히잡을 착용한다는 것만으로 특정 종교와 연관된 국가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의 히잡은 독일에서는 일반적이고 흔한 일상이며,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말함.

2016년 11월 28일

출처: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urteil-erzieherin-darf-in-kita-kopftuch-tragen-14550138.html>

## 스웨덴

### ❖ 일·가정 양립

#### 1. 직장에서 남성들이 받는 불이익

지난 월요일, 라디오 채널 “P1-morgon”은 지난 가을,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한 남성이 전체의 10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상기시켰음. 말뫼 대학의 학과목 코디네이터인 맛츠 올슨은 그가 학생이던 70년대에는 ‘90년대 이후로는 성비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되곤 했다고 말함.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 맛츠 올슨은 “유아 교육현장에서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3-4퍼센트에 머무릅니다. 이는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실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말함.

일상적으로, 위와 같은 언급에는 전형적인 보수적 반론이 제기됨. 어떠한 직장에 동수의 남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성불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종류의) 다른 선택을 하곤 함. 그러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음. 성평등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일 뿐, 사람들의 선택이 반드시 남녀동수로 귀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가 없음. 심지어 유아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남성들도 직업으로 이를 선택하기를 기피하는데 이는 (남성으로서) 유아교사에 찍혀져 있는 낙인 때문임.

직업으로써 유아 교사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름. 범죄전력조회가 강력한 사전 요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성애자인지와 같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함. 라디오 프로그램은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직업으로 유아 교사를 택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만두는 비율도 더 높음을 지적하고 있음. 맛츠 올슨은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가 그들의 자신감을 잠식시키는지” 말함. 한 유아교육기관 원장은 젊은 남성들이 유아 교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대하게 되는 반응들을 묘사했는데 이는 “그 많은 걸 두고 왜 이걸 직업으로 할 생각을 했어?”와 같은 것들임. 아마도 유리천정을 깨려고 했던 여성들도 “너희들을 위한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일은 아니야”와 같은 반응들을 접했을 것임.

우리는 종종 -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듯이 -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함. 그러나 남성이 명백히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의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아교육현

장이 그러함. 개개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와 전적으로 유리된 요인들로 인해 제약을 받음. 또한 아이들이 지내는 유아교육 현장은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여건에 놓이게 됨. 이것은 이중 손실임 - 성불평등 문제가 종종 그러하듯이.

2016년 4월 18일

출처: <http://www.dn.se/ledare/signerat/amanda-bjorkman-man-missgynnas-pa-jobbet/>

## 2. 스웨덴 어머니들은 탄력근무제, 근무시간대의 조정을 원한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다니고 있는 어머니들 10명 중 6명은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음.

Jusek(사무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소피아 라르센은 “부모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의 경력개발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여성에게 더 공평한 연금을 지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라고 주장함.

LO(평노동조합) 가입자들의 경우, 업무는 거의 탄력적이지 않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다수의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함. 그러나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군의 경우, 주어진 업무가 제대로 마무리 되는 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훨씬 적음.

1000여명의 Jusek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탄력근무제는 매우 중요함. Jusek의 85,000 회원들은 법조인, 경제인, 컴퓨터 공학자, 인사업무팀, 커뮤니케이션팀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인데,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Jusek 여성 회원 중 78퍼센트는 근무시간을 조정/결정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이보다 더 높은 81퍼센트는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이는 직장 뿐 아니라 집 혹은 직장 외부의 장소에서도 일할 수 있음을 일컬음. 같은 질문에 대한 남성들의 응답은 각각 77퍼센트와 82퍼센트였음. 또한, 10명 중 6명의 여성은 탄력근무가 가능하지 않다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아버지들 중에서는 10명 중 4명이 그러할 것이라고 답했음.

소피아 라르센은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하며, “탄력근무제가 종종 여성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탄력근무제는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경우 위기를 수반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높은 업무강도를 경험합니다”라고 덧붙임.

전체 여성들 중 34퍼센트가 업무강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들 중 22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함. 탄력근무제는 업무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부 중) 한 명만이 탄력근무제를 할 때에 그러함. 높은 비율의 여성들이 자녀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아픈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하였음.

Jusek의 조합장은 만약 부모 모두가 탄력근무를 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더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대사회의 부모친화적 직장에서는 고용인들에게 탄력근무제를 지원한다”고 주장함.

2016년 9월 19일

출처: <http://www.dn.se/arkiv/ekonomi/mammor-vill-ha-flexibel-arbetsstid/>

### 3.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들도 종일반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지난 2016년 12월 12일, 시의회에서는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자녀들의 유치원 종일반 등록에 관한 공식 결정이 내려졌음. 이 수정안은 반대파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음. 이 수정안을 이끈 재정위원 카린 완고드는, 예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질의 유치원이 어떻게 이후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종일반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수정안은 반대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반대파는 아동과밀화 및 인력부족을 경고했음. 반대파 수장인 로타 에드홀름은 “수정안에는 아동에 관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력적인 귀가시간을 포함한 부모의 권리만이 고려되어 있을 뿐, 어떻게 아동이 양질의 유치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을 당시 추가예산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톡홀름 지역에서는 교사의 인력부족이 점점 더 확산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현재,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가 더 어린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아동은 1주일에 30시간의 유치원 등록이 가능하고, 이는 법령이 정한 최소 시간인 15시간의 2배에 해당함.

2016년 12월 13일

출처: <http://www.dn.se/sthlm/barn-till-foraldralediga-far-heltid-pa-forskola/>

## ☞ 양육지원

### 1. 보수정당의 신규 이주민에 대한 부모양육지원 제한

보수정당은 지원산출 근거 소득이 없는 신규 이주민들의 부모 양육 지원을 12개월로 제한하려고 함.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수정당의 경제대변인 울프 크리스터 페터슨이 언급함.

이와 동시에, 보수정당은 기초수급지원을 받는 가정 아동들의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는 부모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임. 이 제안은 지원산출 근거 소득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 즉, 원거주자 중에서도 학생이나 미취업자들과 같이 지원산출 근거 소득이 없는 이들은 12개월의 부모양육지원만을 받게 됨. 현재는 누구나 16개월의 부모양육지원을 받고 있음. 이 제안은 11억 크로나(한화 1500억원)상당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부모양육지원 변경과 더불어, 비용절감을 위해 보수정당은 지원 상한선을 지정할 것을 제안함. 최저 임금(18,000 크로나/한화 240만원)의 75%와 거주지원비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보수정당에 의하면 지원상한선에 적용에 해당하는 인원은 20만명이 약간 넘을 것으로 추산함. 그러나 그 중 수천 가구의 가정만이 실제로 상기의 상한선을 넘는 지원을 받고 있음.

2016년 8월 23일

출처: <http://www.dn.se/nyheter/sverige/m-vill-begransa-foraldrapenningen/>

##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스톡홀름 자치주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임. 재검토의 원인은 자치주 내 취약 지역에 위치한 아동건강센터가 문을 닫았거나, 혹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임.

현재, 모든 아동건강센터는 방문자수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금년 말까지, 1차 진료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는 형평성을 더욱 고려하도록 변경되는데, 여기에는 이용자들의 연령과 요구사항이 더 크게 반영됨.

“우리는 1차 진료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을 수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의회가 사회경제적 조건을 더욱 고려한 모델을 고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자치주의 아동/노인 의원회 의원인 엘라 보홀린(Ella Bohlin)은 말했다.

건강/보건국은 이제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검토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2016년 3월 31일

출처: <http://www.dn.se/sthlm/barnavardscentraler-kan-fa-mer-pengar/>

##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 신규 기준이 그룹별 아동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

1세에서 3세 아동을 위한 그룹별 아동 수의 신규 기준이 6명에서 12명으로 정해졌음. 4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기준은 9명에서 15명임.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룹별 아동 수 신규 기준 및 이를 위한 지침서는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

#### ■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의 중요성

신규 기준 및 교육부 지침서는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함. 지침서는 자치단체 및 유치원 기관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동의 안전 및 교육 관련사항을 개선하고 적정수준의 그룹별 아동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지침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유치원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또한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제공함. 지침서는 또한 아동의 요구, 교직원 역량,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리고 환경구성을 기초로 하여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포함하고 있음.

#### ■ 과밀한 아동 그룹이 아동의 안정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신규 기준은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음. 관련 연구들이 몇 명의 아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특정한 숫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기준은 (특정 숫자가 아닌) 범위로써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관련 연구들은 유치원 교직원들이 종종 그룹별 아동 수가 과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유치원에서 과밀그룹에 있었던 아동들이

차후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더 많은 갈등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중요한 사항이며, 과밀 그룹은 그 자체로 어려운 문제로 이는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 수록 더 큰 문제임. 아동이 과밀 그룹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수의 아동 및 성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동의 안정감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신규 기준과 지침서에 관한 추가정보

그룹별 아동 수에 관한 신규 기준은 정부를 대리하여 제정되었음. 신규 기준 제정은 취학 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일반권고사항 중 하나였음. 신규 기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적절한 그룹별 아동 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 될 것임. 동시에, 새로운 지침서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원 기관장들에게 유치원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공함. 교육부는 봄에 유치원 기관장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그룹별 아동 수에 관한 통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그룹별 아동 수는 평균 16.9명이었음. 평균 그룹별 아동 수는 2003년부터 16.7명에서 17.2명 사이에서 변동되어 왔음. 3세 이하 아동의 경우 평균 그룹별 아동 수는 13.6명이며, 이러한 통계는 4~5세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그룹별 아동 수를 보여주는 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2015년 통계는 2016년 4월 12일에 발표 예정임.

2016년 2월 12일

출처: <http://www.skolverket.se/om-skolverket/press/pressmeddelanden/2016/pressmeddelanden-2016-1.244816/nya-riktmarken-ska-bidra-till-mindre-barngrupper-1.245981>

## 2. 경고 -어린 영아가 보육기관에 입소해서는 안된다

1세 미만의 영아는 부모와 분리되었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함. 노르웨이 정부가 영유아보육기관의 연령 하한선을 낮추자 Trine Klette 교수는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고를 보냈음.

노르웨이 당국의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더 많은 수의 만 1세 미만 영아들이 보육기관에 가게 될 것임. 지난 규정은 당해 8월 31일 출생 영아까지 다음 해 8월 기준으로 보육기관의 입소 지원을 허용하는데, 신규 규정은 9월 및 10월 출생 영아까지 포함하게 됨.

Diakonova 대학 Klette 교수는 이를 우려하며 이는 아동에게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오늘날 우리는 어린 영아들에게 안정감과 지속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호자

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린 영아들에게까지 보육기관 입소가 허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나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lette 교수는 이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음. 현재에도 만 1세 영아와 그들의 보육기관 입소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저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동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Stavanger 대학병원의 특수교육 담당자인 Elisabeth Förland 역시 위의 발언을 지지함. Elisabeth Förland는 어린 영아들이 보육기관에 입소하게 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언급함. “아동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얼마나 오랜 시간 떨어져 있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지식부 장관 Torbjørn Røe Isaksen을 책임자로 하고 있음. 그는 자녀가 보육기관에 입소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함.

2016년 5월 17일

출처: <http://www.expressen.se/nyheter/varningen-sma-barn-ska-inte-borja-forskola/>

### 3. 육아휴직 가구 형제자매들의 보육기관 종일반에 대한 권리

2016년 겨울부터 스톡홀름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들도 보육기관 종일반에 등원할 수 있게 됨. 5천여 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이 제안은 기관들의 과밀화 및 인력부족을 경감하며 비판을 받기도 함.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영유아들 중, 더 어린 형제자매가 있어 육아휴직 낸 부모들의 영유아들은 1주일에 30시간까지 보육기관에 등원할 수 있게 됨. 이는 교육법령에서 제정한 최소 시간인 주당 15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임.

이 새로운 제안에서는, 이러한 영유아들도 종일반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인력확충의 필요성 및 보육기관의 과밀화를 수반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 8월말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었음.

이 제안을 이끌고 있는 재정 시장 카린 완고드는 “우리는 양질의 보육기관 경험이 어떻게 영유아의 이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안에서 강조

하는 바와 같이,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기관 종일반 등원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함.

관련 부처에서는 신규제안에 해당되는 영유아는 5천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이는 보육기관 당 4명의 아동, 혹은 보육기관 내 각 연령 집단 당 1명의 영유아라고 할 수 있음. 카린 완고드는 “우리는 커다란 인력충원 없이 현재의 인원으로도 (증가하게 될 영유아 인원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함.

현재 외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이 계획은 보육기관 및 시의회로부터 인력충원, 고비용, 그리고 보육기관의 과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신랄한 지적을 받고 있음. 시의회 야당 대표인 로타 에드홀름은 신규 제안이 “재정 미확보 상태이며 매우 걱정스러운” 제안이라고 주장함. 그녀는 “이 제안에 영유아의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력적 등/하원을 포함한 부모의 권리만이 고려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양질의 보육기관(에의 접근)이라는 아동의 권리를 신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신규 제안이 발의된 이번 가을에는 어떠한 추가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스톡홀름 전반에 걸쳐 교사 수도 매우 부족합니다.”라고 말했음.

하지만 세 자녀의 어머니인 캐롤린 란은 신규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 그녀가 집에서 4개월 된 쌍둥이를 보살피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 3세인 큰 딸은 보육기관에 등원함. 이와 같이, 여러 자녀들의 모유수유와 등하원 지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그녀에 의하면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와 아이들의 아빠 모두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곧 교대로 직장에 복귀할 것입니다. 보육기관에 모유수유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크게 울어대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그리고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하면서 노느라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도 모두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라고 함. 이 신규 제안에 대한 결정은 12월 12일 지방자치의회에서 내려질 예정임.

2016년 9월 12일

출처: <http://www.dn.se/sthlm/syskon-far-ratt-till-heltid-pa-forskolan/>

#### 4. 육아휴직 부모 자녀의 종일반 등록에 대한 의견(1)

##### ■ 재정 압박과 교사 수급 및 양질의 교육 활동 저해

2017년부터 스톡홀름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들도 보육기관 종일반에 등록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실행할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은 준비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외부 자문도 이에 회의적임.

스톡홀름 자치회 집권여당의 제안은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킴. 이 제안은 더 어린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부모의 아동들도 현재와 같이 주당 30시간이 아닌, 보육기관의 종일반에 등록하게 됨을 의미하며, 5000여명의 아동이 이 제안에 영향을 받게 됨.

추계 자문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비용 증가와 인력수급 압박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한 자치단체 위원회는 “아동이 보육기관에 추가로 머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이미 신규고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교사들이 시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적절한 시간계획의 수립은 양질의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라고 주장함. 사립 보육기관들도 이러한 제안은 월권행사라며 비난하고 있음. 사립 보육기관 협회는 “사립 보육기관은 국가규정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자치회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아동의 보육기관 사용 시간을 주당 1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회가 40시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음. 시의회 야당 대표 안나는 제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음. 그녀는 “재정위원 카린은 유치원을 방문해 보기는 한 겁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인력충원의 어려움, 아동집단의 과밀화, (교사들의) 병가의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하지만 스톡홀름 자치회 집권여당은 요지부동임. 재정위원 카린은 “정의/공정 페이소스(pathos)”에 따르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제안은 보육기관과 관련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보육기관 생활이 매우 중요한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동이 종일반에 등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사안입니다”라고 함. 카린은 또한 “보육기관 인력들이 이 제안의 실행이 매우 어렵고 인력충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가족계획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말함.

그렇다면 왜 이 제안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것일까? 카린은 “우리는 보육기관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금액을 1.4% 증가시켰고, 보육교사 양성 교육에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톡홀름에 이로운 일이므로 만약 필요하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함. 이 제안에 대한 지방자치 의회의 결정은 오는 12월 12일에 내려질 것임.

2016년 10월 20일

출처: <http://www.dn.se/sthlm/heltid-pa-forskola-doms-ut-i-remissvar/>

## 5. 육아휴직 부모 자녀의 종일반 등록에 대한 의견(2)

### ■ 게으른 부모를 위한 아기 돌봄 서비스

국민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권, 그러나 관련 인력들의 업무환경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감소에 대한 무배려. 언제부터 스톡홀름이 여당만을 위한 정치무대였던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모든 스웨덴 부모의 아동들은 주당 15시간의 보육기관 입소를 보장받음. 이를 통해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교육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지난 기사에서 스톡홀름 자치회 집권여당이 이를 주당 40시간까지 연장시키려 함이 보도되었음. 야당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음. 야당 대표 안나는 보육기관 일선에서 “신규인력 채용은 거의 불가능하며, 아동집단은 과밀화되어 가고, 교사의 병기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대화가 오고감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다른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고 교원조합의 주장도 이와 같음. 그러나 집권여당측 인사인 (재정위원) 카린은 요지부동이며, “이 제안은 보육기관 관련하여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함.

물론 부모가 영유아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 더 많은 것을 계획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며, 영유아들은 대체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양질의 보살핌을 받을 것임. 그러나 문제점들 역시 있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실은 부모들의 삶을 계획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측면임. 아동 보육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부모 중) 누가 일하고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것이고, 부모가 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됨. 특히 보육기관은 아동 1인당 평균 비용으로 13만 크로나 (한화 1,650만원 상당)를 부과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함. 이 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은 세금으로 충당됨.

물론 카린이 지적하듯이 영유아가 보육기관에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한다는 점에는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하게 종일반에서 지낼 권리를 갖는다거나 혹은 실제로 그렇게 종일을 보육기관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어린 영유아들에게 8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며, 이는 심지어 학령기 아동의 평균 1일 학습 시간을 넘어섬. 영유아들이 부모의 결정을 잘 따르는 하지만, 그들이 학령기 아동보다 더 많은 교육활동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세금은 유한 자원이며, 아동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부모를 위한 저가의 베이비시터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됨.

2016년 10월 24일

출처: <http://www.dn.se/arkiv/ledare/barnvakt-at-lata-foraldrar/>

## 6. 정부지원과 유치원의 학급 당 아동 수 준수 간 연계 강화

2016년 12월 22일, 스웨덴 정부는 유치원에서 학급 당 인원수 감축을 위해 제정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아동 수 기준 준수를 위해 유치원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함.

2015/16 학년도부터, 유치원 원장들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이 정부지원 금액은 매년 총 8억 3천만 크로나 (한화 약 1100억 원 수준)에 이룸.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브 프리돌린은 교원소식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지원을 교육부의 기준과 더 밀접하게 연계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고, 그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졌음. 이제 유치원 원장들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교육부의 기준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만 함. 이에 대해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어떻게 인원수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또한, 원장들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모니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야 할 것임.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브 프리돌린은 “양질의 유치원 교육은 이후 학령기의 학업성취를 개선 시킵니다. 그러나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과밀해지면, 교육적인 내용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부지원이 시작되면, 열악한 지역 내 유치원들은 혜택을 받게 됨.

2016년 12월 22일

출처: <http://laramastidning.se/statsbidrag-knyts-hardare-mot-riktmarken-for-barngrupper-i-forskolan/>

## ❖ 유아교육·보육 교사

### 1.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남성들의 학업 중단

스웨덴 지방자치 연합(SKL)은 남성이 유아교육을 전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미래 인력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함. 그러나 유아교육을 전공하기 시작한 남성 중 약 1/4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신규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소개된 이후, 스웨덴 고등교육기구(UKÄ)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남학생들의 비율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결과에 의하면, 유아교사 양성과정을 시작한 남성 중 26%가 초반에 학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유아교사 양성과정 학생들 중 총 16%가 초반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이내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2만여 명의 정규직 교사를 필요로 할 것임을 고려할 때, 장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70,700여명이 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스웨덴 교육부는 39,100명이 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약 3만여 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스웨덴 지방자치 연합에서 실시한 2012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15~24세의 남성 10명 중 4명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장래 직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 지방자치 연합의 엘사 맞슨은 “그러나 이러한 응답을 했던 남성들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인력수급과 정의적인 관점에서, 왜 남성들이 본인이 원했던 직업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전함. 엘사 맞슨은 남성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은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자 보다는 하나의 성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여겨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일부라고 여겨진다고 밝힘.

말뫼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교수인 맞츠 올슨은 남성의 학업중단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음. 그는 “일정 수준의 학업중단은 예상 가능하다. 학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곧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직업군을 선택했다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상당수의 남성들이 직장 문화로 인해 그만두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유아교육 업무(현장)에 투입된 남성들은 그들이 일정 부분 남성성을 대표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남성들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택한 것으로, 여성과 같은 조건과 방식으로 유아교육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음. 맞츠 올슨은 또한 남성들이 소아성애자로 의심받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학업중단에 영향을 요소가 되는 것으로 전했음.

교원조합 말뫼 지부장이자 유아교육 교사인 로인 셸린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단순히 많은 남성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것 보다, 남녀를 불문하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음.

2016년 6월 23일

출처: [www.lararnasnyheter.se/forskolan/2016/06/23/mannen-flyr-utbildningen](http://www.lararnasnyheter.se/forskolan/2016/06/23/mannen-flyr-utbildningen)

##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1. 교육의 질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유치원과 방과 후 케어센터 커리큘럼 개편 및 지침 부여

스웨덴 정부는 유치원 및 방과 후 케어센터의 커리큘럼을 개편할 것으로 결정함. 교육의 질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결정된 것으로, 개편의 다양한 이유 중 하나는 교육심사관들이 일부 활동의 잘못된 점들을 보고하였기 때문임. 잘못된 활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활동지침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음. 개편될 활동지침서에는 유치원 및 방과 후 케어센터의 목표, 임무, 활동/교육 내용이 더 자세히 명확하게 명시될 예정임.

“양질의 방과 후 케어센터는 우수한 방식으로 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커리큘럼은 명확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기관장들은 아동에 대한 책임이 기관운영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성명에서 이와 같이 전함.

교원조합장 오스트란드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지침서 개편만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의 목적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교사들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센터는 많은 수의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교사 인력 확충을 요구하였음.

2016년 5월 12일

출처: <http://www.lararnasnyheter.se/lararnas-tidning/2016/05/12/forskoleklass-fritids-far-tydligare-roller>

### 2. 음악이 주는 효과

유치원 교사이자 교육자인 샬롯 레이네클라우데스는 “P2 World 채널(라디오 채널)”이 어떻게 보육기관 내 제일 나이가 많은 아동들의 창의성을 증진시켰는지, 집단 내의 분위기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설명하였음.

그녀에 의하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마지막 해, 아동들은 매우 경쟁적이고 시끄러우며 상당히 무료해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하지 않음. 그녀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소음 수준이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P2 World” 채널을 보육·교육을 하는 동안 틀어놓았고, 아동들이 유치원 어디에 있던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들릴 수 있도록 라디오 소리를 조절하였음. 라디오를 통해 유치원에서는 하루 종일 배경음악이 흘러나왔고, 이것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백파이프 음악이 나올 때, 교사와 아동들은 스코틀랜드와 백파이프, 켈트(스코틀랜드 전통 격자무늬 치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동들은 스스로 백파이프와 켈트를 만들기도 함. 교사와 아동들은 악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음. “하프가 어떻게 생겼지? 하프는 어떤 소리가 나지? 하프를 연주하는 아이가 나오는 영화를 찾아보면 어떨까?”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음.

음악은 아동의 놀이에도 영향을 미쳤음. 아동들은 숲으로 게임을 하러 갈 때, 악기를 함께 가지고 나갔음. 많은 아이들이 춤을 추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때때로 걷는 대신 춤을 추기도 하였음. 또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조차 힘들어했던 아동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집단 내에서 아무도 서로를 놀리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레이네클라우데스는 “그들은 음악을 느끼고, 눈을 감고, 춤을 추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은 붕 떠다니한다고 느끼며 갑자기 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아이들은 새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함.

“P2 World” 채널은 매우 다양한 국가의 음악을 다루기 때문에 아동들의 경험을 넓혀줌. 아동들은 여러 음악과 소리를 바탕으로 백댄서가 되고, 서커스 팀도 만들었으며,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 함께 연주했고, 서로 흉내 내어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악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함.

그녀는 “양질의 스피커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큰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잘 퍼져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음악은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음악은 주 1회, 혹은 누군가가 아플 때에 강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함.

2016년 11월 18일

출처: <http://www.lararnasnyheter.se/forskolan/2016/11/18/tog-hjalp-varldsmusiken>

## ❖ 기타

### 1. 아이들의 생각을 경청하라

아이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 생물학적 다양성과 지속(개발)가능한 미래에 관한 아동들의 의미구성에 관한 한 학위논문에서 이러한 점을 보였음. 이 논문은 아동들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법에 관심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유용할 것임. 또한 이 논문은 어떻게 교사들이 아동의 심도 있는 자연과학 학습을 도울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함. 이는 쉘리아 카이만에게 그녀의 학위논문인 “Natural science in the making - Children’s meaning construc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sustainable future”에 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했을 때 들을 수 있었던 답변임.

4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그녀는 아동이 자연과학을 탐구할 때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하였음. “저는 아동이 자연과학을 접하게 되는 지점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자연과학과 지속(개발)가능성에 관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일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쉐실리아 카이만은 말함. 그녀는 현재 초등학교의 자연과학 및 수학교사로 재직 중이며, 또한 스톡홀름 대학에서 연구자로서 자연과학 교수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그녀는 또한 스톡홀름의 유치원 교사이기도 함.

첫 번째 연구는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환경과 지속(개발)가능성과 관련한 이슈들을 탐구하는 능력에 관한 논쟁과 관련이 있음. 즉, 아동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기회 - 주체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관한 것임. 두 가지의 예를 통해 쉐실리아 카이만은 어떻게 그녀의 연구에 참여했던 학령 전 아동들이 그들의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였음. 그 중 하나의 예에서 아동들은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식물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이를 위해 아동들은 식물들이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바람과 비를 그렸음. 다른 하나의 예에서는, 아동들은 건설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새들이 둥지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음. 그 해결책으로 아동들은 새둥지를 더 조용한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음.

“이 연구에서 저는 존 듀이의 실용주의 이론에 나오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개념들은 ‘예측, 행동방침(수립),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조화되어, 연구자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기회를 촉진시켜 주교자 할 때 좋은 교육적 수단이 됩니다.”라고 쉐실리아 카이만은 말함.

예측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함께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 희망, 그리고 관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함. 행동방침(수립)은 아동들이 선택을 통해 행동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며, 실천은 아동들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것들을 일컫음.

두 번째 연구에서, 쉐실리아 카이만은 학령 전 아동들이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프로젝트에서 동물들을 탐구할 때 나타나는 자연과학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연구결과는 아동들의 의미 구성이 과학자들이 환경을 체계화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였음. 먼저 아동은, 과학자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외양, 형태, 그리고 움직임등에 먼저 주의를 기울임. 그리고 그들은 더 복잡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중국에는 복잡하고 공상적인 생태

체계를 창조해냄. 연구 결과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서식지들이나 더 심도 있는 자연과학 소재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음.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교사들이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것임.

“교사들로부터 생산적인 질문을 받는 것을 통해, 아동의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은 심화됩니다. 질문은 아동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것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면 성인이 학습의 주도권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아동의 관심은 지속됩니다.” 라고 쉼실리아 카이만은 말했음.

세 번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변화하는, 그리고 종종 예측불가능한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음을 보였음. 아동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종종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가득한 해결책을 만들어냄. 아동들이 만들어낸 해결책의 일부(예를 들어, 길 아래에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나 다른 동물들이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는 이미 현실에 존재함. 또 다른 아동들의 해결책(개구리 유모차나 동물 점프대와 같은 방안)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

“우리가 어떻게 날 수 있을지를 알아내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날 수 있을까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들은 순수한 공상으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지속(개발)가능성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미지의 세상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아동들의 능력을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들의 이야기를 듣되, 너무 조급하게 아동들의 활동에 대한 목적을 캐묻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아동들이 활동을 통해 그 목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들의 활동이 처음에는 아무 의미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활동들이야말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공헌일 수 있습니다.”라고 쉼실리아 카이만은 말함.

네 번째 연구에서, 그녀는 어떻게 아동들의 신체가 자연과학 탐구에 사용되는지를 보였음. 신체는 아동간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아동들이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외양을 탐구하고 표현하도록 돕는데, 그러한 사이에 아동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감각을 기르게 됨. 예를 들어, 아동들은 개구리가 점프하기 위해 어떠한 다리를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개구리처럼 점프해 볼 수 있을 것임. 혹은, 아동들은 포식동물의 사냥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신체적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음.

“제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다섯살입니다. 생물학적 다양성과 지속(개발)가능한 미래에 대한 아동들의 의미구성은 단순하고 순진하다기 보다는 복잡하며 깊이가 있습니다. 제 학위논문

에서는 이러한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라고 쉐실리아 카이만은 말함.

2016년 1월 8일

출처: <http://www.larnasnyheter.se/forskolan/2016/01/08/lyssna-pa-barnens-ideer>

## 2. 취학 전 보육기관의 집단별 아동 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스웨덴 교원소식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학 전 보육기관의 집단별 인원수는 공식 통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의 원인들 중 하나는 집단별 인원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집단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임.

17,000명의 취학 전 보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별 인원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담당하는 학급에 가장 많은 영유아가 출석했을 때, 그 수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나이가 어린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 84%가 교육부 지정 상한선인 12명 이상이라고 응답했음. 또한, 4-5세 아동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 91%가 교육부 지정 상한선인 15명 이상이라고 응답했음.

이는 집단 별 아동 수 감소를 위한 정부지원이 개시되기 이전 년도에 발표되었던 교육부의 공식통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공식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급 중 57%가 15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 교육하고, 영유아 학급 중 63%가 12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 교육하고 있었음.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이러한 결과를 주지하고 있음. 그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공식 통계와 매우 다르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교원조합 조합장 요하나 야라 아스트란드는 이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았음.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집단 별 인원수에 대한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는 아동들이 하나의 큰 연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집단별 인원수를 적게 보고하기 위해 해당 연합학급 인원을 쪼개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음.

“집단”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게 사용됨. 교육부에서는 집단을 (연령에 따른) 학급별 등록인원수로 정의하지만, 여기에서 집단은 학급내의 더 세부적인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학급 이상의 더 큰 집단을 의미하기도 함.

문제는 무엇이 공식 통계에 보고되어 있는가 하는 것임. 교육부의 교육담당관 막달레나 칼슨은 보다 명확한 정의를 요구함. 그녀는 “흥미로운 점은 제가 보육기관장들, 혹은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면, 그들은 연령별 학급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단을 각 학급별 등록 아동수로 정의하고자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연령별 학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함

니다.”라고 말함.

이어지는 문제는 집단별 아동 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고 동시에 정부가 그 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발생함. 막달레나 칼손은 “만약 집단별 인원수를 정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그 크기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질문함.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설문결과와 공식통계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관련부처에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교원소식지에 알려왔음. 그는 “정부지원이 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음.

2016년 12월 1일

출처: <http://www.lararnasnyheter.se/lararnas-tidning/2016/12/01/battre-begrepp-behovs-grupper-forskolan>

## 영국

### ● 일·가정 양립

#### 1. 정부 지원의 부족으로 재취업이 가로막힌 여성이 30만 명에 육박

거의 삼십 여 만 명에 육박하는 영국 내 젊은 여성들이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취업 전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자선단체인 ‘The Young Women’s Trust’는 국가통계청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비경제활동 그룹으로 분류된 285,000명의 젊은 여성들 중 85퍼센트가 직업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원인은 가족에 대한 부양으로, 특히 어머니들은 비용이 적절한 보육의 부족으로 인해 직장으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혁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 Human Rights Commission)에 의하면, 11퍼센트의 여성들이 자신이 실직 혹은 정리 해고를 당했거나, 그들이 임신/출산 후에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매우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만 했었다고 보고함. 무려 20퍼센트가 감봉이나 승진 누락, 예정된 월급 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재정적 손해를 보고함.

높은 보육비용이 많은 여성들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시간제 근무와 적절한 비용의 보육을 늘림으로써 모든 일하는 어머니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함께 연구를 진행한 Sue Maguire 교수(바스대학교 정책연구원,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Bath)는 다음과 같이 말함. “이 연구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젊은 여성들의 경제적 비활동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였다. 또한 여성이 직면한 높은 수준의 걱정, 불안, 우울과 이에 동반한 분리와 고립을 드러내었다. 현재 여성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너무도 부족하다. 이것은 단지 교육, 고용, 혹은 훈련에의 복귀가 아니라 사회에 더 폭넓게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처들이 여성에 대한 뚜렷하고도 지속적인 지원책을 고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11월 30일

출처: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nearly-300000-young-women-shut-of-out-of-the-job-market-due-to-a-lack-of-government-support-a7445941.html>

## 2. 정부와 고용주를 향한 일하는 부모들의 요구

영국 공인인력개발협회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CIPD) 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하는 부모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두 가지 주요 문제로, 1) 0-2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동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 SPL)의 낮은 이용 비율과 2) 적절한 보육 선택의 부족이 드러남.

1000명 이상의 인적자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의 5퍼센트와 어머니의 8퍼센트만이 공동육아휴직 제도(2015년 도입)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5곳 중 단 1곳(21%)의 직장에서만 남성 직원으로부터 공동육아휴직 신청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공동육아휴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이 종사하는 해당 직장의 67퍼센트에서는 아무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음.

이 설문조사는 또한 0-2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의 부족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함. 응답자의 68퍼센트는 만약 현행 3-4세 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제도와 같은 수준의 보육지원이 2세 유아에게까지 가능하다면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직장 생활에 참여할 확률이 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함.

Rachel Suff CIPD 고용 관련 고문은 공동육아휴직에 대해 “공동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될 때 성평등에 대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의도는 바른 방향이었고, 문서상으로 그 제도는 새로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더 많은 선택과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특별히 어머니가 더 소득이 많거나 아버지가 자녀의 생애 초기에 더 큰 역할을 하기 원할 경우 공동육아휴직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라고 평가하였음.

그녀는 “그럼에도 제도의 복잡성과 초기 몇 주간 발생하는 법정 출산수당과 법적 공동육아수당 사이의 금전적인 차이가 공동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모들에게 더 크게 실감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동육아휴직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의 시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더 나은 기회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부와 고용주의 협업에 의해 개발된 국가적 보육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함.

또한, 이 설문조사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고용주의 지원 부족이 부모들로 하여금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하는 데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밝힘. 가령, 응답자의 단 30퍼센트만이 그들의 직장에서 육아 책임이 있는 직원들이 탄력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장려 받고 있다고 언급함.

탄력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은 수의 직장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활발하게 장려되고 있지 않음. 정부와 고용주들은 공동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아버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자세하게, 육아휴직을 조부모까지 확대하자는 정부의 제안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의 의도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약화시킬 수 있음.

2016년 12월 15일

출처: <http://smallbusiness.co.uk/working-parents-call-government-support-2535874/>

## ❖ 양육지원

### 1. 스코틀랜드, 유아 빈곤 해결을 위한 북유럽 스타일의 ‘아기 상자(baby boxes)’ 도입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무료로 제공되는 북유럽 스타일의 ‘아기 상자(baby box)’를 받게 됨.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 Scottish National Party)의 대표이자 스코틀랜드 제1장관인 니콜라 스텔전(Nicola Sturgeon)은 아기를 출산할 경우, 옷과 장난감 그리고 기저귀가 들어있는 견고한 골판지 상자를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특히 이 상자는 안쪽에 매트리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아기 침대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음.

이러한 계획은 5월에 실시되는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를 앞두고 국민당의 선거 공약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으로서, 이는 핀란드에서 80여 년간 진행되어 온 50가지 물품이 들어있는 출산 패키지(maternity package)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음. 핀란드의 이러한 제도는 핀란드에서 유아의 첫돌 전 사망률을 10퍼센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인 0.2 퍼센트로 낮추는 데에 기여하며 유아 돌연사에 대한 주요 예방 대책 중 하나로서 찬사를 받고 있음.

니콜라 스텔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아기 상자는 지극히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그것의 실제적 영향은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자녀의 생애 시작 단계에 있는 가족들을 도우면서 꾸준히 증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아기 상자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가족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가장 불우한 아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할 물질적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부모들이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조언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가족들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일부 매우 연소하고 취약한 부모들

을 지원하는 가족 간호 파트너십을 확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500명의 방문 간호사를 새로 채용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같은 방에서 아기를 박스 안에 바로 눕혀서 재우는 것에 대해 조언을 들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고용과 부모로서의 권리들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국민당은 저소득층 어머니들에게 600파운드의 출산 보조금과 이와 더불어 아이가 어린이집과 학교에 들어갈 때 추가로 더 지급할 것을 제의했음. 스티븐 장관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선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들에 착수할 것입니다.”

국민당은 아기 상자 도입에 개당 약 100파운드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정책에 대한 총 예상 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남아프리카, 잠비아,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이러한 아기 상자에 상응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음.

2016년 4월 18일

출처: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health-and-families/health-news/scotland-nordic-style-baby-boxes-snp-tackle-infant-poverty-a6989136.html>

## 2.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에이전시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간

영국 교육부는 최근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 에이전시를 창설하여 운영에 관한 관련 법적 요구 조건과 고려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아이돌보미 에이전시는 아이돌보미를 등록 관리하고, 회원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2013년 교육부에 의해 도입되었음. 돌보미들을 위한 훈련과 계발을 지원하며 마케팅과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등록된 돌보미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적합한 돌보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해 등록된 돌보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교육기준청(Ofsted)의 아이돌보미 에이전시 핸드북에 제시된 요구 조건을 충족한 기관은 아이돌보미 에이전시로 등록할 수 있음.

아이돌보미 에이전시의 운영이 보육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함. 그러나 영유아 보육 전문가 협의회는 에이전시 운영 모델이 교육기준청(Ofsted)이 돌보미들을 개별적으로 등록 및 관리 감독하는 현행 제도만큼 효과적일 수 있

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

2016년 7월 4일

출처: <https://www.pacey.org.uk/working-in-childcare/childminders/becoming-a-childminder/childminder-agencies>

##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1. 30시간 무상보육 혜택의 잠정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

센트럴포럼(CentreForum)은 보육정책 변화의 잠정적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Entitled Widening the gap? The impact of the 30-hour entitlement on early years education and childcare>를 발간했음. 이 보고서는 30시간 무상보육 제공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음.

첫째, 30시간 무상보육, 비과세보육,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정책 지침에 따르면, 법정생활임금(19,000파운드) 계층에 속하는 양부모 가족이 매년 3-4세 연령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금을 연간 소득 10만 파운드의 양부모 가족에 비해 20퍼센트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무상보육의 혜택이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둘째, 저소득층 사이에서 보육 보조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은, 2백만 명 이상의 부모들(약 85%)이 잠정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부문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함. 이러한 낮은 청구율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 부문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그들이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저소득층 부모들에게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임. 또한 이 제도가 지닌 복잡성 때문임.

셋째, 현재의 15시간 무상보육이 불우아동의 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양질의 보육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보편적 보육 복지에 대한 분석은, 질적 향상 없이 단순히 보육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동 관련 성과(child outcomes)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성취도 차이를 좁히지도 못함을 보여줌. 이것은 질적으로 더 나아진 보육의 양적 확장에 의해 설명됨.

넷째, 근로 가족에 대해서 주당 30시간으로 무상 보육의 혜택을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에 대한 현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2015년 11월에 발표된 국가 평균 재정 비율을 보면, 그 총액이 노동력 개발을 통한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로서 충분함을 보여주지 못함. 이에 대한 영향은 30시간 무상보육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해당하지 않는 아동 모두에게 적용 됨.

다섯째, 보육 복지 혜택은 또한 가장 불우한 아동들에 대한 보육 제공에의 접근을 위태롭게 함.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들은 이 혜택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육 장소에 대한 더욱 치열해진 경쟁은 15시간 무상보육의 핵심 혜택에 대한 접근조차 어렵게 할 위험이 있음.

여섯째, 30시간 무상보육 정책이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지지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음. 대신 무상보육의 확대는 상당한 수준의 무거운 짐을 수반할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현재의 보육 제공 방식이 단순히 정부 지원에 의한 보육 제공으로 대체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임.

\*참고

영국 정부는 주당 근무 시간이 16시간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만 파운드 (1억 7300만원 정도)이하 인 가정의 만 3~4세 자녀들에게 무상보육 시간을 주당 30시간(연간 38주)으로 늘리기로 했음. 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현재는 부모의 근무 여건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만 3~4세 아동 모두에게 15시간의 무상 보육을 제공하고 있음. (출처: 한국교육신문 2016년 1월 4일자)

2016년 5월 26일

출처: <http://centreforum.org/publications/impact-30-hour-entitlement-childcare/>

## 2. 영유아 대상 국가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시작

최근 영국 교육부는 영유아 대상 국가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2016년 8월 11일 부터 9월 22일까지 6주간, 새로 도입되는 재정 지원에 관해 잉글랜드에 있는 보육 제공자들과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견해를 수렴하기로 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 제공자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혹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기존 방식과 달리, 새롭게 변화된 재정지원방식은 실제 비용에 바탕을 두고 재정지원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안됨.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보육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보육·교육 제공자들에게 국가 재정지원 산출방식에 의한 시간당 기본 금액을 지불하도록 제안하고, 또한 재정 지원의 95%를 보육 제공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함.

보육 제공자들에게 지불되는 국가 평균 금액은 3-4세 영유아의 경우 시간 당 4.88 파운드, 2세 영아의 경우 5.39 파운드임. 제시된 기준 금액은 국가 평균 금액이므로 각 지역의 실제 지급액은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실제 지급액은 홈페이지(<https://consult.education.gov.uk/early-years-funding/eynff>)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10%까지 시간당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며, 또한 장애생활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 수혜 아동을 돌보는 보육 제공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선행 재정 재원이 있음.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을 2017년 4월부터 현행 15시간 무상 보육에 적용하고 2017년 9월부터 모든 30시간 무상 보육에 적용할 예정임.

2016년 8월 11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consultation-on-changes-to-early-years-funding-pub>

### 3. 추가 무상보육이 유치원에 초래할 위협

잉글랜드에서는 2017년부터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이 학기 중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남. 정부가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당 30시간 무상 보육을 강행할 경우 잉글랜드에 있는 수 백개의 유치원들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음.

현재 잉글랜드에는 3-4세 대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이 400여 개 있음. 그 중 3분의 2가 잉글랜드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 있고, 99%가 ‘ 좋음’ 혹은 ‘우수함’ 평가를 받고 있음.

전국 교장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와 Early Education 재단이 함께 실시한 분석에 의하면, 30시간 무상 보육이 도입될 경우 상당수의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 - 버밍엄 (Birmingham), 랭커셔(Lancashire), 하트퍼드셔(Hertfordshire) - 에서 재정 지원에 있어 상당한 삭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지역별로 재정 지원 변화를 살펴보면, 버밍엄에 있는 유치원들은 2015-16 학년도에 시간당 평균 8.36 파운드(한화 약 1만2천원)를 받았으나 2017-18년도에는 4.44 파운드(한화 약 6천원)로 삭감될 것으로 보임. 랭커셔에서는 7.89 파운드(한화 약 1만 9천원)에서 4.27 파운드(한화 약 5천 9백원)로, 하트퍼드셔에서는 7.47 파운드(한화 약 1만 4천원)에서 5.36 파운드(한화 약 7천 4백원)로, 더럼(Durham)에서는 6.67 파운드(한화 약 9천원)에서 4.15 파운드(한화 약 5천 7백원)로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시간당 2.11 파운드(한화 약 3천원)부터 최대 3.92 파운드(한화 약 5천 4백원)까지 재정 지원의 감소가 예상됨.

러셀 하비(Russell Hobby) 전국 교장 협회 사무총장은 “2020년까지 2년 동안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있으나 그 후에는 잉글랜드의 유치원들은 재정적으로 독자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보육 공간은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잉글랜드 전역의 유

지원들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현재 가능한 보육 공간도 잃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수천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기 전에 정부는 30시간 무상 보육의 바탕으로 삼은 데이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양질의 유치원 교육이야말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입증된 방법이다” 라고 주장함.

2016년 9월 22일

출처: <http://www.bbc.com/news/education-37428833>

#### 4. 현행 보육 바우처와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보육 제도 비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현행 보육 바우처 제도(childcare vouchers)가 2018년 4월 종료 예정으로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비과세 보육(tax-free childcare) 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보육 바우처 제도는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했음.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비과세 보육은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근에 발표된 자료(Sodexo's data)에 의하면, 지난 8월에 보육비 혜택 온라인 환산기를 이용한 9,259명 중 5,952명에게는 바우처가 더 유익하고, 3,283명에게는 비과세 보육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비과세 보육은 ‘아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서 한 자녀 당 매년 보육비의 20%가 정부에 의해 충당되며, 연간 2,000 파운드(한화 약 277만원(환율 1파운드= 1,387.11원 기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 비과세 보육 제도가 더 유리함. 양 부모가 주당 16시간을 일하고, 최저 생활 임금 7.20 파운드(한화 약 9,987원)를 받을 경우에 해당함. 세금 감면(tax credits) 혹은 통합 수당(universal credit)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한 부모가 100,000 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 보육 혜택에 해당하지 않음.

반면 보육 바우처는 ‘부모’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서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부모는 각각 바우처로 243 파운드(한화 약 33만 7천원)를 보육비로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바우처 금액은 세금과 국가 보험 공제 전 월급에서 납부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모는 연간 930 파운드(한화 약 129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음. 모든 바우처는 유효 기간은 없으나 환불은 불가하고, 자녀가 15세 (장애 아동의 경우 16세) 가 되는 9월 1일까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

보육 바우처 제도와 비과세 보육 제도 중 무엇이 더 유익한지는 부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름. 다자녀 가정 혹은 보육비 지출이 많은 가정의 경우 연간 2,000 파운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보육 제도가 더 유리함. 반면 기본 세율 계층에 속하고 보육비 지출 총액이 9,336 파운드 이하일 경우, 혹은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보육비 지출이 6,252 파운드 이하일 경우 바우처 제도가 유리함.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930 파운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모들은 현행 바우처 제도를 2018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고, 원할 경우 내년부터 비과세 보육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2016년 9월 10일

출처: <http://www.telegraph.co.uk/work-salary/news/childcare-schemes-vouchers-and-tax-free-childcare-compared/>

## 5. 영국의 보육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나

영국의 보육비용이 서양 문화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영국 내 한 가족의 수입 중 3분의 1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보미 이용과 같은 보육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나타냈으며, 이 수치는 프랑스와 독일보다 3배 이상 높음.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의 경우, 보육비로 한 해 평균 11,300 파운드(한화 약 1,590만원 (환율 1파운드=1,400원 기준))를 소비하며, 런던의 경우 15,700 파운드(한화 약 2,210만원)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하는’ 비용은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보육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국가 지원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에 기인함. 2017년부터 최상위계층 부모들을 제외하고 모든 만 3-4세 유아에 대해 현재 지원 혜택의 두 배인 주당 30시간의 보육 혜택을 받게 됨. 그러나 해당 연령보다 어린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가정은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없음.

OECD 연구에 의하면, 영국에서 부부의 순 수입의 약 34 퍼센트가 보육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럽과 서양 문화권 내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6년 전에 33 퍼센트를 기록한 이래로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음. OECD 국가들의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양부모 가정의 보육비 지출이 수입의 13퍼센트를 차지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순수입의 10퍼센트 이하를 지출함. 영어권 국가에서 비용 지출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 뉴질랜드가 29 퍼센트로 2위를 차지하고, 이어 아일랜드가 27 퍼센트, 미국이 26 퍼센트로 이어짐.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하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 국가들이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보육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영국에서 2세 이하 영유아의 주당 50시간에 대한 보육시설 평균 비용은 217.57 파운드(한화 약 31만원)이고 50시간 아이돌보미 평균 비용은 202.22 파운드(한화 약 28만 4천원)로 나타남.

이와 같이, 영국의 높은 보육비 지출은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것이 재정

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데에, 특히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OECD 보고서 <Society At A Glance 2016>는 설명함.

2016년 9월 10일

출처: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831626/UK-childcare-expensive-world-Families-spend-income-nurseries-childminders.html>

## 6. 스코틀랜드,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대표이자 자치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텔전은 스코틀랜드 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육 제공에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함.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스코틀랜드를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됨.

이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보육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푸르니마 타누쿠(Purnima Tanuku) 전국 보육시설 협회 대표가 평함.

이러한 새로운 변화 아래에서 부모들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보육시설 혹은 아이돌보미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역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혹은 부모들이 그들의 보육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서 보육 시설 이용에 직접 사용할 수도 있음.

현재 지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시설들은 지방 정부가 유연성을 갖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항상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음.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러한 ‘선택’과 ‘유연성’을 우선으로 하는 보육 시설 제공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국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할 예정임.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영유아들과 가족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 스코틀랜드의 장·단기 경제 전망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유연한 보육의 제공은 부모들에게 고용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보육 및 보육 시설 공사 관련 영역에서의 고용 기회가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 새로운 계획들은 아동들이 겪는 불평등과 이들의 성취도 차이를 줄일 것이고,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할 것임. 이는 아동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으로 예상됨. 나아가 장기적 경제 이익을 창출할 것이고 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로의 다리(a bridge to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가 될 것이라고 니콜라 스텔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언급함.

2016년 10월 17일

출처: <http://www.daynurseries.co.uk/news/article.cfm/id/1579262/Nicola-Sturgeon-announces-radical-childcare-reforms>

##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 1. 지역 영유아 보육 제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지난 3월 3일 영국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음. 이 조사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잉글랜드 학부모 6,198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학부모의 가정에 방문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되었음.

64%의 학부모들이 지역 보육 제공의 전반적인 질이 매우 혹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음. 이러한 수치는 2012-13년도 설문조사 당시 58%에서 증가한 것임. 지역 보육 기관의 수에 대해서는 28%의 학부모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46%는 대체로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2-13년 조사 당시 42%에서 4% 증가한 수치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66%의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 놀이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3%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보육 제공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경우, 그 주요 이유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제약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65%의 학부모들이 스스로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보육 제공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보육 비용을 이유로 언급한 학부모는 12%에 그쳤음.

2016년 3월 29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care-and-early-years-survey-of-parents-2014-to-2015>

## ❖ 유아교육·보육 교사

### 1. 영유아 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소아 응급처치 규정 강화

영국 정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아 응급처치 관련 규정에 대해 보육 종사자 및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관한 내용과 추후 시행 계획을 발표함. 보육 환경에서 영아에 대한 응급처치 요구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2012년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Millie Thompson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 논의가 제기되었음.

대부분의 보육 관련 종사자들은 현행 소아 응급처치에 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함.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현재 소아 응급처치(Paediatric First Aid: PFA) 과정의 이수와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고됨.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 교육부는 개정안을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보육시설장에게는 각 기관에 신입 보육 종사자들이 PFA 훈련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줄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요구 조건들은 이미 PFA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된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장애를 지닌 보육 종사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겠지만 그들 또한 가급적 PFA 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배우고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장려됨. 시설장에게는 교직원들의 PFA 수료증 혹은 PFA 훈련을 이수한 직원의 명단을 게시하도록 권고될 예정임.

2016년 7월 12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paediatric-first-aid-eyfs-statutory-framework-amendments>

### 2. 교사의 업무부담과 관료주의적 행정체계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교사지침서

스코틀랜드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와 관료주의적 행정체계를 없애기 위한 획기적인 교사 지침서가 새롭게 발간됨. 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조언을 주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교육 시스템의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나타남.

이 지침서에는 교사들이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매우 명료하게 언급되어 있음. 지난 수년 간 스코틀랜드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교사 지침서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교사의 업무 과중을 유발함.

지침서 내용은 전문가 연합, 현직 교사와 교장들과의 협의에 의해 개발됨. 새 지침서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이를 통해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6년 8월 29일

출처: [http://www.educationscotland.gov.uk/newsandevents/educationnews/2016/education/august/news\\_tcm4876779.asp](http://www.educationscotland.gov.uk/newsandevents/educationnews/2016/education/august/news_tcm4876779.asp)

참고: <https://education.gov.scot/improvement/Pages/CfE-delivery-plan.aspx>

##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1. 기초평가가 아동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 설문조사

최근 교사-강사협회(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와 전국교원노조(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4-5세 아동에게 실시하는 기초평가(baseline assessments)가 아동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로 아동의 학교생활의 출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연구는 교사-강사협회(ATL)와 전국교원노조(NUT)를 대신하여 런던대학교 교육연구대학원(UCL Institute of Education)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1000명 이상의 교사들과 잉글랜드 전역 5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상당수의 교사들이 기초평가가 아동의 성취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10퍼센트 미만의 교사들만이 그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답했고 반면 59퍼센트는 기초평가가 아동의 학교생활 시작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음. 더욱이 교사들은 이러한 테스트가 아동을 알아가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 SEN)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파악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했음. 걱정스럽게도 31퍼센트의 교사들은 실제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의 손상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아동이 본격적인 전일제 교육을 시작할 때 실질적인 우려임.

2016년 2월 12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survey-reveals-baseline-assessments-are-not-workin/>

### 2. '아기 울음 다루기 (Coping with Crying)'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보고서

영국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전국 모임인 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최근 ‘아기 울음 다루기 (Coping with Crying)’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보고서 (Evaluation of Coping with Crying: final report)를 발간하였다고 함.

본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영아의 울음을 잘 다루도록 돕고, 영아의 비 우발적 머리 부상 (non-accidental head injuries)을 줄이기 위해 NSPCC에 의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되었음. 교육은 훈련된 전문가 혹은 자원봉사자가 부모들에게 교육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 영상을 통해 부모들은 영아를 흔들거나 거칠게 다루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영아가 울 때 적절하게 울음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전형적인 울음 행동 유형에 관한 정보들을 얻게 됨.

2016년 평가 보고서의 의하면, 본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산 직후에 병원에서 영상을 본 부모들은 아기의 울음과 머리 흔들기의 위험성에 관한 지식, 그리고 새로운 대처 전략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함. 반면, 출산 전, 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영상을 시청한 부모들은 더 크게 교육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기를 흔들는 것에 대한 영향에 관한 지식의 향상을 더 효과적으로 경험하였고, 아기가 우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임을 알게 되었으며 부모 자신이 휴식을 갖기 위해 아기를 맡기기도 함.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느꼈고 아기가 울 때에 경험했던 좌절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향도 더 높게 나타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본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기를 다루기 힘든 경우에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렸고, 이에 따라 아기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전문가가 추천한 아기를 진정시키는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는 것임.

2016년 6월 9일

출처: <https://www.nspcc.org.uk/services-and-resources/research-and-resources/2016/coping-with-crying-final-evaluation-report/>

참고: [copingwithcrying.org.uk](http://copingwithcrying.org.uk)

## ●● 아동발달/부모됨

### 1. 자신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자녀의 출생 직후 남성의 아버지됨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이러한 태도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이후의 자녀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이 연구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자신감은 강한 유대관계 형성과 양육 파트너와의 보다 친밀한 관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자녀의 이후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이나 집안일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의 영아기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여하느냐라는 것을 밝힘.

아버지들이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에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이 시기에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양보다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 결과에 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함.

연구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종단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인 ‘부모와 자녀에 관한 에이번 종단 연구(The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에서 수집된 것으로, 총 10,440명의 8개월 된 영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됨. 부모와 자녀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설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육아, 자녀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 자녀행동과 발달과 같은 주제에 관하여 대답을 하였음. 이 후 6,000명 이상의 자녀들이 9세, 11세가 되었을 때에 이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잘하고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확신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보다, 십대에 문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28%까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의 긍정적인 육아는 수많은 방식으로 자녀에게 좋은 결과로 귀결됨. 이를 테면, 자녀에게 좀 더 직접적인 육아를 제공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중요한 정서적 지지의 근원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어머니의 안녕과 양육 방식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에게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남.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어머니의 우울증에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 아버지의 긍정적인 개입은 행복하고 끈끈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요소이자, 현재 그러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자녀들의 더 나은 행동 결과를 가져옴.

2016년 11월 23일

출처: <http://www.bbc.com/news/education-38076493>

## ❖ 기타

### 1. 영유아 보육 제공에 관한 Ofsted 연례 보고서

학교 평가 전담 기구인 영국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은 2016년 12월 1일에 2015-16 연례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 의하면 '우수'와 '뛰어남'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보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91%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보육 제공이 가장 취약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보육 시설 평가 결과

전체 보육 제공의 91퍼센트가 '우수' 혹은 '뛰어남'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2010년 이래로 22퍼센트 증가한 수치임. '우수' 혹은 '뛰어남'으로 평가 받은 보육 제공의 비율은 자발적 사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 95퍼센트로, 아이돌보미 (89퍼센트)보다 더 높게 나타남. 잉글랜드 각 지역에서 최대 5개 보육 시설 중 4곳이 '우수' 또는 '뛰어남'으로 평가 받았고, 이 시설은 인증된 영유아 보육 제공에 포함됨.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증된 영유아 보육 제공의 15퍼센트가 가장 최근의 평가에서 '뛰어남'으로 평가를 받음. 이러한 보육 제공들은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관찰하고 후속 단계들을 찾아내는 데에 매우 꼼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보육 시설의 수

해당 지역의 보육 기관의 수는 최근 아동 인구의 성장에 맞추어 증가하지는 않았음. 현재 잉글랜드에는 4세 이하 유아가 2009년보다 거의 240,000명 더 있으나 등록된 지역에서 보육 시설의 수는 2009년 이래로 50,000곳 이상이 감소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보육 제공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계획을 확실하게 실시해야 함.

#### ■ 아동 발달 성과

2016년 현재 우수한 수준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비율은 69.3퍼센트였는데, 이는 2015년 이래로 3퍼센트 증가한 수치이고, 2013년 이래 17.6퍼센트 증가하였음. 영국 전 지역에서 아동 발달의 향상이 있었고, 특히 북동 지역은 가장 큰 향상을 보임. 비록 성별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나, 이 연령대의 여아의 발달은 남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발달의 우수 수준에 속한 아동 중 특별한 교육(혹은 특수교육, 건강과 돌봄 계획)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은 4퍼센트로 나타남.

## ■ 영유아 행동 평가 결과

거의 다수의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행동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음. 그러나 유아의 행동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받은 시설도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서는 영유아들을 자극하거나 도전을 주는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매년 적은 수의 영유아들이 심각한 품행 문제로 인해 시설에서 영구적으로 퇴학당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30명의 영유아가 이에 해당하였음.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정학을 받은 영유아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비록 이러한 수치는 1퍼센트 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치이나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해 1,000 명이상의 정학생 증가가 있는 것임.

## ■ 격차의 감소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영유아들과 그렇지 않은 또래 영유아들 사이에서의 격차가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음. 2007년보다 현재 3.5퍼센트 격차가 좁아졌고, 가장 큰 감소는 작년에 나타났음. 2세 유아가 3-4세 유아보다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교직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의 약 75퍼센트가 레벨 3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 전문가 혹은 전문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비율은 2011년에 35%에서 2015년 48%로 증가했음.

## ■ 유초연계

학교와 가정의 양육 환경에서 유아의 학교로의 전환을 돕는 파트너십을 향상시켜 가는 가운데, 유아의 학교 준비도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더 향상시켜 나간 것으로 보임.

2016년 12월 1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ofsted-annual-report-201516>

## 2016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

### ● 연구소 홈페이지 탑재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총 탑재동향 정보: ('17.01.13 기준)〉

번호	국 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1	일본	사이타마시, 손자 육아를 위한 '조부모수첩' 발행	'16.02.17	806
2	일본	육아휴직퇴원 폐지, 부담 없는 이용을	'16.02.17	717
3	미국	피드백 수렴 위한 웹사이트를 개시	'16.02.17	612
4	캐나다	퀘벡주 보육 예산 삭감 계획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반발	'16.02.17	783
5	프랑스	미숙아와 부모들을 위한 보육원 시설	'16.02.17	787
6	프랑스	렌스시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육원	'16.02.17	790
7	스웨덴	아이들의 생각을 경청하라	'16.02.17	1,144
8	일본	미나미아시가라 시(南足柄市), 임신부터 취학 전까지 끊임없는 육아 지원	'16.04.12	414
9	일본	교토부(京都市), 조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의 달인 강좌	'16.04.12	361
10	미국	오늘날 유치원: 놀이시간은 짧아지고 학습량은 늘어나다	'16.04.12	468
11	캐나다	CBC News, Quebec 주정부 보도자료 등 관련자료 종합	'16.04.12	367
12	프랑스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원	'16.04.12	414
13	스웨덴	신규 기준이 그룹별 아동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	'16.04.12	378
14	영국	기초평가가 아동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 설문조사	'16.04.12	472
15	일본	아마나시 현 후나후키 시, 인터넷을 통한 육아 지원. 2017년 개시 목표	'16.04.12	540
16	일본	돌봄도서관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육아지원의 장으로도	'16.04.12	553
17	미국	동생이 손위형제자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	'16.04.12	490
18	미국	미시건 주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무상교육	'16.04.12	538
19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육 관련 산업규제 개정안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 반발	'16.04.12	480
20	프랑스	파리에 문을 연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	'16.04.12	483
21	독일	독일 전체적인 경향 -유치원 원장들이 부분적으로만 유치원 수업활동에서 제외됨	'16.04.12	614
22	스웨덴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16.04.12	635
23	영국	지역 영유아 보육 제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16.04.12	666
24	일본	히오키 시, 출산가정에 베이비 용품을	'16.05.12	475
25	일본	치바 현 이치카와 시, 다세대 가족에 보조금. 육아와 정착 촉진을 위한 신사업	'16.05.12	419
26	미국	공립 유아학교에 의한 히스패닉, 흑인, 저소득층가정 어린이의 수학 및 언어 성취도 격차 감소	'16.05.12	496

번호	국 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27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육 관련 산업규제 개정안 철회 입장 밝혀	'16.05.12	476
28	프랑스	“부모의 집”의 발전을 위한 기금	'16.05.12	374
29	프랑스	파업 중인 보육원들 : 몽펠리에 시청에서 시위 중인 사람들	'16.05.12	390
30	독일	친부모 확인에 관한 권한, 1950년에도 같은 판결이었다.	'16.05.12	390
31	독일	니콜라스 베르그그루엔(Nikolas Berggruen)의 자녀에 대한 갈망: 대리모 사업	'16.05.12	684
32	스웨덴	직장에서 남성들이 받는 불이익	'16.05.12	662
33	영국	스코틀랜드, 유아 빈곤 해결을 위한 북유럽 스타일의 ‘아기 상자(baby boxes)’ 도입	'16.05.12	934
34	일본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 아동부양수당 둘째부터 최대 두 배로	'16.06.10	333
35	일본	사가에 시, ‘산후조리’ 지원 확대 - 숙박요금 및 산후지원서비스 제공	'16.06.10	373
36	일본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마, 오키나와 현 대입지원 ‘무상학원’ 50명 모집	'16.06.10	301
37	미국	흔들린 아기 증후군 (Shaken Baby Syndrome) 예방	'16.06.10	388
38	캐나다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빈부격차 나타나	'16.06.10	403
39	프랑스	첫번째 야간 소규모 어린이집 개장	'16.06.10	343
40	프랑스	9000개의 새로운 어린이집 자리	'16.06.10	318
41	독일	과학교육의 강조 - 어린 과학자들의 집 (Haus der kleinen Forscher)	'16.06.10	354
42	독일	과학교육의 강조 - 유치원 대회 “과학자들의 영혼 2016” 개최	'16.06.10	593
43	스웨덴	경고 -어린 영아가 보육기관에 입소해서는 안된다	'16.06.10	566
44	영국	30시간 무상보육 혜택의 잠정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	'16.06.10	731
45	일본	육아 우대 카드 전국 통합, ‘이번 기회에 신청을’	'16.07.11	649
46	일본	장애 아동에게 음악 치료를, 보육사 지망생들이 자원봉사	'16.07.11	488
47	일본	오키나와 현, ‘육아 우대 카드’ 드디어 도입, 47개 도도부현 중 마지막 발행	'16.07.11	551
48	미국	보육교사 월급이 유치원교사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16.07.11	461
49	미국	위기에 처한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서비스	'16.07.11	283
50	캐나다	불어를 주언어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인력난 심화	'16.07.11	320
51	프랑스	학부모에게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16.07.11	305
52	프랑스	어린이집의 배려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데려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돌봄	'16.07.11	328
53	독일	구 동독의 보육시설들은 질 보다 양 (교사 대 아동 비율 관점에서)	'16.07.11	384
54	스웨덴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남성들의 학업 중단	'16.07.11	342
55	영국	‘아기 울음 다루기 (Coping with Crying)’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보고서	'16.07.11	346
56	일본	2017년부터 학부모 취업 면접 시, 보육서비스 이용료의 80%를 구직자에게 지급	'16.08.16	620

번호	국 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57	일본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노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16.08.16	510
58	일본	육아휴직 최대 2년까지, 일본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16.08.16	454
59	미국	전문가/지역검찰관 등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아동학대를 감소시킨다	'16.08.16	307
60	미국	버몬트 주, 미국 최초 모든 3-4세 유아에게 주당 10시간 무료 preschool 프로그램 제공	'16.08.16	337
61	캐나다	앨버타 주 경제위기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보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이슈	'16.08.16	263
62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총선 공약, 새로운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지급 시작	'16.08.16	333
63	프랑스	몽사냥 지역,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것을 도와주는 연결 프로젝트 가동	'16.08.16	281
64	프랑스	여러 회사가 함께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16.08.16	314
65	독일	독일내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최고치에 도달	'16.08.16	291
66	독일	뮌헨시,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라는 소송에서 가족에게 유리한 판결 예정	'16.08.16	216
67	스웨덴	교육의 질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유치원과 방과후케어센터 커리큘럼 개편 및 지침 부여	'16.08.16	279
68	영국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에이전시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간	'16.08.16	259
69	영국	영유아 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소아 응급처치 규정 강화	'16.08.16	199
70	일본	대학생 구직활동 전 맞벌이가정 '1일 가족 견학', 워킹맘의 실상을 알게 되다	'16.09.20	736
71	일본	증가하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방지 지원 거점시설 정비	'16.09.20	368
72	미국	초기 모국어 교육이 영어 구사 능력을 돕는다	'16.09.20	367
73	캐나다	캐나다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16.09.20	195
74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육시설 대기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비용 금지 계획 발표	'16.09.20	216
75	프랑스	보육시설 입소 희망 두 명 중 한 명은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함	'16.09.20	186
76	프랑스	보육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부모들	'16.09.20	203
77	독일	인지도와 수급률이 저조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혜택	'16.09.20	182
78	독일	도입 계획 중인 가족수당 정책(Familiengeld)에 관하여	'16.09.20	200
79	스웨덴	보수정당의 신규 이주민에 대한 부모양육지원 제한	'16.09.20	184
80	영국	교사의 업무부담과 관료주의적 행정체계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교사지침서	'16.09.20	170
81	영국	영유아 대상 국가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시작	'16.09.20	186
82	일본	한부모 가정의 30% '지원사업 모르고 있다'... 네리마 구, 전문부서 설치 추진	'16.10.18	375
83	일본	나가시마와슈 도서관, '어린이타임'으로 영유아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16.10.18	281

번호	국 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84	미국	네바다 주에서 선거기간 동안 다루지는 다섯 가지 주요 논쟁	'16.10.18	284
85	미국	인디애나 주, 보육시설 검색 웹사이트 구축	'16.10.18	146
86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기저귀 지원사업 관련 법안을 거부하다	'16.10.18	161
87	캐나다	온타리오 주, 0~4세 보육여건 강화를 위한 대규모 계획 발표	'16.10.18	193
88	캐나다	B.C주 부모들, 어린이집 자리 확보를 위해 이용료 수천달러 먼저 지불	'16.10.18	146
89	프랑스	크외소 시 영유아를 위한 시설	'16.10.18	172
90	프랑스	26%의 부모가 본인이 직접 육아하기를 선호	'16.10.18	173
91	독일	만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 감소	'16.10.18	208
92	독일	독일, 출산율 증가 및 외국인 여성들에 의한 베이비 붐	'16.10.18	112
93	스웨덴	육아휴직 가구 형제자매들의 보육기관 종일반에 대한 권리	'16.10.18	105
94	스웨덴	스웨덴 어머니들은 탄력근무제, 근무시간대의 조정을 원한다	'16.10.18	129
95	영국	추가 무상보육이 유치원에 초래할 위험	'16.10.18	127
96	영국	현행 보육 바우처와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보육 제도 비교	'16.10.18	122
97	일본	오키나와 시, '꿈의 공간 민들레'로 아동 중심의 지역교류 활성화	'16.11.17	563
98	일본	시즈오카 현, 아버지 육아참여 권장을 위해 출산휴가 아빠 연수회 제공	'16.11.17	182
99	일본	모리오카 시, '육아 응원 플라자' 개설을 통해 사회 전체가 육아지원에 나서	'16.11.17	169
100	미국	콜로라도 주 가정 보육시설의 감소	'16.11.17	101
101	미국	영유아와 부모 모두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16.11.17	128
102	캐나다	캐나다 보육비용,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16.11.17	135
103	캐나다	B.C.주 신민당, 선거 승리 후 집권 시 '하루 10달러 보육' 공약	'16.11.17	89
104	프랑스	프랑스, 조산사에 새로운 권한 부여	'16.11.17	87
105	프랑스	프랑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40세 이상 엄마에게서 태어난다	'16.11.17	95
106	독일	보육시설에 교육전문 자문위원 투입 프로젝트 가동	'16.11.17	125
107	독일	보육시설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6.11.17	57
108	스웨덴	육아휴직 부모 자녀의 종일반 등록에 대한 의견(1)	'16.11.17	81
109	스웨덴	육아휴직 부모 자녀의 종일반 등록에 대한 의견(2)	'16.11.17	66
110	영국	영국의 보육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나	'16.11.17	58
111	영국	스코틀랜드,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	'16.11.17	57
112	일본	일본 정부,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 재취업 지원	'16.12.15	154
113	일본	사가 시, 24시간 직장 보육시설 개설로 일하는 여성 지원	'16.12.15	110
114	일본	아이즈 시, 마이넘버 카드 제도로 전국 첫 육아정보 서비스 제공	'16.12.15	114
115	미국	영유아 보육·교육의 이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	'16.12.15	92
116	미국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와이 보육 비용 지원	'16.12.15	56
117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보육 수용정원 확충 등을 위한 예산안 발표	'16.12.15	54
118	캐나다	캠페인 2000, '2016 캐나다 아동·가족 빈곤 관련 연례 리포트' 발표	'16.12.15	58

번호	국 가	제 목	등록일	조회수
119	프랑스	직장과 자녀, 프랑스 부모들은 어떻게 조율하는가?	'16.12.15	75
120	프랑스	자폐성 장애 이해를 위한 국가 공식 사이트	'16.12.15	54
121	독일	독일 전역 유치원 비용 감소와 질적 향상 추진	'16.12.15	71
122	독일	독일 헌법재판소, 이슬람 교사에게 유치원에서 이슬람 두건 착용을 허용	'16.12.15	29
123	스웨덴	음악이 주는 효과	'16.12.15	33
124	스웨덴	취학 전 보육기관의 집단별 아동 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16.12.15	42
125	영국	자신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다	'16.12.15	48
126	영국	정부 지원의 부족으로 재취업이 가로막힌 여성이 30만 명에 육박	'16.12.15	39
127	일본	증가하는 사내 보육소와 여성 복직 지원	'17.01.12	9
128	일본	오사카 시, 소규모 보육소 설치로 대기 아동 문제 해결	'17.01.12	7
129	일본	가케가와 시, 제 1호 '육아 주택' 허가로 젊은 세대 이주 정책 마련	'17.01.12	9
130	일본	가케가와 시, 민간 기부금 활용하여 '아기를 위한 역' 도입	'17.01.12	6
131	미국	채터누가 시, 부모의 복직 지원을 위해 예산 10만 달러 편성	'17.01.12	7
132	미국	대학생 미혼모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	'17.01.12	6
133	캐나다	매니토바 주, 보육시설 대기기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보육' 정책 이 필요 - 학부모 3100명의 온라인 조사결과 발표	'17.01.12	6
134	캐나다	캐나다 보육비용 상승률,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세 배 이상으로 나타나 - 주별 정책성향이 지역별 보육비 부담 격차에 큰 영향 미쳐	'17.01.12	5
135	프랑스	보모 비율은 낮아지고 보육원 이용비율은 높아져	'17.01.12	8
136	프랑스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환급이 더 쉬워진 메츠 시	'17.01.12	11
137	독일	3세 이하 영아 중 약 22만 명, 보육시설 이용 못 해	'17.01.12	6
138	독일	독일 부모들, 더 좋은 보육시설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다고 함	'17.01.12	6
139	독일	독일 가족부 장관, 독일의 모든 보육시설이 무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혀	'17.01.12	5
140	스웨덴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들도 종일반에 등록할 수 있게 돼	'17.01.12	7
141	스웨덴	정부지원과 유치원의 학급 당 아동 수 준수 간 연계 강화	'17.01.12	12
142	영국	영유아 보육 제공에 관한 Ofsted 연례 보고서	'17.01.12	10
143	영국	정부와 고용주를 향한 일하는 부모들의 요구	'17.01.12	6

## ●● 국가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탑재 수

국가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탑재 수

지역	국가	탑재 정보 수
합계		143
아시아	일본	31
미주	미국	20
	캐나다	18
북유럽	프랑스	22
	독일	19
	스웨덴	16
	영국	17

## ●● 최다 조회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1-5순위

최다 조회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1-5순위

순위	국가	제목	조회수
1	스웨덴	아이들의 생각을 경청하라	1,144
2	영국	스코틀랜드, 유아 빈곤 해결을 위한 북유럽 스타일의 '아기 상자 (baby boxes)' 도입	934
3	일본	사이타마시, 손자 육아를 위한 '조부모수첩' 발행	806
4	프랑스	렌느시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육원	790
5	프랑스	미숙아와 부모들을 위한 보육원 시설	787

## ●● 주제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분류

주제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분류

주제	국가별 해당 주제 수							합계
	아시아	미주		북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일·가정 양립	6	1	-	3	-	3	2	16
양육지원	16	5	-	1	2	1	2	27
저출산	6	-	1	-	1	-	-	7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	3	13	1	3	1	6	27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3	2	14	7	6	1	34
유아교육·보육 교사	-	1	-	-	1	1	2	5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1	-	-	2	2	2	8
아동발달/부모됨	-	5	-	2	-	-	1	8
기타	1	1	2	1	3	2	1	11
합계	31	20	18	22	19	16	17	143



## 2016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